

고난도 고전 신문 정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1994학년도 2차 수능

(가) ¹그리고 통인이 도장을 받아서 찍었다. ²그 뚜욱 뚜욱 하는 소리는 저 엄고(嚴鼓) 치는 소리와 같고, 그 찍어 놓은 꼴은 마치 북두성이 세로 놓인 듯이 삼성(參星)이 가로 잘린 듯이 벌여 있다. ³뒤를 이어서 호장(戶長)이 증서를 한번 읽어 끝내었다. ⁴부자는 한참 머양하다가 말했다.

⁵“양반이 겨우 요것뿐이란 말씀이요? ⁶내가 듣기엔 양반 하면 신선이나 다름없다더니, 정말 이것뿐이라면 너무도 억울하게 곡식만 몰수당한 것이어유. ⁷아무쪼록 좀 더 이롭게 고쳐 주시기유.”

⁸군수는 그제야 부자의 요청에 의하여 증서를 고쳐 만들기로 했다.

“⁹대체 하늘이 백성을 낳으실 제, 그 갈래를 넷으로 나누었다. ¹⁰이 네 갈래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이가 선비이고, 바로 선비를 불러 ‘양반’이라 한다. ¹¹이 세상에선 양반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¹²그들은 제 손으로 농사도 장사도 할 것 없이 옛 글이나 역사를 대략만 알 정도이면 곧 과거를 치러 크게 되면 문과요, 작게 이루더라도 진사는 떼어 놓은 것이다. ¹³문과의 홍패(紅牌)야말로 그 길이가 두 자도 못 되어 보잘것없지만 온갖 물건이 예서 갖추어 나게 되니 이는 곧 돈자루나 다름이 없다. ¹⁴그리고 진사에 오른 선비는 나이 서른에 첫 벼슬을 하더라도 오히려 낮지 않아서 이름 높은 음관(陰官)이 될 수 있다. ¹⁵비록 그렇지 못해서 궁한 선비의 몸으로 시골살이를 하더라도 오히려 무단적인 행위를 감행할 수가 있다. ¹⁶이웃집 소를 몰아다가 내 밭을 먼저 갈고 동네 농민을 잡아 내어 내 김을 먼저 매게 하되 어느 놈이 감히 나를 괘시하랴. ¹⁷잣물을 네 놈의 코에 바르고 상투를 잡아 매며 수염을 뽑더라도 원망 조차 못하리라.”

¹⁸증서가 겨우 반쯤 이룩되었다. ¹⁹부자는 어이가 없어서,

²⁰“아이구, 그만두시유 제발 그만두시유. ²¹참, 맹랑합니다 그려. ²²당신네들이 나를 도둑놈이 되라 하시유.” 하고, ²³머리를 흔들면서 달아나 버렸다.

- 박지원 ‘양반전’

(나) ²⁴천생만민(天生萬民) 필수지직(必受之職) 직업이 다 다르다. ²⁵사(士) 농(農) 공(工) 고(賈) 네 가지에 우리의 배운 직업 배장사가 직업이라. ²⁶바다에 배를 타고 상고(商賈)로 가옵는데 인당수 용왕님은 인제수(人祭需)를 받는 고로 ²⁷황주 땅 도화동에 십오 세 심청 여자 인물이 일색이요 온몸에 흠이 없고 효행이 출천(出天)키로 중가(重價) 주고 그 몸 사서 목욕재계(沐浴財界) 단장시켜 제수로 바치오니 흠향(歆響) 받자 하옵시고 ²⁸대해 만리 가는 우리 밤이면 석을 잡고 낮이면 돛을 달아 ²⁹배도 무쇠배가 되고 닻도 무쇠닻이 되어 억만금 퇴를 내어 춤추고 돌아오게 점지하여 주옵소서. ³⁰북을 동동 울리면서 심청아 시급하다 어서 급히 물에 들라. ³¹심청이 거동 보소. ³²뱃머리에 나서 보니 새파란 물결이며 울울을 바람 소리 풍랑이 대작하여 뱃전을 탕탕 치니 심청이 깜짝 놀라 뒤로 펴 주저앉으며, ³³“아고 아버지 다시는 못 보겠네. ³⁴이 물에 빠지면 고기밥이 되겠구나. ³⁵무수히 통곡타가 다 시금 일어나서 바람 맞은 사람같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치마폭을 무릅쓰고 앞니를 아드득 물고, ³⁶“아고 나죽네, 소리하고 물에 풍 빠졌다 하되 ³⁷“그리하여서야 효녀 죽을 될 수 있나. ³⁸두 손을 합장하고 하느

님 전 비는 말이, 도화동 심청이가 맹인 아비 해원(解冤)키로 생목숨 이 죽사오니 명천(明天)이 하감(下感)하사 감감한 아비 눈을 불알내(不日內)에 밝게 떠서 세상 보게 하옵소서. ³⁹빌기를 다한 후에 선인들 돌아보며 평안히 배잘하여 억십만 금퇴를 내어 고향으로 가올 작에 도화동 찾아들어 우리 부친 눈뵈는가 부디 찾아보고 가요

- 작자미상 ‘심청전’

1. (가)의 ‘군수’와 (나)의 ‘심청’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를 <보기>에서 바르게 찾은 것은?

■ 보기 ■

- ㉠ 인물에 대하여 거리를 둔다.
- ㉡ 인물에 대하여 거리를 두지 않는다.
- ㉢ 상황에 따라 거리를 두기도 하고, 두지 않기도 한다.

군수	심청	군수	심청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2. (가), (나)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사건 전개에 대한 설명은?

- ① 품위(品位) ② 권력(權力) ③ 체면(體面)
- ④ 금전(金錢) ⑤ 명예(名譽)

3. ㉠과 상반된 관점이 드러나는 것은?

- ① 이 아희 비록 영웅이오나 천생(賤生)이라 무엇에 쓰리요 원통하다 부인의 고집이여.
- ② 남녀가 유별하니 비록 천인의 딸이라도 제 스스로 남자를 만남이 옳지 못하거늘 하물며 양반의 딸이야 말하여 무엇하리.
- ③ 옛사람이 이르기를 왕후장상(王侯將相)이 세웠다 하였는데, 세상 사람이 모두 부형(父兄)을 부형이라 부르되 나는 홀로 그러지 못하니 어인 인생인가.
- ④ 이제 너희들이 양순한 백성과 충실한 일꾼으로 이렇듯 참혹한 지경에 이르렀거늘 벼슬한 이가 길을 트지 않는 것은 천리에 어그러짐이니.
- ⑤ 나는 공경대부(公卿大夫)의 지위를 차지하지 않았으면서, 농민의 곡식을 어찌 앗아서 먹고 공인의 그릇을 어찌 앗아서 쓰고 상인의 재물을 어찌 앗아서 통용한단 말인가. 마땅히 선비의 내실을 구하며 학문에 정진하리라.

4. ㉡에서 이야기 방식이 대화의 형태로 바뀐 이유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독자에게 구체적인 장면을 제시하여 실감나게 하려고
- ② 부자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매매를 포기시키려고
- ③ 부자에게 증서의 내용을 의심하게 하려고
- ④ 부자에게 양반의 속마음을 깨닫게 하려고
- ⑤ 독자에게 백성의 궁핍상을 알게 하려고

고난 고전 신문 정선
L L L L O L

5. ㉔과 같은 목소리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 ① 향단이가 내달으며 절하고 여짜오되, 대감 대부인님 기체 안녕하옵시며 서방님 천 리 행차 평안히 오시오나까. 어사또가 대답하되, 오, 모시고 잘 있더냐. 춘향이 자던 방문 춘향이 갇힌 후에 잠가둔 지 오래구나.
- ② 어사또가 구경하다 건너 두령 바라보니 갓 쓰고 중치막에 긴 담뱃대 중동 쥐고 삼사 인이 앉았거늘 상민인 줄 짐작하고 그 옆으로 건너가서 혼잣말로 말을 붙여, 농사를 아니 잃고 백성들이 즐겨하니 본관(本官)이 명관(明官)이제.
- ③ 춘향이 하는 말이, 오늘 저녁 님 오시니 나는 아니 죽네. 종을시키고 종을시키고, 어사또 할 말 없어 듣기만 하는구나. 다른 객객 몽중가는 옥중에서 어사 보고 수다를 떠다는데 이 사실 짓는 이는 신행길을 차렸으니 좌상 처분 어떠한지.
- ④ 장독 뒤에 은신하고 동정을 살펴보니 후원에서 사람 소리 은은히 들리거늘 가만히 엿보니 춘향어미 소리로다. 황토로 단을 묻고 정화수 한 동이를 소반 위에 받쳐 놓고 그 앞에 가 꿇었더어 지성으로 비는 말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 ⑤ 논 가는 농부 하나 한 쟁기에 두 소 매어 논을 한참 갈아가다 논두렁에 쉬어 앉아 담뱃대를 쑥 잡아 빼 떨어서 헛김 나는 아래통을 아드득 바싹 돌려 씹지의 가루담배 한 줍 내어 맑은 침 흰 가래침 외락 툇탁 뱉어서 손 위에 도두 놓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1997학년도 수능

20 지금 당신이 앉았는 채마밭은 또 좀 기름지고 걸어야지. 21 상추가 얼마나 잘 되는지. 22 삼사월경에 갈아서 거름을 흡족히 주면 이슬을 머금고 비를 맞아 잎이 파초처럼 너뽀너뽀 자라서 연하고 싱그러운 모양이라니. 23 그걸 대바구니에 넘치도록 따 담는단 말씀야. 24 봄별이 따뜻한 날 양지 바른 곳에 장독을 두고 장을 담그면 영락 달기가 벌꿀이요. 25 색깔이 말피라. 인천(仁川), 안산(案山) 바다에서 그물로

(가) 잡은 밴댕이가 장에 나오면 그 놈을 사다가 석쇠에 구울 제, 기름간장을 바르면 냄새가 코를 진동하것다. 26 그러면 상추를 물기를 탈탈 털어 손바닥 위에 벌여 놓고 기름이 흐르는 올벼 쌀밥 한 손갈을 톱 떠서 달고 고소한 된장을 얹은 위에 노릇노릇 구워진 밴댕이를 올려 왜화(倭貨)*를 싸듯 쌈을 싰단 말씀이야. 27 그래설랑 혜임령(惠任嶺)* 장사꾼 짐 들어올리듯 두 손으로 들어올려, 종루(鐘樓)에 파루(鰐鰯)친 후에 남대문 열리듯 입을 딱 벌리고 밀어 넣는데..”

28 이 때에 그 사람도 따라서 입을 벌리다가 짧은 갓끈이 그만 툇 끊어져 수정알들이 땅으로 굴러 떨어졌다.

29 우리 집에 함경도의 세포(細布), 충청·전라도의 종면(綜綿), (나) 평안도의 좋은 명주, 남경(南京)의 팽금(彭錦), 요동(遼東)의 모단(帽緞)*이 일곱 간 다락에 채곡채곡 쌓였지만 나는 갓끈을 살 수가 없소.”

30 그 사람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입이 절로 헤 벌어져서 군침을 줄줄 흘리며 돌아갔다.

- 유몽인 『어유야담』 중 ‘김인복 설화’

* 왜화(倭貨) : 일본 무역품

* 혜임령(惠任嶺) : 서울에서 서북지역으로 갈 때 넘는 고개

* 종면(綜綿), 팽금(彭錦), 모단(帽緞) : 각각 포복, 비단, 우단의 일종으로 당시 값 나가던 옷감들

6.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실과 과장을 적절히 안배하고 있다.
- ② 감각을 자극하는 묘사를 반복하고 있다.
- ③ 특정한 장면을 극대화시켜 부각하고 있다.
- ④ 개개의 사건을 인과 관계를 중심으로 엮고 있다.
- ⑤ 서로 연관된 일들을 특정한 곳으로 집중시키고 있다.

7. (나)와 같은 발상으로 이루어진 표현은?

- ① 양턱 맹산 철산 가산 나린 물은 부벽루로 감돌아 들고 임그려 우는 눈물은 베갯모로 돌아든다.
- ② 안방 금계 안에 엽전 지전 은돈 금돈 가득가득 때돈이 들었다 한들 너 주자고 궤돈 할까.
- ③ 사랑을 사자 하니 사랑 팔 이 뉘 있으며, 이별을 팔자 하니 이별 살이 전혀 없다.
- ④ 돈 봐라 돈 돈 봐라 돈 이 돈을 눈에 대고 보면 삼강 오류이 다 보이네.
- ⑤ 죽어 영이별은 문 앞마다 하건마는 살아 생이별은 차마 진정 못 하겠구나.

8. 김인복과 시골 선비의 관계를 <화자(話者) : 청자(聽者)>의 관계로

볼 때, 청자로서 시골 선비가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은?

- ① 이야기를 경청하기
- ② 이야기에 동의하기
- ③ 이야기를 통해 연상하기
- ④ 이야기에 비판적 거리 두기
- ⑤ 시선을 주어 관심을 표하기

고난도 고전 신문 정선
L L L L O L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1998학년도 수능

¹양 상서(楊尙書)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간 후로 승전보가 계속 날아오자 황제께서 태후를 뵈고 양 상서의 공을 칭찬하여 가라사대,

²“양소유의 공은 광분양* 이래 제일인이라. ³돌아오기를 기다려 마땅히 승상을 시키려니와 오직 어매(御妹)*의 혼사를 오히려 정하지 못했으니, 마음을 돌이켜 순종하면 매우 좋겠으나 만일 다시 고집하면 공신(功臣)을 매양 죄주기도 어렵고 달리는 처치할 길이 없으니 이로써 염려하나이다.”

⁴태후 가라사대,

⁵“내 들으니 정씨 여자 매우 곱다 하고 양 상서와 서로 보았다 하니 상서 어이 즐겨 버리리요 ⁶상서 나간 때를 타 정가(鄭家)에 조서(詔書)를 내려 다른 사람과 혼인하게 함만 같지 못하다.”

⁷황제께서 침음하여 결정하지 못하시다가 가시거늘, ⁸이 때 난양 공주 태후를 모셨더니,

⁹“낭랑(娘孌)*의 말씀이 도에 어긋나오니 정씨 여자를 다른 집안에 보내고 안 보내고를 조정에서 지휘할 일이옵니까?”

¹⁰태후 가라사대,

¹¹“이 일은 너의 종신대사(終身大事)이니 본디 너와 의논하고자 하더니라. ¹²양 상서의 풍류와 문체는 조정 신하 중에 비할 이 없을뿐더러 통소 한 곡조로 인연을 접지 받은 지 오래니 결코 양 상서를 버리고 타인에게 구혼은 못할 것이오, 상서와 정씨 여자의 혼인 논의가 평범한 것이 아니고 정분이 중하여 서로 버리지 못할 듯하니 이 일이 극히 난처한지라. ¹³내 뜻에는 상서가 조정에 돌아오면 너와 혼인한 뒤에 정씨 여자로 첩을 취하는 것을 허락하면 상서 말이 없을 듯하되 다만 네가 원치 아닐까 하노라.”

¹⁴공주 아뢰되,

¹⁵“소녀는 평생토록 투기를 알지 못하니 어이 정씨 여자를 용납지 못하리이까, ¹⁶다만 양 상서가 처음에는 처로 폐백을 들였다가 뒤에 첩으로 취함이 예에 어긋나는 듯하고 정 사도는 여러 대(代) 재상을 한 집이라 그 딸이 첩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듯하니 이 일이 마땅치 아닐까 하나이다.”

¹⁷태후 가라사대,

¹⁸“이도 마땅치 않으면 네 뜻에는 어찌코자 하나뇨?”

¹⁹공주 아뢰되,

²⁰“제후(諸侯)에게는 세 부인이 있다고 했으니, 양 상서가 공을 세우고 돌아오면 크게는 왕이 되고 적어도 제후라, 두 부인을 둬 외람치 아닐 듯하니 이로써 정씨 여자를 허락함이 어떠하나이까?”

²¹태후 가라사대,

²²“이는 불가하니, 같은 여염집 여자는 한가지로 부인이 됨이 방해롭지 아니하거니와 너는 바로 선제(先帝)의 끼치신 몸이라, ²³하물며 상이 사랑하시는 누이요 일신이 가볍지 아니하니 어찌 여염의 소소한 여자로 더불어 나란히 설 수 있으리요.”

²⁴공주 아뢰되,

²⁵“소녀 또한 소녀의 몸이 존중한 줄 아오되 옛 성스럽고 밝은 제왕(帝王)도 어진 사람을 공경하며 천자(天子)도 필부(匹夫)로 베타한 이 있으니, 소녀 물으니 정씨 여자가 얼굴 재조와 덕이 다 갖추어져

옛사람에게 내리지 아니리라 하니, 진실로 그러할진대 저와 더불어 어깨를 나란히 함이 무슨 혐의 있으리이까 ²⁶비록 그러하나 전문(傳聞)이 실상에 지나기 쉬우니 소녀의 뜻에는 아무 길로나 정씨 여자를 보아 용모 재덕이 소녀보다 나으면 마땅히 몸이 다하도록 우러러 섬기려니와, 만일 직접 보아 소문과 같지 못할 양이면 첩으로 삼으나 종으로 삼으나 낭랑의 임의로 처치하소서.”

²⁷태후 이 말을 들으시고 차탄(嗟歎)하여 가라사대,

²⁸“여자는 본디 남의 재주를 꺼리거늘 너는 남의 재주를 사랑하니 가히 아름답도다. ²⁹너의 재덕이 옛사람에 지나도다. ³⁰내 또한 정씨 여자를 보고자 하나니 명일에 당당히 정씨 여자를 불러들여 보리라.”

- 김만중, ‘구운몽’

*광분양 : 중국 당나라 장군

*어매(御妹) : 황제의 누이

*낭랑(娘孌) : 공주가 ‘태후’를 부르는 말

9. 윗글의 중심 화제는?

- ① 전공(戰功)을 세운 양 상서의 포상 문제
- ② 정씨 여자에 대한 태후와 황제의 의견 대립
- ③ 공주의 혼인과 관련된 정씨 여자의 처리 문제
- ④ 여러 부인을 두는 제후(諸侯)의 결혼 풍습 문제
- ⑤ 양 상서와 공주 사이의 원만하지 못한 애정 문제

10. 윗글에서 ‘공주’가 ‘정씨 여자’를 평가하는 기준은?

- ① 용모와 재덕 ② 세상의 평판 ③ 학문적 소양
- ④ 가문의 지위 ⑤ 종교적 배경

11. ‘공주’에 대한 ‘태후’의 태도를 잘 지적한 것은?

- ① 공주를 과신(過信)하고 있다.
- ② 공주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
- ③ 공주에 대해 연민을 보이고 있다.
- ④ 공주의 언행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 ⑤ 공주에 대한 맹목적 애정을 보이고 있다.

12. 윗글에서 ‘태후’와 ‘공주’가 주고받은 대화의 특징은?

- ① 태후와 공주는 각자의 명분에 입각하여 주장하고 있다.
- ② 태후는 상황 논리를, 공주는 권위를 앞세워 주장하고 있다.
- ③ 태후와 공주는 각자의 상황을 합리화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 ④ 태후는 인정에 호소하고, 공주는 상식을 내세워 주장하고 있다.
- ⑤ 태후는 비유를 중심으로, 공주는 증거를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다.

고난 고전 신문 정선
L L L L O L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2000학년도 수능

(가)

¹각설 이 때 한림[유연수]이 물가를 따라 점점 가며 탄식하되,

“²내 당초에 혼미하고 용렬[庸劣]하여 요사한 말을 귀담아 들어 현인[賢人]을 방출하고, 위로 조상 제사를 받들지 못하고 아래로 처자의 성명을 보전치 못하고 또 신세 만 리에 떠돌고 문호[門戶] 하루 아침에 몰락하니, 이 또한 만고의 우부[愚夫]요 천지간 죄인이라. ³부부의 정이 사씨에게 멀어지고 부자의 정이 인아[鱗兒]에게 단절하니 살아 무엇하리오.”

⁴무수히 탄식하며 악주[岳州]*에 이르러 강가에서 방황하며 어부를 만나면 문득 사씨의 소식을 탐문하되 종적이 막연하고 소식이 묘연하니 ⁵한림이 더욱 원통하고 울적함을 이기지 못하여 강촌에 가 곳곳에 묻더니 촌사람이 말하되,

“⁶그 때 사씨 회사정[懷沙亭]으로 향한다 하더니다.”

⁷오래 듣다가 황망히 행하여 회사정 아래 이르니, 고목의 잎이 누렇게 떨어진 가운데 인적이 끊어지고 여러 짐승들이 좌우로 울되, 다만 눈앞에 보이는 바는 동정호[洞庭湖]*구의산[九疑山]*과 소상[瀟湘]*의 저물 무렵의 구름이라.

⁸한림이 방황하며 탄식하더니 홍연 벽 위의 글을 보니 크게 썼으되, ‘모년 모월 모일에 사씨 정옥은 물에 빠져 죽노라.’ 하였거늘 ⁹한림이 크게 놀라 대성통곡 왈,

“¹⁰무죄한 부인을 이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슬프다, 나의 용렬함 이여. 비록 후회한들 어찌 부인을 위로하리오 ¹¹내 이미 황천에 가지 못하고 물에 몸을 던지지 못하니 이 죄를 어찌 면하리오 ¹²슬프고 슬프다. ¹³부인이 무슨 죄로 만경창파[萬頃蒼波]에 죽었느냐?”

¹⁴굽어보며 방성대곡[放聲大哭]하니 물결이 흐느끼고 천지가 참담하더라. ¹⁵이 때 해는 서산에 지고 안개는 동정호에 일어나니 한림의 무한한 비회[悲懷]와 부인의 구천[九泉]에 사무치는 애원[哀怨]이 전후[前後]가 똑같더라.

(나)

¹⁶한림이 이에 원혼을 위로하고자 하여 강촌에 내려가 술상을 갖추고 등불 밑에 앉아 제문을 지으며 슬픈 감회 가슴에 가득하여 피눈물 흘러 지필[遲筆]을 적시니 밤늦도록 지으나 한 자도 이루지 못하고 앉아 탄식만 하더니, ¹⁷문득 함성 소리 진동하거늘 한림이 대경하여 창을 열고 보니, ¹⁸한때 도적이 창검을 가지고 들어오며 크게 소리하여 왈, “¹⁹유연수는 가지 말라.”

²⁰하거늘 한림이 크게 놀라 북쪽 창을 열고 나와 급히 도망하여 동서를 분별치 못하고 달아나니, ²¹황급한 말을 어찌 다 기록하리오 ²²겨우 백여 걸음 가다가 뒤를 보니 불빛이 점점 가까워 오고 함성이 더욱 진동하니 한림이 당황하여 초목 사이로 살기를 바라 달리더니 의관이 다 부서지더라. ²³급히 가매 수풀이 다하고 큰 강이 닥치니 몸엔 날개 없으니 어찌 능히 달아나리오 ²⁴적당[賊黨]이 외쳐 왈,

“²⁵유연수 비록 살고자 한, 팔랑개비라 하늘로 오르며 두더지라

땅으로 들랴?”

²⁶하며 급히 쫓아오거늘 한림이 하늘을 보고 탄식 왈,

“²⁷내 어찌 이곳에서 죽을 줄을 알았으리오 ²⁸차라리 강에 던져 부인의 혼백을 의지하리라.”

²⁹하고 강을 향하고 달리더니, ³⁰홀연 바람결에 사람 소리 들리거늘 한림이 생각하되 이곳에 혹 어선인가 하고 황망히, 달리더니 ³¹달빛은 희미하고 적적한데 멀리 바라보니 조각배 하나 떠오르고 푸른 옷을 입은 여동[女童]이 뱃머리에 의지하여 손으로 물결을 희롱하며 낭랑한 소리를 시를 읊고 있거늘,

(중략)

³²한림이 급히 불러 왈,

“³³여동은 인명을 구하라.”

³⁴하거늘 이 때 묘화와 부인이 배의 창문을 반쯤 열고 여동을 명하여 가로되,

“³⁵급히 배를 대어 저 상공을 구하라.”

³⁶하니 여동이 급히 배를 저어 언덕에 대니 한림이 급히 오르며 왈,

“³⁷뒤에 강도들이 급히 따라오니 바빠 행하여 수중의 어육[魚肉]을 면하게 하라.”

³⁸말을 마치지 못하여 조적 등이 이미 강가에 이르러 대성 왈,

“³⁹여동은 바빠 배를 대라. ⁴⁰그 배 안의 행인이 살인한 도적이매 계림 태수께서 우리를 보내어 급히 잡아 오라 하여 왔으니 만일 놓치면 너희 등이 그 도적과 같이 죽을 죄를 당하리라. ⁴¹바빠 배를 대라.”

⁴²하니 한림이 비로소 동청[董淸]의 적당인 줄 알고 더욱 두려워하여 여동에게 왈,

“⁴³나는 경성의 유한림이요, 저 놈들은 다 도적이니 급히 배를 건너 화를 면하게 하라.”

⁴⁴하니 여동이 적당에게 이르되,

“⁴⁵너희 무리 지어 죄 없는 군자를 해코자 하니 우리 어찌 군자를 구치 아니 하리오”

⁴⁶모든 도적이 왈,

“⁴⁷감히 관청의 명령을 어기니 장차 어디로 가리오”

⁴⁸여동이 크게 웃고 배의 창문을 의지하고 돛대를 쳐 노래하며 돛을 달아 배를 저어가니 적당이 하릴없이 돌아가더라.

- 김만중, ‘사씨남정기’

*악주, 동정호, 구의산, 소상 : 중국의 지명

1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한림의 정서와 공간적 배경이 상응하고 있다.
- ② (가) :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림의 회한이 깊어지고 있다.
- ③ (나) : 한림의 내면 갈등이 대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 ④ (나) : 급박한 상황 전개가 시간적 배경과 상응하고 있다.
- ⑤ (나) : 한림의 비통한 심리에 극도의 위가감이 부가되고 있다.

14. 윗글을 읽고 사건 전개와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은?

- ① 유한림은 왜 회사정에 갔을까?
- ② 유한림은 왜 물에 빠져 죽을 생각을 했을까?
- ③ 도적의 무리는 왜 퇴로도 차단하지 않고 달려들었을까?
- ④ 묘희와 부인의 배가 어떻게 해서 그 순간에 나타났을까?
- ⑤ 유한림은 촌사람들에게 사씨에 대해 어떻게 물어 보았을까?

15. (가)의 밑줄 친 부분에 담긴 사씨의 심정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년 까마귀 흰 빛을 시샘할세라
청강에 기껏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 ② 문노라 먹라수야 굴원이 어찌 죽다터니
참소에 더럽힌 몸 죽어 문힐 땅이 없어
청파에 골육을 씻어 고기 뱃속 감추니라
- ③ 산은 옛 산이로되 물은 옛 물 아니로다
밤낮으로 흐르거든 옛 물 있을소냐
사람도 물과 같도다 가고 아니 오는도다
- ④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 님 여의옵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울어 밤길 예눅다
- ⑤ 욕심 난다 하고 몹쓸 일을 하지 마라
나는 잊어도 남이 내 모습 보느니라
한 번을 악명을 얻으면 어느 물로 씻으리

16. 위 소설을 ‘우리 고전 다시 읽기 운동’의 대상 작품으로 추천하고자 한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추천의 이유로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 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전통적인 가치 인식과 함께 속도감과 박진감을 한 축으로 삼는 현대적 서사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
- ②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지향해야 하는 시점에서, 중국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은 국제적 감각과 권선징악이라는 보편적 주제가 돋보인다.
- ③ 당대의 풍속을 사실적으로 반영하며, 유교적 가치관을 살감 있게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대상으로 적절하다.
- ④ 독백을 통한 인물의 내면 묘사가 탁월하고, 집단의 고뇌와 갈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고전 소설의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 ⑤ 쫓고 쫓기는 행위, 위기 일발의 상황, 극적인 조력자의 출현 등 활극을 연상케 하는 장면들은 요즘의 대중소설과 견줄 만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01학년도 수능

¹이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전하다가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갔다. ²그러나 집은 이미 병화(兵火)에 타 버리고 없었다. ³다시 처가에 가 보니 행랑채는 쓸쓸하고 집 안에는 쥐들이 우글거리고 새들만 지저귄 뿐이었다. ⁴이생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 작은 누각에 올라갔다. ⁵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며 날이 저물도록 앉아서 지난날을 생각해 보니 완연히 한바탕 꿈만 같았다.

⁶밤중이 거의 되자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춰 주는데 낭하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⁷그 소리는 먼 데서 차차 가까이 다가왔다. ⁸살펴보니 사랑하는 최씨가 거기 있었다. ⁹이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 의심도 하지 않았다.

〈중략〉

¹⁰이튿날 최씨가 이생과 함께 옛날 살던 개령동을 찾아가니 거기에는 금은 몇 덩어리와 재물이 약간 있었다. ¹¹그들은 두 집 부모님의 유골을 거두어 금은과 재물을 팔아서 각각 오관산 기슭에 합장하고는,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드려 모든 예절을 다 마쳤다.

¹²그 후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최씨와 함께 살았다. ¹³도망하여 목숨을 부지했던 하인들도 돌아왔다. ¹⁴이생은 이후로 인간사를 싫어하여 친척이나 귀한 손님의 길흥사에도 가지 않고 늘 최씨와 함께 시를 주고받으면서 ㉠금실 좋게 함께 즐거워하였다.

¹⁵그렇게 몇 해가 훌쩍 흘렀다. 어느 날 저녁 최씨가 이생에게 이르기를

“¹⁶세 번씩이나 가약(佳約)을 맺었으나, 세상일이 서로 어긋나기만 합니다. ¹⁷아직 실컷 즐기지도 못했는데 슬픈 이별이 문득 닥쳐왔군요”

¹⁸하고는 오열하였다. ¹⁹이생이 깜짝 놀라 물었다.

“²⁰어찌하여 이러는 거요?”

²¹최씨가 말했다.

“²²저승길 가는 운명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²³천제(天帝)께서는 첩과 낭군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죄도 없었기에, 저를 잠시 머물게 하여 낭군과 근심을 풀도록 했던 것입니다. ²⁴인간 세상에 오래 머물면서 이승 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습니다.”

²⁵이어 하녀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춘(玉樓春)’한 곡을 노래하면서 이생에게 술을 권했다.

²⁶도적떼 밀려와서 온 세상이 싸움터인데,

²⁷구슬 꽃 흩어지고 원앙도 짝 잃었네.

²⁸여기저기 널린 유해(遺骸)는 묻어 주는 이 없고

²⁹얼룩진 유혼(遊魂)은 하소연할 곳도 없구나.

³⁰고당루(高唐樓)에 한번 내려온 무산(巫山) 선녀

³¹깨진 거울이 다시 갈라지니 마음이 참담하도다.

³²이제 한번 이별하면 두 세계가 아득히 멀어

³³저승과 이승 사이 소식조차 막히리.

³⁴한 마디 부를 때마다 삼킨 눈물이 흘러내려 거의 곡조를 이루지

고난 고전 신문 정선
L L L L O L

못하였다. ³⁶이생도 참담한 심정을 견잡지 못하면서 말했다.

“³⁶차라리 부인과 함께 저승에 들어갈지라 어찌 무료로 홀로 남아 목숨을 보전하겠소? ³⁷지난번 난리를 겪고 난 후에 친척과 하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 유골이 들판에 널려 있을 때, 부인이 아니었다면 누가 능히 장사 지내고 매장하였겠소? ³⁸고인(古人)의 말 씀에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예(禮)로써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로써 장사 지내야 한다 했는데, 이를 부인이 다 한 것은 천성이 순수하고 효성스러우며, 인정이 독실하고 도탑기 때문이니 감격함을 그칠 수 없었으며, 나 스스로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였소.” ³⁹부인은 이승에서 좀더 오래 머물다가 백 년 후에 함께 흙으로 돌아갑시다.”

⁴⁰최씨가 대답했다. “⁴¹낭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 있으니, 첩은 이미 귀신의 명부(冥府)에 실려 있으니 오래 볼 수 없습니다. ⁴²만약 군이 인간 세상에 연연하면 명부(名簿)의 법에 위배되어 죄가 저만 아니라 낭군께도 미칠 것입니다. ⁴³다만 첩의 유골이 모처(某處)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푸시겠다면 유골을 거두어 비바람이나 맞지 않게 해 주십시오.”

⁴⁴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⁴⁵낭군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⁴⁶최씨는 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지더니 마침내 종적을 감추었다.

⁴⁷이생은 그녀의 유골을 거두어 부모의 무덤 곁에 장사 지내 주었다. ⁴⁸장례를 마치고 나서 이생도 최씨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을 얻어 서너 달만에 세상을 떠났다.

⁴⁹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 절의(節義)를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 김시습, ‘이생규장전’

17. 윗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글쓴이의 생사관(生死觀)은?

- ① 사람이 죽더라도 영혼은 사람 곁에 영원히 머물게 된다.
- ② 사람이 죽으면 바로 육신과 영혼으로 분리되어 사라져 버린다.
- ③ 사람은 죽더라도 업보에 따라 사람이나 동물로 새로 태어나서 살아간다.
- ④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잠시 이승에 머물 수도 있지만 끝내는 사라진다.
- ⑤ 사람은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 행복을 누리거나 지옥에 가 벌을 받으며 지낸다.

18. ㉠의 상황에서 ‘최씨’가 불렀을직한 노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못난 대로 외로이 앓은 뒤의 몸
 끓주리고 떨면서 사십 년을 살아왔네
 문노라, 인생이란 진정 얼마이던고
 가슴속에 맺힌 설움 언제나 눈물일세.

- 계생, ‘빈 방’

- ② 하늘은 삼신산 같은 수명을 주시고
 까치는 날아와 백세 영화 알려 주네.
 만 이랑의 좋은 밤이 내 소원 아니거니
 원앙처럼 즐겁게 한평생 보내리라.

- 송씨, ‘새 집’

- ③ 밤 연기 속에 오동 꽃 행하구나.
 꽃다운 풀밭 위의 한 잔 술이여
 서울서 우리 다시 만나세.

- 이달, ‘이예장과 이별하며’

- ④ 산위에 꽃 피었고 꽃 아래는 산인데
 한 곡조로 그치려니 눈물이 흐르네.
 낙동강 물은 끝날 날이 없고
 한 머금은 푸른 물결 가서는 오지 않네.

- 이유원, ‘산유화’

- ⑤ 밤비에 앞 강물이 모래밭에 넘쳐
 만 리에 같은 마음 뚝배가 뚫네.
 생각하면 고향에도 봄은 이미 왔으련만
 부질없이 하늘 끝에 쓸쓸히 앉아 있네.

- 김윤추, ‘황강 노인을 기다리며’

19. ㉠을 <보기>와 같이 바꾸어 쓰기 위해 나눈 생각들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이생이 슬픔에 겨워 통곡을 했더니 최씨가 다시 살아났다

- ① 성근: 이렇게 되면 행복한 결말이 될 것 같아.
- ② 혜숙: 그래, 최씨가 다시 살아나면 사랑을 이룰 수 있을 테니 참 좋겠어.
- ③ 경연: 최씨가 살아나는 대목을 이생이 무덤 앞에서 통곡하는 장면으로 하는 것은 어떨겠어?
- ④ 기범: 이번에는 최씨가 함께 오래도록 살아가는 것으로 하자.
- ⑤ 은장: 그건 너무 비현실적이지. 그렇게 만들면 누가 믿겠어. 소설은 현실을 그려야 하잖아.

고난도 고전 신문 정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2002학년도 수능

²¹토끼가 제 인물에 ㉠하 감사한 말이거든, ²²제 소견에도 의심하여, “²³어떻기에 내 형용이 곰보다도 나를 테요? 범보다 나를 테요?” ²⁴주부가 대답하되. ㉡“곰의 몸이 비록 크나 눈이 작고 털이 덮여 태양 정기 부족하니 미련하여 못 쓸 테요, 범이 비록 용맹하나 코 짧고 줄기 없어 얼굴 가운데가 움푹하니 단명(短命)하여 못 쓸 테요, 몸이 작고 발이 빨라 산도 넘고 물도 뛰어 따라갈 이 없을 테니. 민첩한 저 구변(口辯)이 소진(蘇秦)의 합종(合縱)인지. ²⁵가끔가끔 조는 것이 공명(孔明)의 춘수(春睡)런지.*** 볼수록 모두, 짐승 중 제일이니, 우리 수궁 같사오면 출장입상, 부귀공명 따라갈 이 뉘 있을까?”

²⁶토끼가 들어 본즉 주부의 하는 말이 저 생김 형용하고 날날이 똑같거든. ²⁷가만히 생각한즉 ㉢형용은 무던하나 속에 글이 없었으니, 수궁에 글하는 이 있는지 알아야 할 테여든. ²⁸또 물어 “수궁의 조관(朝官) 중에 문장이 멋이 되오?” “²⁹문장 조관 있으면서 영덕전(靈德殿) 지을 적에 상량문을 못 자어서 인간 세상까지 나와 구했겠소?” ³⁰또 물어, “수궁에 훨씬 키 큰 조관 있소?” “³¹영덕전 상량할 제, 키 큰 조관 가리는데 내가 상량하였지요. ³²그리 큰 수궁에서 나만한 키도 없소. ³³선생이 들어가면 거인이 들어왔다 모두 깜짝 놀라지요.”

³⁴토끼가 생각한즉 ‘너른 의사(意思) 좋은 구변 내 속에 흠뻑 들고 글 잘하고 키 큰 조관 수궁에 없다 하니, 나 지닌 신언서판(身言書判) 놀릴 데가 없건마는 땅에 안주하여 옮기기 어려우니 이 형편에 썩 떠나기가 어렵구나.’

- 신재효, 토벌가(免讎歌)

*부등감: 질그릇 깨진 조각으로, 아궁이의 불을 담아낼 때 부삽 대신 쓰는 것

**질음승: 화약의 심지

***소진의 합종, 공명의 춘수: 토기의 말썽씨와 조는 모습을 각각 소진의 위업과 제갈공명의 여유에 비긴 말.

20. (가)에 나타난 별주부의 말하기 방식은?

- ① 해학적 표현을 통해 자기 내면의 갈등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환심을 얻기 위해 상대방 마음에 드는 말을 쓰고 있다.
- ③ 상대방을 은근히 조롱하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있다.
- ④ 상대방 말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 ⑤ 모호한 말을 써서 논점을 흐리고 있다

21. <보기>는 윗글과 관련된 설화를 채록한 것이다. <보기>와 비교하여 윗글의 특징을 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채록 일시: 2001년 ○월 ○일
- 채록 장소: 경기도 ○○군 ○○면 ○○리
- 제보자: 정○○(여, 75세)
- 채록자: 김○○

자라가 육지에 나와서 토끼를 찾느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한 짐승이 있길래 목을 집어넣고 발을 움츠리고 가만히 있었어. 그러자 그 짐승이 와서 만져 보며, “이게 뭐냐? 쇠똥 같은데?”하며 발로 툭 차 봤겠지. 자라는 그 짐승이 별로 해치지 않는 것을 보고서 목을 쪽 내밀고, “너는 뭐냐?” 하고 물었어. “나는 토끼라고 하는 것인데 너는 뭐냐?”하고 되물었겠다. 자라는 “나는 용궁에 사는 자라인데, 이 세상에 토끼란 것이 재간이 많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 용궁에서 데려다가 귀한 벼슬을 주고 재미있는 세월을 보내게 하겠다고 나를 내보내서 여기 왔다. 그러니까 너는 나하고 같이 용궁에 가지 않겠니?” 하며, 이런 말 저런 말로 토끼를 꾀는 것이야, 토끼는 그 말을 듣고서 용궁에 가고픈 맘이 생겼지.

- ① 수정: 사건의 인과성을 드러내기 위해 장면을 전환시켰군
- ② 종섭: 설화에는 별로 없는 한문투 어구나 표현이 사용되었어.
- ③ 우성: 서술자가 토끼의 심리 변화를 더 자세히 서술하였군.
- ④ 진희: 설화보다 서술된 분량이 많지만 서사 진행의 속도는 느리군.
- ⑤ 현성: 토끼와 자라의 대화가 훨씬 길어서 인물의 성격이 잘 드러나 있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2003학년도 수능

[인물 사이의 관계] ¹화옥에게는 세 부인이 있었는데, 심씨에게서 장자 화춘을, 정씨에게서 차자 화진을, 그리고 요씨에게서 딸 화빙선을 얻었다. ²요씨는 일찍 죽었고, 후에 화옥과 정씨가 잇달아 죽었다. ³성 부인은 화옥의 누이로, 과부가 되어 친정에서 지내고 있다.

⁴하루는 요 부인의 유모 취선이 빙선 소저를 대하여 흐느끼며 이르기를, “⁵어르신과 정 부인의 은덕으로 소저와 둘째 공자(公子)에 대해 염려하지 않았더니, 두 분이 돌아가시매 문득 독수(毒手)에 들었으니 이 늙은이가 차라리 먼저 죽어 그 일을 아니 보고자 하나이다.” ⁶소저가 눈물을 삼키며 대답하지 않더니, ⁷취선이 또 말하기를, “⁸정 부인이 돌아가신 후에 그분이 거하시던 수선루(壽仙樓)의 시녀들이 가혹한 형벌을 받은 자 많으니, 아아, 정 부인이 어찌 남에게 해악을 끼쳤으리오?” 하니, ⁹소저 또 대답하지 않더라.

¹⁰이를 난향이 창밖에서 엿듣고 심씨에게 고한대, ¹¹심씨 시비(侍婢)를 시켜 소저를 잡아 와서 꾸짖기를, “¹²네 년이 감히 흥심(凶心)을 품고 진 이와 함께 장자(長子)의 자리를 빼앗고 나를 제거하고자 천한 종 취선과 모의한 것이 아니냐?” 하니, ¹³소저가 당혹하여 말도 못하고 구슬 같은 눈물만 흘릴 따름이라. ¹⁴심씨 또 화진 공자를 오라 하여 마당에 꿇리고 큰 소리로 죄를 묻기를, “¹⁵네 이놈 진아, 네가 성 부인의 위세를 빙자하고 선친(先親)을 우롱하여 적장자(嫡長子) 자리를 빼앗고자 하나 하늘이

고난도 고전 산문 정선

돕지 않아 대사(大事)가 틀어졌더니, 도리어 요망한 누이와 흉악한 종과 함께 불측(不測)한 일을 꾀하였도다.” 하니,

¹⁶공자가 통곡하며 우러러 여짜오되, “¹⁷사람이 세상에 나매 오륜(五倫)이 중하고 오륜 중에 부자지간이 더욱 중하니, 부친과 모친은 한 몸이라, 소자 선친의 혈육으로 모부인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데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¹⁸누이가 비록 취선과 말하긴 하였으나 사사로운 정을 나눈이 큰 죄 아니고, 혹 원망의 말이 있었어도 취선이 하였지 누이가 하지는 않았으니, 바라건대 모친은 측은지심(惻隱之心)을 베푸소서.” ¹⁹소저 여짜오되, “²⁰큰집 작은집이 모두 혈육이니 이 자리를 빼앗고 저 사람과 협력한다는 말씀은 만만부당하나다.” 하니, ²¹심씨 크게 노하여 쇠채찍을 잡고 소저를 치려 하니, ²²공자는 방성대곡(放聲大哭)한대, ²³화춘의 부인 임씨가 심씨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만류하니 심씨 더욱 노하여 노비로 하여금 공자를 잡아 내치라 하고 ²⁴임씨를 꾸짖어, “²⁵너도 악한 무리에 들어 나를 얹어려 하느냐?” 하더라.

²⁶이때 비복(婢僕)들이 황황히 중문 밖에 모여 흐느끼더니, 마침 빙선의 약혼자 유생이 화씨 집으로 오다가 공자가 찢어진 베옷에 머리를 풀어 헤치고 나오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 물으니 공자가 부끄러워 대답을 못하는지라. ²⁷유생이 큰 변이 있는 줄 알고 화춘을 만나려고 시묘(侍墓)하는 곳에 가니 춘이 없는지라. ²⁸동자가 한송정(寒松亭)에서 낮잠이 드셨다고 아뢰니, 유생이 그곳에 올라 보니 과연 대공자(大公子)란 자가 창틀에 다리를 높이 얹고 코를 골며 옷을 풀어 헤치고 자고 있거늘, ²⁹유생이 탄식하기를, “³⁰쫓듯, 도적(盜跖)과 유하혜(柳下惠) * 세상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더니, 어찌 오늘 다시 이런 형제를 보는가?” ³¹하고 발로 차서 깨우면서, “³²그대의 집에 큰 변란이 일어났으니 빨리 가 보라.” 하니라.

³³화춘이 놀라 급히 내당에 들어가니 심씨 바야흐로 계향으로 하여금 빙선 소저를 매질하고 취선은 이미 6, 70대를 맞고 다 죽어 가는지라. ³⁴심씨 화춘이 오자 손뼉 치고 펄쩍펄쩍 뛰면서 소저와 취선의 말을 더욱 꾸며서 화춘을 격노케 하니,

³⁵화춘이 이르기를, “³⁶소자 이미 진이 남매가 이 같은 마음을 품었음을 알고 있었으나, 둘이 고모와 합심하였으니 형세로는 지금 당장 제거하지 못하옵고, 아까 유생이 이미 이 변을 알고는 얼굴빛이 좋지 않았나이다. ³⁷또 고모께서 머지않아 돌아오시면 반드시 크게 꾸짖으실 것이니 이번은 의당 참고 때를 기다리소서.”

[A] ³⁸심씨가 땅을 두드리며 발악하기를, “³⁹성씨 집 늙은 과부가 내 집에 웅거하여 생각이 음흉하니 반드시 우리 모자를 죽일지라. ⁴⁰내 비록 힘이 모자라나 그 늙은이와 한판 붙어 보리라. ⁴¹또 유생은 남의 집 자식이라, 어찌 우리 집안의 일을 알리오 ⁴²필시 진이 유생에게 알려 나의 부덕함을 누설하였으니 내가 응당 네 앞에서 결단하리라.” 하니,

⁴³화춘이 부득이 화진 공자를 붙들고 와 가혹한 매를 가하니, 공자가 이미 그 모친과 형을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한 마디 변명도 없이 20여 장(杖)에 혼절(昏絶)하는지라.

- 조성기, ‘창선감의록(彰善感義錄)’

* 도적: 중국 춘추 시대의 유명한 도적.

유하혜: 도적의 형. 어진 인물.

22. 윗글에 그려진 갈등의 근본 원인은?

- ① 심씨와 화춘이 화진과 빙선의 도덕성을 시험해 보고자 한다.
- ② 심씨가 자기 가문의 일에 간섭하는 성 부인을 축출하고자 한다.
- ③ 심씨가 가문 내에서 화춘이 지닌 장자로서의 권한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
- ④ 심씨가 남편과 다른 두 부인이 죽은 후, 두 부인의 소생(所生)들을 배척한다.
- ⑤ 심씨가 화진과 빙선이 자기를 친모(親母)로 대접하지 않는 데에 대해 보복하고자 한다.

23.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의 화진과 화춘에게 해 줄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

부모의 뜻이 의리(義理)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마땅히 먼저 그 뜻을 받들어 따르고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여 어긋나서는 안 된다. 그 뜻이 만약 이치를 해치는 것이라면 곧 기운을 화평하게 하고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여 부드러운 음성으로 간(諫)하여 반복 개진(開陳)함으로써 끝내는 이치에 따르도록 할 것이다.

- 이이, ‘격몽요결’

- ① 진아, 네 어머니로 인해 애통한 심정이겠지만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어머니께서 의리를 깨닫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정성껏 아뢰어라.
- ② 춘아, 너에게는 집안의 분란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으니 분란을 일으킨 진과 빙선을 훈계하여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해 드려라.
- ③ 진아, 네 어머니 앞에서 통곡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니 당당하게 네 어머니의 잘못을 지적하여 고치시게 하여라.
- ④ 춘아, 네 어머니의 심정과 처지를 잘 이해하여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네가 먼저 나서서 일을 주선하도록 하여라.
- ⑤ 진아, 네 어머니께서 비록 너를 미워하기는 하시지만 본뜻이 잘못되지는 않았으니 그 뜻을 받들어 묵묵히 따라라.

24. [A]에서 심씨와 화춘이 나눈 대화의 특성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화춘은 감정을 앞세워 말하였고, 심씨는 그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하였다.
- ② 화춘은 사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로 말하였고, 심씨는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하였다.
- ③ 화춘은 두 가지 관점을 대조적으로 제시하였고, 심씨는 그 중의 하나를 받아들였다.
- ④ 화춘은 정황을 근거로 의견을 말하였고, 심씨는 그것을 자기대로 해석하면서 반박하였다.
- ⑤ 화춘은 과거의 일을 예로 들어 주장하였고, 심씨는 미래의 가능성을 예측하여 화춘을 설득하였다.

고난도 고전 신문 정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2003학년도 9월 평가원

¹용활대가 의기양양하여 피화당에 달려드니, 불의에 하늘이 어두워지며, 흑운(黑雲)이 자욱하고 뇌성벽력(雷聲霹靂)이 진동하며, 좌우전 후에 벌였던 나무 일시에 변하여 무수한 갑옷 입은 군사가 되어 점점 에워싸고, 가지와 잎이 화하여 깃발과 창검(槍劍)이 되며, 함성 소리가 천지 진동하는지라. ²용활대 크게 놀라 급히 내달아오려 한즉, 벌써 칼 같은 바위 높기는 천여 장이나 되어 앞을 가리워 겹겹이 둘러싸이니, 전혀 갈 길이 없는지라. ³용활대 혼백을 잃어 어찌할 줄 모르더니, 방 안에서 한 여인이 칼을 들고 나오면서 꾸짖어 가로되,

⁴“네 호국 장수 용골대의 아우 용활대 아닌가? ⁵네 본디 오랑캐로 천의(天意)를 모르고 남의 나라를 침범하고, 또 감히 사부가(士大夫)의 규문(閨門)을 당돌히 범하니, 너 같은 놈은 죽여 후일을 징계하리라.”

⁶하고 완완(緩緩)히 걸어 달려들며 이르되,

⁷“네 나를 아느냐? ⁸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광주 유수 이공의 부인 박씨의 시비(侍婢)* 계화로소니, 네 선봉이 되었다가 나 같은 여자의 손에 목 없는 귀신이 될 터이니, ⁹어찌 불쌍하고 잔인하지 아니하리오.”

⁹하며,

¹⁰“내 칼을 받으라.”

¹¹하는 소리, 옥반(玉盤)에 진주를 굴리듯 한지라. ¹²용활대 바라보니, 그 미인이 머리에 태화관(太和冠)을 쓰고, 몸에 홍금사 화의(紅錦紗華衣)를 입고, 허리에 측금사 만대를 두르고, 손에 용문자 화검(龍文字華劍)을 들고 완연히 섰으니, 나는 제비 같은지라.

¹³용활대 정신이 아찔하나 분기를 참지 못하여 다시 정신을 차려 꾸짖어 가로되,

¹⁴“조그마한 여자 엄연히 장부를 꾸짖느냐. ¹⁵네 너를 잡지 못하면 어찌 세상에 서리오.”

¹⁶하고 달려들거늘, 계화 용활대를 보니, 머리에 용봉 쌍학(龍鳳雙鶴) 투구를 쓰고, 몸에 황금사 문갑(黃金紗紋甲)을 입고, 허리에 진홍 보호대를 두르고, 손에 삼백 근 금강도를 들었거늘, 서로 싸워 사십여 합에 승부를 모르더니, 계화의 칼이 번듯하며, 용활대의 머리 검광(劍光)을 쫓아 마하(馬下)에 내려지니, 계화 그 머리를 칼 끝에 끼워 들고 좌충우돌하여 사방으로 달리니, 모든 장졸이 혼비백산하여 일시에 항복하니,

¹⁷계화 용활대의 머리를 박 부인에게 드리니 부인이,

¹⁸“그 놈의 머리를 높은 나무에 달아 두라. ¹⁹용골대 제 아우의 머리를 보면 낙담상혼(落膽喪魂)**하리라.”

²⁰하니, 계화 영을 듣고, 후원 전나무에 높이 달아 두니라.

(중략)

²¹용골대 호령하여 가로되,

²²“네 군사를 몰아 박 부인과 계화를 사로잡아 들이라.”

²³하는지라. ²⁴김자점이 황급하여 방포(放砲) 일성(一聲)에 군사를 몰아 피화당을 에워싸니, 문득 팔문(八門)이 변하여 백여 길 함정이 되는지라. ²⁵용골대 그 변을 보고 졸연히 깨지 못할 줄을 알고 한 피

를 생각하여, 군사로 하여금 피화당 사방 십 리를 깊이 파서 화약 염초를 많이 붓고 군사로 하여금 각각 불을 지르고,

²⁶“너희 무리 아무리 천변만화지술이 있은들 어찌 하리오.”

²⁷하고 군사를 호령하여 일시에 불을 놓는지라. ²⁸그 불이 화약 염초를 범하매, 벽력 같은 소리가 나며 장안 삼십 리에 화광이 충천하여 죽는 자가 무수하더라. ²⁹박씨 옥으로 된 발을 드리우고 좌수에 옥화선을 쥐어 불을 부치니 화광(火光)이 호진(胡陣)을 충돌하거든, 호진 장졸이 항오(行伍)*** 를 잃고 다 죽고 밟혀 죽으며 남은 군사 는 살기를 도모하고 다 도망하는지라.

- 작자 미상, ‘박씨전’

* 시비(侍婢): 곁에서 시중을 드는 계집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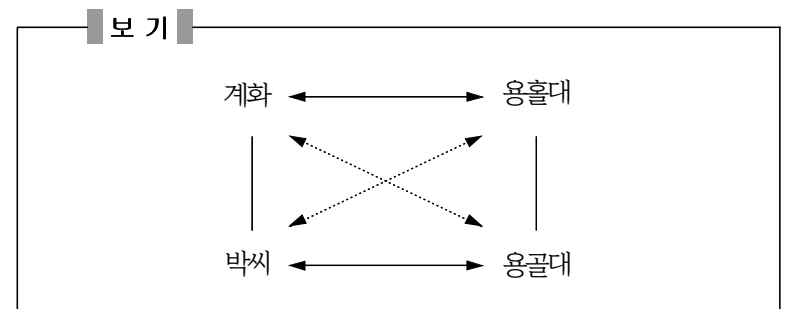
** 낙담상혼(落膽喪魂): 몹시 놀라거나 마음이 상해서 넋을 잃음.

*** 항오(行伍): 군대를 편성한 대오

25. 구술 시험에서 윗글의 현대적 의미를 묻는 질문을 받았을 때, 가장 잘 답한 사람은?

- ① 정숙: 사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모순을 반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 ② 상호: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인간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 ③ 경아: 여성이 국난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 ④ 찬우: 선조들의 유교적인 가치관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윤리 도덕을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 ⑤ 혜영: 우리의 다양하고 우수한 전통 문화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26. 윗글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나타낼 경우, 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계화와 용활대의 대결은 박씨와 용골대의 대결을 예비하는군.
- ② 왼쪽 인물과 오른쪽 인물의 대비는 민족간의 대립을 보여주는군.
- ③ 김자점이라는 인물은 오른쪽 자리에 위치하게 해야 할 것 같군.
- ④ 박씨는 계화를 통해서 용활대에 대한 승리를 쟁취했다고 해야겠지.
- ⑤ 위쪽 인물과 아래쪽 인물의 관계는 피지배층과 지배층의 대결 관계를 나타내고 있군.

27. <보기>는 이 작품의 다른 판본의 일부이다. <보기>가 (가)와 같이 바뀌었을 때, (가)가 얻게 되는 효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보 기 ■

용홀대 그 말을 듣고 대로(大老)하여 칼을 들며 계화를 치고자 하더니 팔 힘이 하나도 없어 꺾이지 못하겠는지라. 하릴없이 하늘만을 우러르고 탄식하는지라.

“슬프다. 대장부 세상에 나서 만리타국에 대공(大功)을 바라고 왔더니 조그마한 여자의 손에 죽을 줄 어찌 알았으리요.”

계화 웃으며 가로되

“불쌍하고 가련토다. 저 장수야. 세상에 장부로 나서 나 같은 연약한 아녀자를 당치 못하느냐. 오늘은 네 명이 내 손에 달렸으니, 바빠 목을 늘리어 내 칼을 받아라.”

용홀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여 가로되

“천수(天數)로다.”

하고 자결하더라.

- ① 사건의 서술이 간결하게 되었다.
② 상황의 비장감이 더욱 고조되었다.
③ 등장 인물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었다.
④ 장면의 긴장감과 박진감이 강조되었다.
⑤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성격을 강조하였다.

28. 박씨가 ㉠에 대응하여 할 만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눈 가리고 아웅한다더니, 얇은 피로 남을 속이려는군.
②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하더니, 겁없이 함부로 덤비는군.
③ 바람 부는 날 가루 팔러 간다고 하더니, 날을 잘못 잡고 해매고 있군.
④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하더니, 자기 잘못된 생각도 하지 않는군.
⑤ 한강에서 뽕 맛고 종로에서 눈 흘긴다고 하더니, 엉뚱한 곳에서 화풀이하고 있군.

29. ㉠~㉣ 중,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언어의 기능이 가장 두드러진 것은?

■ 보 기 ■

언어의 기능 중에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특정 행동을 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 이는 듣는 사람에게 감화 작용을 하여 실제 행동에 옮기도록 한다. 언어의 이러한 기능을 감화적 기능이라고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03학년도 3월 서울시 교육청

앞부분의 줄거리 : ¹조선 인조 때 이시백은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하고 문무를 겸비하여 명망을 조야에 떨친다. ²시백은 자라서 박 처사의 딸과 혼인을 한다. ³그러나 시백은 신부의 용모가 천하의 박색임을 알고 실망하여 박씨와 대면조차 하지 않는다. ⁴그러자 박씨는 후원에 피화당(避禍堂)을 짓고 소일한다. ⁵이후 박씨가 허물을 벗고 절대가인이 되자, 시백은 크게 기뻐한다. ⁶이 때 중국의 용골대 형제가 십만의 병사를 거느리고 조선을 침략한다.

⁷골대 부하에게 명령하여 일시에 불을 지르니, 화약이 터지는 소리 산천이 무너지는 듯하고 불이 사면으로 일어나며 불꽃이 충천하니, ㉠박씨 부인이 계화에게 명하여 부적을 던지고, 왼손에 붉은 부채를 들고, 오른손에 흰 부채를 들고, 오색실을 매어 화염 중에 던지니 문득 피화당으로부터 대풍이 일어나며 도리어 오랑캐 진중으로 불길이 들이치며 오랑캐 병사들이 그 중에 들어 천지를 분변치 못하며 불에 타 죽는 자가 부지기수(不知其數)라. 골대 크게 놀라 급히 퇴진하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여 가로되,

⁸“군사를 일으켜 조선에 나온 후 사람을 죽이지 않고 대포 소리만으로 조선을 도모하였으나, 이 곳에 와 여자를 만나 불쌍한 동생을 죽이고 무슨 면목으로 임금과 귀비(貴妃)를 뵈오리오.”

⁹통곡함을 마지 아니하거늘, 여러 장수들이 좋은 말로 권유하며 왈, ¹⁰“아무리 하여도 그 여자에게 복수할 수는 없사오니 퇴군하느니라만 같지 못하다.”

¹¹하고, ㉡왕비와 세자, 대군과 장안 물색(長安物色)을 거두어 행군 하니, 백성의 울음소리 산천이 움직이더라. ¹²이 때 박씨 부인이 계화로 하여금 적진을 대하여 크게 외쳐 왈,

¹³“무지한 오랑캐 놈아. ¹⁴내 말을 들으라. ¹⁵너의 왕은 우리를 모르고 너 같은 구상유취(口尚乳臭)를 보내어 조선을 침략하니 국운이 불행하여 패망은 당하였거니와 무슨 연고로 우리 나라 인물을 거두어 가려 하느냐. ¹⁶만일 왕비를 모셔 갈 뜻을 두면 너희들을 몰살할 것이니 목숨을 돌보아라.”

¹⁷하거늘, 오랑캐 장수가 이 말을 듣고 웃으며 왈,

¹⁸“너의 말이 가장 호락호락하도다. ¹⁹우리 이미 조선 왕의 항복 문서를 받았으니 데려가기와 아니 데려가기는 우리 손바닥에 달렸으니 그런 구치한 말은 말라.”

²⁰하며 업신여기고 욕보이거늘 계화가 일러 왈,

²¹“너희들이 한결같이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니 나의 재주를 구경하라.”

²²하고, ㉢말을 마친 후에 무슨 진언(眞言)을 외더니, 문득 공중으로 두 줄 무지개 일어나며 우박이 닦아 붓듯이 오며 순식간에 급한 비와 눈바람이 내리고 얼음이 얼어 장수와 군사들의 말발굽이 얼음에 붙어 떨어지지 아니하여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할지라, 오랑캐 장수가 그때서야 깨달아 가로되,

²³“당초에 귀비 분부하시되 ‘조선에 신인(神人)이 있을 것이니 부디 이시백의 후원을 범치 말라.’ 하시거늘, 우리 일찍 깨닫지 못하고 또 한 한 순간의 분함을 생각하여 귀비의 부탁을 잊고 이곳에 와서 도

고난 고전 신문 정선
L L L L O L

리어 화를 당해 십만 대병을 다 죽일 뿐이라. ²⁴울대도 죄 없이 죽고 무슨 면목으로 귀비를 보리오. ²⁵우리 이러한 일을 당하였으니 부인에게 비느니만 같지 못하다.”

²⁶하고, 오랑캐 장수 등이 갑옷을 벗어 안장에 걸고 손을 묶어 앞에 나아가 땅에 엎드려 죄를 청하여 가로되,

²⁷“소장(小將)이 천하에 횡행하고 조선까지 나왔으니 무릎을 한 번 꿰 바 없더니 부인 장막 아래에 무릎을 꿇어 비나이다.”

²⁸하며 머리 조아려 애걸하고 또 빌어 가로되,

²⁹“왕비는 아니 모셔 가리이다. ³⁰소장 등으로 길을 열어 돌아가게 하옵소서.”

³¹하고 무수히 애걸하거늘 부인이 그제야 주렴을 걷고 나오며 크게 꾸짖어 왈,

³²“너희들을 씨도 없이 몰살하자 하였더니, 내 인명을 살해함을 좋아 아니하기로 십분 용서하나니 네 말대로 왕비는 모셔 가지 말며, 너희들이 부득이 세자, 대군을 모셔 간다 하니 그도 또한 천의(天意)를 따라 거역치 못하거니와 부디 조심하여 모셔 가라. ³³나는 앉아서 아는 일이 있으니 내 신장(神將)과 갑병(甲兵)을 모아 너희들을 다 죽이고 나도 북경에 들어가 국왕을 사로잡아 분을 풀고 무죄한 백성을 남기지 아니리니 내 말을 거역치 말고 명심하라.”

³⁴한대, 골대 다시 애걸 왈,

³⁵“소장의 아우의 머리를 내어 주시면 부인 덕택으로 고국에 돌아가겠나이다.”

³⁶부인이 크게 웃으며 왈,

³⁷“옛날 조양자(趙襄子)는 지백(知伯)의 머리를 옷칠하여 술잔을 만들어 원수를 갚았으니, 나도 옛날 일을 생각하여 울대 머리를 옷칠하여 남한산성에서 패한 분을 만 분의 일이나 풀리라. ³⁸너의 정성은 지극하나 각기 그 임금 섬기기는 일반이라, 아무리 애걸하여도 그는 못 하리라.”

³⁹골대 이 말을 듣고 분한 마음이 충천하나 울대의 머리만 보고 크게 울 따름이요, 할 수 없이 하직하고 행군하려 하니 부인이 다시 일러 왈,

⁴⁰“행군하되 의주로 행하여 임경업 장군을 보고 가라.”

⁴¹골대 그 비밀스러운 계획을 모르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되,

⁴²“우리가 조선 임금의 항복 문서를 받았으니 서로 만남이 좋다.”

⁴³하고, 다시 하직하고 세자, 대군과 장안 물색을 데리고 의주로 갈 때 잡혀가는 부인들이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여 왈,

⁴⁴“박 부인은 무슨 복으로 환(患)을 면하고 고국에 편안히 있고, 우리는 무슨 죄로 만리 타국에 잡혀가는고 이제 가면 언제 어느 때에 고국산천을 다시 볼꼬”

⁴⁵하며, 통곡하는 자가 무수하더라. ⁴⁶부인이 계화로 하여금 외쳐 가로되,

⁴⁷“인간 고락(苦樂)은 사람의 상사(常事)라. ⁴⁸너무 슬퍼 말고 들어가면 삼 년 사이에 세자, 대군과 모든 부인을 모셔 올 사람이 있으니 부디 안심하여 무사히 가거라.”

⁴⁹위로하더라.

- 작자 미상, ‘박씨전’

30. 윗글을 통해 추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용골대는 박씨 부인의 초인적인 능력을 보고 싸움을 포기하였다.
- ② 임금이 용골대에게 항복 문서를 써 준 사실을 박씨 부인은 분하게 여겼다.
- ③ 귀비는 용골대를 불러 박씨 부인이 있는 곳은 침범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 ④ 용골대는 울대가 박씨 부인에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복수를 다짐 하였다.
- ⑤ 박씨 부인은 용골대가 세자와 대군을 볼모로 끌고 가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31. <보기>를 참고할 때, 윗글 이후의 사건 전개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할 내용은?

■ 보기 ■

모파상은 소설이 인과 관계에 의해 구성되지 않는다면 독자의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그는 소설 전개의 필연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불의의 사건으로 죽는 사람이 매일 수없이 많은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작가가 사건을 전개시켜 나가다가 주인공이 머리 위에 떨어진 돌을 맞고 죽는단가, 그를 마차 바퀴 밑에 깔리게 해서는 안 된다.”

- ① 박씨 부인이 싸움에 진 골대를 죽이지 않은 이유
- ② 조선 국왕이 골대 형제에게 항복 문서를 써 준 이유
- ③ 박씨 부인이 계화로 하여금 골대를 상대하게 한 이유
- ④ 박씨 부인이 골대에게 임경업 장군을 만나라고 한 이유
- ⑤ 골대가 박씨 부인에게 울대의 머리를 내어 달라고 한 이유

32. <보기>는 윗글과 관련 있는 연표를 조사한 것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1636년(인조 14, 병자년)

2월 : 청의 사신 용골대가 음. 홍익한이 용골대의 목을 벨 것을 주장함.

3월 : 이시백을 남한산성 수어사(守禦使)에 임명함.

12월 : 병자호란 발발. 용골대 형제가 청군을 이끌고 침입함. 임경업 장군이 지키는 의주 백마산성을 우회하여 한양으로 진격함.

1637년(인조 15, 정축년)

1월 : 강화도 함락.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 태종에게 항복함.

2월 : 청군이 철수함.

4월 : 소현 세자, 봉림 대군 등이 청에 볼모로 잡혀감.

- ① 1637년 1월 강화도 함락 전후의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형상화한 내용이구나.
- ② 이시백이 아니라 그 부인을 주인공으로 설정한 것은 당대로서는 획기적인 이야기야.
- ③ 임경업, 이시백, 용골대 등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인물들을 등장 인물로 삼았구나.
- ④ 조선이 청에게 항복한 사실을 부정하고 오히려 청이 조선에게 항복한 것으로 되어 있구나.
- ⑤ 청군의 철군 두 달 후에 세자와 대군이 볼모로 잡혀간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철수할 때 잡혀가는 것으로 설정했구나.

고난도 고전 신문 정선
L L L L O L

33. 윗글은 <보기>의 '판타지 문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 중, 그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은?

■ 보 기 ■

판타지 문학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온갖 초자연적 존재나 불가사의한 현상을 다루고, 기괴한 장면으로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한다. 애초에 판타지는 넓게는 자연주의에 반하는 온갖 종류의 문학을 포괄하는 용어였다. 그러나, 20세기에 접어들어 문학의 장르가 세분화됨에 따라 그러한 작품들 중에서 전율적이고 기괴한 내용을 담은 작품, 과학 이론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발상에 의한 작품, 그리고 현실과 전혀 다른 가공(架空)의 신화적 세계를 무대로 한 작품으로 차차 의미가 한정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2003학년도 10월 서울시 교육청

¹하루 종일 푸른 산 더운 별에 위 아래로 펼쳐진 밭이며 너른 들에
혹시라도 콩알이 있을 법하니 한 번 주우러 가 볼거나.

²이때 장끼 한 마리 당홍대단* 두루마기에 초록궁초* 깃을 달아 흰
동정 씻어 입고 주먹 같은 옥관자에 쪼지 깃털 만신 풍채 장부 기상 좋
을씨고 ³까투리의 치장을 불러치면 잔 누비 속저고리 폭폭이 잘게 누
벼 위 아래로 고루 갖추어 입고 아홉 아들과 열두 딸을 앞세우고 뒤세
우며,

⁴“어서 가자, 바빠 가자! ⁵질편한 너른 들에 줄줄이 퍼져서 너희는 저
골짜기 좁고 우리는 이 골짜기 좁자꾸나. ⁶알알이 콩을 좁게 되면 사람
의 공양을 부러워하여 무엇하랴. ⁷하늘이 낸 만물이 모두 저 나름의 녹
(祿)이 있으니 한 끼의 포식도 제 재수라.”

⁸하면서, 장끼와 까투리가 들판에 떨어져 있는 콩알을 주으러 들어
가다가, ⁹붉은 콩 한 알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을 장끼가 먼저 보고
눈을 크게 뜨며 말하기를,

⁹“어허, 그 콩 먹음직스럽구나! ¹⁰하늘이 주신 복을 내 어찌 마다하
랴? ¹¹내 복이니 어디 먹어 보자.”

¹²옆에서 이 모양을 지켜보고 있던 까투리는, 어떤 불길한 예감이 들
어서,

¹³“아직 그 콩 먹지 마오. ¹⁴눈 위에 사람 자취가 수상하오. ¹⁵자세
히 살펴보니 입으로 훌훌 불고 비로 싹싹 쓴 흔적이 심히 괴이하니, 제
발 덕분 그 콩일랑 먹지 마오.”

¹⁶“자네 말은 미련하기 그지없네. ¹⁷이 때를 말하자면 동지선달 눈 덮
인 겨울이라. ¹⁸첩첩이 쌓인 눈이 곳곳에 덮여 있어 천산에 나는 새 그
쳐 있고, 만경에 사람의 발길이 끊겼는데 사람의 자취가 있을까 보냐?”

¹⁹까투리도 지지 않고 입을 연다.

²⁰“사리는 그럴 듯 하오마는 ²¹지난 밤 꿈이 크게 불길하니 자랑하여
처사하오*.”

²¹그러자 장끼가 또 하는 말이,

²²“내 간밤에 한 꿈을 얻으니 황학(黃鶴)을 빗겨 타고, 하늘에 올라가
옥황상제께 문안드리니 상제께서 나를 보시고는 산림 처사를 봉하시고,
만석고(萬石庫)에서 콩 한 섬을 내주셨으니, 오늘 이 콩 하나 그 아니
반가운가? ²³옛 글에 이르기를 ‘주린 자 달게 먹고 목마른 자 쉬 마신
다.’ 하였으니, 어디 한 번 주린 배를 채워 봐야지.”

²⁴그러나 지지 않고 까투리 또 말하기를,

²⁵“당신의 꿈은 그러하나 이 내 꿈 해몽해 보면, 어젯밤 이경 초에
첫잠이 들어 꿈을 꾸었는데, 북망산 음지 쪽에 곳은 비 흠뻑리며 맑은
하늘에 쌍무지개가 홀연히 같이 되어 당신의 머리를 덩경 베어 내리쳤
으니,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죽을 흉몽임에 틀림없으니 제발 그 콩일랑
은 먹지 마오.”

²⁶장끼 또한 그대로 있을쏘냐?

²⁷“그 꿈 또한 염려 말게. ²⁸춘당대 알성과에 문관 장원으로 급제하여
어사화 두 가지를 머리 위에 숙여 꽃고 장안 큰 거리로 왔다갔다할 꿈
이로세. ²⁹어디 과거에나 힘써 보세나.”

³⁰까투리가 다시 하는 말이,

³¹“아삼경에 또 한 번 꿈을 꾸니 천군들이 무쇠 가마를 그대 머리에
흠뻑 쓰고 만경창과 깊은 물에 아주 풍덩 빠졌기로, 나 홀로 그 물가에
앉아 대성통곡하였으니, 이거야말로 당신이 죽는 꿈이 아니겠소? ³²부
디 그 콩일랑 먹지 마오.”

³³장끼란 놈 또 하는 말이,

³⁴“그 꿈은 더욱 좋을씨고 ³⁵명나라가 중흥할 때, 구원병을 청해 오
면 이 몸이 대장이 되어 머리 위에 투구 쓰고 압록강 건너가서 중원을
평정하고 승전 대장 될 꿈이로세.”

〈중략〉

³⁶장끼 고집 끝끝내 굽히지 아니하니 까투리 할 수 없이 물러났다. ³⁷
그러자 ³⁸장끼란 놈 얼룩 장복* 펼쳐 들고 꾸벅꾸벅 고개짓하며 조춤
조춤 콩을 먹으려 들어가는구나. 반달 같은 햇무리로 콩을 짹 짹
두 고패 둥그러지며 머리 위에 치는 소리 박랑사중에 저격시황하다가
버금수레 맞히는 듯* 와지끈 푹푹 푸드득 푸드득 변통 없이 치었
구나.

³⁸이 꼴을 본 까투리 기가 막히고 앞이 아득하여,

³⁹“저런 광경 당할 줄 몰랐던가, 남자라고 여자 말 잘 들어도 패가(敗
家)하고 계집 말 안 들어도 망신하네.”

⁴⁰하면서, ⁴¹위 아래 넓은 자갈밭에 자락 머리 풀어 헤치고 당글당글
뒹굴면서 가슴 치고 일어나 앉아 잔디풀을 쥐어뜯어 가며 애통해 하고
두 발을 팡팡 구르면서 성을 무너뜨릴 듯이 대단히 절통해 한다.

⁴²아홉 아들과 열두 딸과 친구 벗님네들이 불쌍하다 탄식하며 조문 애
곡하니 가련공산 낙목천*에 울음 소리뿐이었다.

- 작자 미상, '장끼전'

고난도 고전 산문 정선

- * 당홍대단 : 중국에서 나는 붉은 비단 저고리
- * 초록궁초 : 얇고 무늬가 둥근 초록색 비단의 한 가지
- * 자랑하여 처사하오 : 스스로 헤아려 일을 처리하오
- * 장목 : 꿩의 꼬지깃
- * 박랑사중예 ~ 맞히는 듯 : 장랑이 박랑사중(중국 하남성에 있는 땅 이름)에서 사람을 시켜 진시황을 저격했으나 진시황은 맞히지 못하고 그 다음 수레를 맞혀 실패하였다는 고사를 이용한 표현.
- * 낙목천 : 나뭇잎 떨어진 빈 하늘

34. 윗글에 나타난 장끼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고 있다.
- ② 다른 사람의 권세에 의지하여 허세를 부리고 있다.
- ③ 상대방의 견해를 무시하며 시종일관 고집을 부리고 있다.
- ④ 출장입상(出將入相)을 긍정적인 삶의 목표로 보고 있다.
- ⑤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서 상황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3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까투리와 장끼의 갈등을 유발하는 소재이다.
- ② ㉡는 장끼의 비극적 죽음과 관련된다.
- ③ ㉢에 대해 장끼와 까투리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 ④ ㉠과 ㉢은 까투리의 헛된 욕심을 반영하고 있다.
- ⑤ ㉡와 ㉢은 까투리가 내린 판단의 근거가 된다.

36. ㉠, ㉡의 표현상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비장한 어조가 두드러지지만 ㉡은 해학적 어조가 두드러진다.
- ② ㉠에는 서술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있으나 ㉡에는 객관적 상황만이 드러나 있다.
- ③ ㉠에는 서술자의 우호적 태도가 드러나 있으나 ㉡에는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④ ㉠은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은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은 동물의 특성을 살려서 표현하고 있으나 ㉡은 동물을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37. 윗글에 나타난 까투리의 심정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뿔뿔 나는 찌꼬리는 / 암수 다정히 노니는데, / 외로울사 이 내 몸은 / 뉘와 함께 돌아가리.
- ② 어저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던가 / 이시랴 하더면 가리마는 제 구태여 /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 ③ 마음이 어린 후(後)니 하는 일이 다 어리다 / 만중운산(萬重雲山)에 어느 님 오리마는 / 지는 잎 부는 바람에 행여 그인가 하노라.
- ④ 임이여, 그 물을 건너지 마오 / 임은 그에 물 속으로 들어 가셨네. / 원통해라 물 속으로 빠져 죽은 임 / 아아 저 임을 언제 다시 만날꼬
- ⑤ 비 개인 긴 언덕에는 풀빛이 푸른데, / 그대를 남포에서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 대동강 물은 그 언제 다할 것인가. / 해마다 이별의 눈물 물결에 더하는 것을.

38. 이 작품을 다음과 같은 시로 표현해 보았다. 작품의 내용 전개와 거리가 먼 것은?

- 눈 쌓인 온 산에 인적도 끊겼는데
푸른 공지 수놓은 가습, 잠끼 한 마리 ①
눈발 위에 띄어진 의심스런 붉은 콩 ②
아녀자의 잔혹한 만류 뿌리치고 ③
한 번 조라 덮에 격려 푸드덕거리니 ④
한 번 조라 덮에 격려 푸드덕거리니 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2004학년도 6월 평가원

¹이 때에 상서가 국사(國事)에 매이어 집에 돌아오지 못하였더니 상서의 부인이 생*의 행동거지(行動舉止)가 수상함을 보고 하인들을 ㉠ 힐문(詰問)하였다. ²이에 하인들이 부득이하여 사실대로 아뢰니 부인이 크게 놀라 즉시 상서께 기별하였다. ³상서가 또한 통분하나 ‘누님께서 주혼(主婚)**하고 선이 몹시 사랑한다 하니 달리 금지 못하리라.’ 하고 낙양 태수에게 기별하되,

⁴“동촌 술 파는 할미 집에 숙향이라는 계집이 가장 ㉡ 요악(妖惡)하다 하니 잡아다가 죽이라.”

⁵하였다. ⁶이생은 고모 집에 있어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다. ⁷이 때 낙양 태수 김전이 상서의 말을 듣고 즉시 관원들을 풀어 숙향을 잡아 오니 숙향이 아무 것도 모르고 잡혀 관전(官前)에 이르니 태수가 물어 말하기를,

⁸“너는 어떤 창녀이기에 상서 님의 공자를 ㉢ 고혹(蠱惑)하였느냐? ⁹이제 쳐 죽이라는 기별이 왔으니 나를 원망하지 말라.”

¹⁰하고 아랫사람들에게 호령하여 형틀에 매고 치려 하니 남자가 원망하여 말하기를,

고난도 고전 신문 정선
L L L L O L

¹¹“소녀는 다섯 살 때 피란 가던 중에 부모를 잃고 동서로 구걸하며 다니다가 할미집에 의지하였는데, 이랑이 빙례(聘禮)***로 구혼하오며 상하 체면에 거스리지 못하여 성혼하였습니다. ¹²이는 진실로 첩의 죄가 아닙니다.”

¹³하였다. ¹⁴태수가 말하기를,

¹⁵“나는 상서의 기별대로 할 뿐이다.”

¹⁶하고 치기를 재촉하니 숙향의 화월(花月) 같은 용모에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눈물이 땀과 섞여 우니 그 경상(景狀)을 차마 못 볼러라. ¹⁷집장 사령이 매를 들어 치려 한즉 팔이 무거워 들지 못하였다. ¹⁸태수가 크게 노하여 다른 사령으로 갈아 치웠으나 또한 매끝이 땅에 붙고 떨어지지 아니하니 태수가 고이히 여겨 말하기를,

¹⁹“필시 애매한 사람이라. ²⁰그러나 상서의 기별임에 나로서는 어찌지 못하겠나.”

²¹하고 동여매어 물에 넣으려 하였다. ²²이 때 태수의 부인인 장씨의 꿈에 숙향이 앞에 와 울며 말하기를,

²³“부친께서 저를 죽이려 하거늘 모친이 어찌 구하지 않으십니까?”

²⁴하니 부인이 놀라 깨어 시비로 하여금,

²⁵“상공이 무슨 공무를 보시는가 알아 오라.”

²⁶하였다. ²⁷시비가 되돌아 와 말하기를,

²⁸“상공이 이 상서의 영(令)으로 그 맥 며느리를 죽이려 하십니다.”

³⁰하니 장씨가 놀라 급히 태수를 청하여 말하기를,

³¹“여아(女兒)를 잃은 지 십여 년에 한 번도 꿈에 보는 일이 없더니 아까 몽중에 숙향이 울며 여차저차하오니 매우 이상합니다. ³²오늘 보시는 공무(公務)는 어떤 일입니까?”

³³하였다. ³⁴태수가 말하기를,

³⁵“이 상서의 아들이 숙향에게 고혹되어 부모를 속이고 장가들었음에 제게 기별하여, ‘죽이라’ 하기에 이번 일을 하는 것입니다.”

³⁶하니 장씨가 말하기를,

³⁷“몽사가 이상하고 이 상서의 며느리가 또한 피란 중에 부모를 잃었다 하니 그 근맥을 물어 보겠습니다. ³⁸일을 잠시만 미루어 주십시오.”

³⁹하였다. ⁴⁰태수가 이에 응낙하고 하령하여, 가두라 하니 낭자 약하디 약한 몸에 큰 칼을 쓰고 누수 만면(淚水滿面)***하여 옥에 들며 말하기를,

⁴¹“이 곳이 어디입니까?”

⁴²하니 옥줄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⁴³“낙양 옥중이다. ⁴⁴내일은 죽을 것이니 불쌍하구나.”

⁴⁵하거늘 낭자 헤아리되, ‘이랑은 내가 죽는 것을 모를 것이니 소식을 누가 전하리오?’ 하고 애통해 하더니 날이 밝음에 문득 청조(靑鳥) 날아와 울거늘 낭자가 적삼 소매를 떼어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 편지를 써 새의 발목에 매어 주며, ‘이랑께 전하라.’ 경계하니 청조가 두 번 울고 날아 갔다.

⁴⁶이 날 이랑이 고모 집에서 자는데 문득 이랑의 고모가 잠결에 대경 대로하여 말하기를,

⁴⁷“선이 비록 상서의 아들이나 내 또한 길렀음에 주혼하였던 것인데, 내게 묻지도 아니하고 어찌 이렇듯 걱정을 끼칠 수 있는가?”

⁴⁸하거늘 생이 부인을 흔들어 깨웠다. ⁴⁹부인이 정신을 차려 생에게 꿈 얘기를 이를 즈음에 문득 청조가 날아와 이랑의 앞에 앉거늘 자세히 보니 발목에 한 봉물이 매어 있는지라 끌러 보니 그 글에 하였으되,

⁵⁰“박명 첩 숙향은 삼가 글월을 이랑 좌하에 올립니다. ⁵¹첩이 전생 죄를 차생(此生)에서 피하지 못하여 속절없이 낙양 옥중의 흙이 되니 죽기는 싫지 아니하나 낭군을 다시 못 보니 지하에 가도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⁵²엎드려 비읍건대 낭군은 천첩을 생각지 말고 천금같이 귀한 몸을 ㉠보중(保重)하십시오.”

⁵³하였거늘 이랑이 편지 글에 크게 놀라 그 글을 고모에게 드리고 낙양 옥중에 가 함께 죽고자 하니 고모가 말하기를,

⁵⁴“내 몸사와 같으니 장차 어찌하리오? ⁵⁵그러나 경솔히 굴지 말고 할미 집에 사람을 시켜 자세히 알아오라.”

⁵⁶하며 일변으로 상서 집 노복을 불러 물으니 노복 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⁵⁷“부인이 알으시고 상서께 기별하여 여차저차한 것입니다.”

⁵⁸하거늘, 부인이 대로하여 말하기를,

⁵⁹“내 주혼함을 업수이 여기고 내게 묻지도 아니하고 무작정 사람을 죽이려 하는구나. ⁶⁰내 친히 경성으로 올라가 상서를 만나 결단하리라.”

⁶¹하고 ㉡치행(治行)하여 경성으로 갔다.

- 작자 미상, ‘숙향전(淑香傳)’

* 생 : 이 상서의 아들, 이름은 선.

** 주혼 : 혼사(婚事)를 맡아 주관함.

*** 빙례 : 혼례.

**** 누수 만면 : 눈물이 얼굴에 흘러 내림.

39. 윗글을 쓰기 위해 작가가 <보기>와 같은 구상을 했다고 할 때, 윗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보기

죽음의 위기에 처한 숙향

- 어떻게 위기에 처하게 할 것인가?
 1. 상서로 하여금 이랑과 숙향의 관계를 알게 함①
 2. 상서와 낙양 태수의 상하 관계를 이용함②
- 어떻게 위기에서 구할 것인가?
 1. 처형의 보류
 - 형장 장면의 이적(異蹟)③
 - 태수 부인의 꿈
 - 동정적인 여론 조성④
 2. 상황 전환을 위한 공간 매개 - 청조 활용⑤
 3. 낙양과 경성의 연결 - 고모의 상경

고난고전 심문 정선
L L L L O L

40. 윗글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숙향’은 지순한 사랑의 소유자이다.
- ② ‘고모’는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하고 있다.
- ③ ‘낙양 태수’는 위계 질서를 중시하고 있다.
- ④ ‘상서’는 가문과 신분을 중히 여기고 있다.
- ⑤ ‘이랑’은 상황을 적극적으로 타개해 나가고 있다.

41. [A]에 나타난 숙향의 심리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낙동강에서 당신 처음 만났더니
보제원에서 다시 당신과 헤어지네.
이 도화(桃花)야 땅에 떨어져 흔적조차 없을지언정
달 밝으면 어느 때인들 당신 생각 않으리. - 도화, ‘낙동강’
- ② 약초를 캐다가 길을 잃었네.
봉우리마다 단풍잎이 지네.
중이 물을 길어 돌아가니
문득 연기가 나무 끝에서 피어나네. - 이이, ‘산속에서’
- ③ 가을 바람에 괴로이 읊조리나,
세상에 나를 알아 주는 이 없네.
창 밖에 밤 깊도록 비만 내리는데,
등불 앞에 마음은 만리 밖을 내닫네. - 최치원, ‘가을 밤 비 내릴 때’
- ④ 세상은 어지러운 시비(是非)뿐
십 년 동안 내 마음에 때만 묻혔네.
지는 꽃 우는 새 봄바람 속
어느 깊은 산속에서 홀로 살고 싶네. - 김제연, ‘무설사에 부처다’
- ⑤ 슬퍼도 참아야지, 세상사 이런 것을.
당신은 반평생을 그림을 공부했네.
내일이면 호연히 떠난 뒤에는
나는 몰라, 또 어디로 떠돌아다닐는지……. - 계생, ‘이별에 부쳐’

42. 윗글을 TV 드라마로 만들었다고 하자. 다음 회를 예고하고자 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운명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상서와 고모의 만남, 애! 가엾은 숙향의 운명은 과연 어찌될 것인가? 또한 낙양 태수 부부와 숙향의 관계는 밝혀질 것인가?
- ② 애통하게 헤어진 연인을 이어 주는 태수 부부의 활약상은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애뜻하여라, 숙향과 이랑은 다시 만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 ③ 사랑하는 연인의 가슴 아픈 이별, 이랑에 대한 숙향의 애절한 그리움, 그러나 운명은 철저히 숙향을 외면하고……. 홀로 남은 이랑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 ④ 숙향에 대한 태수와 상서의 횡포는 날로 심해지는데……. 한편, 숙향을 구하기 위한 태수 부인의 은밀한 움직임은 분주해지고……. 과연 태수 부인은 숙향을 구해 낼 수 있을 것인가?
- ⑤ 갈수록 깊어지는 상서 부인과 고모의 갈등……. 젊은 연인의 사랑은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인가? 안타까워라, 숙향에 대한 태수 부부의 뜻밖의 호의도 결국은 허사가 되고 마는 것인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04학년도 9월 평가원

¹홍보의 마음씨는 저의 형과 아주 달라
²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에게 존경하며 이웃간에 화목하고 친구에게 신의 있어, ³굶어서 죽게 된 사람에게 먹던 밥을 달아 주고 얼어서 병든 사람 입었던 옷 벗어주기, ⁴늙은이의 짙어진 짐 자청하여 져다 주고 장마 때 큰 물가에 샅 안 받고 건네주기, ⁵남의 집에 불이 나면 세간살이 지켜 주고 갈에 보물이 빠졌으면 지켜 섰다 입자 주기, ⁶청산에서 백골을 보면 깊이 파고 묻어 주며 수절과부 보쌈 하면 쫓아가서 빼어놓기, ⁷어진 사람 모함하면 대신 나서 발명하고 애잔한 늑 황액 보면 달려들어 구원하기, ⁸길 잃은 어린이 저의 부모를 찾아 주고 주막에서 병든 사람 본가에 기별하기, ⁹계집불살(啓蟄不殺)* 방장부절(方長不折)*
¹⁰남의 일만 하느라고 돈 한 톨도 못 버니 놀보 오죽 마워하랴.
¹¹하루는 놀보가 홍보를 불러 ¹²“홍보야 네 듣거라. ¹³사람이라 하는 것이 믿는 데가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된다. ¹⁴너도 나이 장성하여 계집 자식이 있는 몸이 사람 생애 어려운 줄은 조금도 모르고서 나 하나만 바라보고 유의유식(遊衣遊食)*하는 거동을 보기 싫어 못하겠다. ¹⁵부모의 세간살이 아무리 많아도 장손의 차지인데 하물며 이 세간은 나 혼자 장만했으니 네게는 부당(不當)이라. ¹⁶네 처자를 데리고서 속거천리(速去千里) 떠나거라. ¹⁷만일 자제하여서는 살육지환(殺戮之患)이 날 것이니 어서 급히 나가거라.”
¹⁸가련한 홍보 신세 지성으로 비는 말이 ¹⁹“비나이다. ²⁰비나이다. ²¹형님 전에 비나이다. ²²형제는 일신이라 한 조각을 베면 둘 다 병신 될 것이니 외어기모(外禦其侮)*를 어이 하리. ²³동생 신세 고사하고 젊은 아내 어린 자식 뉘 집에 의탁하여 무엇 먹여 살리랴. ²⁴장공예(張公藝)는 어떤 사람이고 하니 구세(九世) 동거하였는데 아우 하나 있는 것을 나기라 하나이까. ²⁵척령(鶴齡)*은 짐승이나 금란지의(金蘭之誼)를 알았고 상채(常棣)*는 꽃이로되 담락지정(湛樂之情)을 품었으니 형님 어찌 모르시오 ²⁶오로지의를 생각하여 십분 통축하옵소서.”
²⁷놀보가 분이 상투 끝까지 치밀어 그런 야단이 없구나.
²⁸“아버지 계실 적에 나는 생판 일만 시키고서 작은아들이 사랑 읍다 글공부만 시키더니 너 매우 유식하다. ²⁹당 태종은 성주(聖主)로되 천하를 다루어서 그 동생을 죽였으며, 조비(曹丕)는 영웅이나 재주를 시기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나 같은 초야 농부가 우애지정을 알겠느냐.”
³⁰구박 출문(出門) 쫓아내니 가련하다 홍보 신세 개구(開口) 다시 못 하고서 빈손으로 쫓겨나니 광대한 이 천지에 무가객(無家客)이 되었구나.
³¹불쌍한 홍보 님이 부자의 머느리로 먼 길 걸어 보았겠나. ³²어린 자식 업고 안고 울며불며 따라갈 제 아무리 시장하나 밥 줄 사람 뉘 있으며, 밤이 점점 깊어 간들 잠잘 집이 어디 있나. ³³저물도록 뺨뺨이 굶고 풀밭에서 자고 나니 죽을 밖에 수가 없어 염치가 차차 없어 가네. ³⁴이곳 저곳 빌어먹어 한두 달이 지나가니 발바닥이 단단하여 부르들 법 아예 없고 낮가죽이 두꺼워서 부끄러움 하나 없네. ³⁵일년 이년 넘어가니 빌어먹기 수가 터져 홍보는 읍내에 가면 객사(客舍)에 나 사정(射亭)에나 좌기(坐起)*를 높이 하고, ³⁶외촌(外村)을 갈 양이면 물방아집이든지 당산(堂山) 정자 밑에든지 사처를 정하고서 어린것을 옆에 놓고, ³⁷긴 담뱃대 붙여 물고 술술을 매든지, ³⁸포아리를 엮든지

고난 고전 신문 정선

넷가나 방죽이나 가까우면 낚시질을 앉아 할 제, ³⁹홍보의 마누라는 어린것을 등에 붙여 새끼로 꼭 동이고 바가지엔 밥을 빌고 호박앞에 반찬 얻어 허위허위 찾아오면, ⁴⁰염치없는 홍보 소견에 가장(家長) 태를 하느라고 가족(家屬)이 늦게 왔다고 쥘었던 지팡이로 매질도 하여 보고, ⁴¹입에 맞는 반찬 없다 앉았던 물방아집에 불도 놓아 보려 하고, ⁴²별 수를 매양 부려 하루는 이 식구가 양달쪽에 늘어앉아 헌 옷에 이 잡으며 홍보가 하는 말이 ⁴³“우리 신세 이리 되어 이왕 빌어먹을 테면 전곡이 많은 데로 가 불 밖에 수 없으니 포구(浦口) 도방(道傍) 찾아가세.”

- 신재효, '박타령'

- * 계집불살: 경첩에 동면에서 깨어난 벌레를 죽이지 않음.
- * 방장부절: 자라는 초목을 꺾지 않음.
- * 유의유식: 하는 일 없이 놀면서 입고 먹음.
- * 외어기모: 외부의 수모를 막음.
- * 척령: 할미새. 형제 사이에 어려운 일을 서로 돕는다 함.
- * 상채: 꽃 이름. 여러 개의 꽃이 한 데 모여 피어 형제의 화합을 상징함.
- * 좌기: 관아의 으뜸 벼슬아치가 출근하여 일을 시작함.

43.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의 내적 갈등이 암시되어 있다.
- ② 인물의 성격을 행동 묘사를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 ③ 일부가 생략되어도 [A]의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 ④ 유사한 성격의 구절들을 반복하여 율동감을 높이고 있다.
- ⑤ 포괄적인 내용을 제시한 다음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44. 놀보가 [B]와 같이 말한 이유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홍보가 내세우는 인륜 도덕이 현실에서 항상 지켜지는 것은 아님을 밝히려 하였다.
- ② 홍보가 아버지의 권위에 기댄다고 판단하여 역사적 인물의 권위에 기대어 반박하려 하였다.
- ③ 홍보의 글공부가 홍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음을 지적하려 하였다.
- ④ 홍보가 동정심에 호소한다고 해서 현실의 냉정한 이해 관계가 달라지지 않음을 보여주려 하였다.
- ⑤ 홍보가 자신에게 유리한 고사를 인용하자, 놀보 또한 자신에게 유리한 고사를 이용하여 반박하려 하였다.

45. 위 글에서 유추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 ① 홍보 가족은 구걸로 호구지책(糊口之策)을 삼았다.
- ② 홍보 아내는 구걸에 익숙해져 점차 후안무치(厚顏無恥)해졌다.
- ③ 집을 나가라는 놀보의 말에 홍보는 절치부심(切齒腐心)하였다.
- ④ 놀보는 홍보가 무위도식(無爲徒食)한다고 생각하여 쫓아냈다.
- ⑤ 집에서 쫓겨난 홍보 가족은 풍찬노숙(風餐露宿)하는 신세가 되었다.

46. 위 글을 읽은 독자가 가질 수 있는 의문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홍보 아버지가 가부장제 사회에서도 어찌하여 장남은 공부를 시키지 않았을까?
- ② 홍보를 내쫓은 것은 놀보가 아우의 자립심을 길러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 ③ 홍보가 남들에게는 선행을 베풀면서 어찌하여 자신의 가족은 제대로 돌보지 않았을까?
- ④ 홍보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찌하여 어려운 처지에 빠진 홍보를 도우려고 하지 않았을까?
- ⑤ 홍보는 어찌하여 일년 이년이 지나도록 남에게 빌어먹는 방법으로만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였을까?

47. 위 글과 <보기>를 비교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놀부 심사가 터무니없어 부모 생전 나눠준 전답을 홀로 차지하고, 흥부 같은 어린 동생을 구박하여 건넌산 언덕 밑에 내떨고, 나가며 조롱하고 들어가며 비양거리니 어찌 아니 무지하리. 놀부 심사를 볼작시면 초상난 데 춤추기와 (중략) 이놈의 심술은 이러하되, 집은 부자라 호의호식하는구나. 흥부는 집도 없이 집을 지으려고 집 재목을 구하러 갈 양이면 만첩청산 들어가서 작은 나무 큰 나무를 와드렁 통탕 베어다가 안방 대청 행랑 몸채 내외분합 물림퇴에 살미살창 가로단이 입구[口] 자로 지은 것이 아니라 이놈은 집 재목을 구하려고 수수밭 틈으로 들어가서 수수대 한 못을 베어다가 안방 대청 행랑 몸채 두루 짚어 말집 [斗屋]을 짚고 돌아보니 수수대 반 못이 그저 남았구나.

- 경판본 흥부전

	비교 항목	위 글	<보기>
①	홍보의 내면 심리	드러남	드러나지 않음
②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	드러남	드러나지 않음
③	놀보 행위의 명분과 논리	제시됨	제시되지 않음
④	인물 간의 대립 원인	양쪽에 있음	한쪽에 있음
⑤	형상화 방식	말하기+보여주기	말하기

고난 고전 신문 정선
L L L L O L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2004학년도 3월 교육청

¹호장(胡將)이 조선 국왕의 항서를 받고 세자 대군을 볼모로 잡아 들어갈새, 세자 대군이 내전에 들어가 하직한다, 중전(中殿)이 세자 대군의 손을 잡으시고 눈물을 흘려 서로 잡아 떠나지 못하는지라. ²상이 세자 대군을 나오라 하사 눈물을 흘려 왈,

³“^④과인의 박덕함을 하늘이 밍게 여기사 이 지경을 당하게 되니, 누를 원망하며 누를 한하리오 ⁴너희는 만리 타국에 몸을 보호하여 잘 가 있어라.”

⁵하시며 손을 차마 놓지 못하시거늘, 대군이 눈물을 흘리며 오열하여 아뢰어 왈,

⁶“전하, 슬퍼하심이 무익하고, 신 등이 또한 무죄히 가니 설마 어이하리까. ⁷바라옵건대 전하는 만수 무강하소서.”

⁸상이 슬퍼하심을 마지 아니하시고 학사 이영(李榮)을 부르사 왈,

⁹“경의 충성을 아나니, 세자 대군과 한가지로 보호하여 잘 다녀오라.”

¹⁰하시니 세자 대군은 천안을 하직하시고 나오시며 망극하심이 비할 데 없는지라. ¹¹한 걸음에 세 번이나 엎드리며 눈물이 진하여 피 되니, 그 모습은 차마 못 볼러라.

¹²내전에 들어가매, ^⑦대비와 중전이 대성통곡 왈,

¹³“너희들을 하루만 못 보아도 삼추(三秋) 같더니, 이제 만리 타국에 보내고 그리워 어찌하며, 하일(何日) 하시(何時)에 생환 고국하여 모자(母子) 조손(祖孫)이 즐기리오.”

¹⁴하시고 통곡하시니, 좌우 시녀 또한 일시에 슬피 울더라. 대군이 아뢰어 왈,

¹⁵“하늘이 무심치 아니하시니, 수이 돌아와 부모를 뵈오리니, 바라옵건대 낭량은 만수 무강하시고 불효 등을 생각지 말으소서.”

¹⁶하더라. ¹⁷인하여 하직하고 쥬문을 나서매, 장안 백성 등이 또한 울며 따르니, 길이 막히고 곡성이 처량하매 일월이 빛을 잃어 슬픔을 돕더라.

¹⁸용골대 세자 대군을 앞세우고 모화관으로조차 흥제원을 지나 고양파주임진강을 건너니 강물이 흐느끼는 듯하더라.

〈중략〉

¹⁹이때는 정축 삼 월이라. 열 읍(邑)을 지나 의주 지경에 이르렀더라.

²⁰⑥이때 임경업이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이면 높은 데 올라 호적(胡賊)의 옴을 기다리더라. ²¹문득 바라본즉 호병(胡兵)이 승전고를 울리며 세자 대군을 앞세우고 의기양양하여 나오거늘, 경업이 분기 대발하여 절치부심(切齒腐心)하며 소리하여 왈,

²²“이 도적을 편갑(片甲)*도 돌려 보내지 말고 무찌르리라.”

²³하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말에 올라 큰 칼 들고 나가며 중군에 분부하여,

²⁴“군사를 거느려 뒤를 따르라.”

²⁵하더라. ²⁶호장이 정제히 나오는지라. ²⁷경업이 노기 충천하여 맞아 내달아 칼을 들어 호장의 머리를 베어 내리치고, 진중을 짓쳐 들어가 좌충우돌하여 호병을 베기를 무인지경같이 하니, ^②호병이 황겁하여 각각 헤어져 목숨을 도모하여 달아나고, ^④남은 군사는 아무리 할 줄 몰라 죽는 자가 무수하더라.

²⁸호장이 상흔 낙담(喪魂落膽)*하여 십 리를 물러 진을 치고, 패잔군을 모아 의논 왈,

²⁹“^③경업은 용맹하니 장차 어찌하리오.”

³⁰하더니 문득 생각하되, ^①‘경업은 충신이라. 이제 조선 왕의 항서와 전교한 공문을 내어 보면 반드시 귀순하리라.’

³¹하고 진문에 나와 외쳐 왈,

³²“임 장군은 나와 조선 왕의 전지(傳旨)를 받아 보라.”

³³경업이 의아하여 크게 꾸짖어 왈,

³⁴“네 감히 나를 속이려 하느냐.”

³⁵용골대 군사로 하여금 문서를 전하니, 경업이 문서를 받자와 보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는지라.

³⁶“너의 국왕이 항복하고 세자 대군을 볼모로 잡아가거늘, 네 어찌 감히 왕명을 항거하여 역신이 되고자 하느냐.”

³⁷하고 만단 개유*하거늘, 경업이 하교를 보았는지라. ³⁸하릴없이 환도(環刀)를 집에 꽂고 호전에 통하고 들어가 세자 대군을 뵈옵고 실성 통곡하더라. ³⁹세자 대군이 경업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왈,

⁴⁰“국군이 불행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거니와, 바라건대 장군은 진심하여 우리 등을 구하여 다시 부왕을 뵈옵게 하라.”

⁴¹경업 왈,

⁴²“신이 이 기미를 알았으면 몸이 전장에 죽사온들 이런 망극하운 일을 당하리이까. ⁴³신의 몸이 만 번 죽사와도 아깝지 아니하오니, 바라옵건대 전하는 슬픔을 관역(寬抑)*하시고 행차하시면, 신이 진충 갈력(盡忠竭力)*하여 호국을 멸하고 돌아오시게 하오리다.”

⁴⁴세자 대군 왈,

⁴⁵“우리 목숨이 장군에게 달렸으니, 병자년 원수를 갚고 오늘 말을 잊지 말자.”

⁴⁶경업 왈,

⁴⁷“신이 비록 무재(無才)하오나 명대로 하오리이다.”

⁴⁸하고 하직할새, 경업이 용골대더러 왈,

⁴⁹“내 감히 군명을 항거치 못하여 너를 살려 보내거니와, 세자 대군을 수이 돌아오시게 하되 만일 무슨 일이 있으면 너희를 무찌르리라.”

- 작자 미상, ‘임경업전(林慶業傳)’

* 편집 : 갑옷 조각.

* 상흔 낙담 : 몹시 낙담하여 넋을 잃음.

* 만단 개유 : 여러 가지로 타이름.

* 관역 : 관대하게 억제함. 너그럽게 생각함.

* 진충 갈력 : 충성을 다해 힘을 다 씀.

48. 윗글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의문은?

- ① 호장은 세자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했던 것일까?
- ② 경업은 어떻게 해서 출중한 무예 실력을 갖추게 되었을까?
- ③ 경업과 세자가 손을 마주잡고 눈물을 흘린 이유는 무엇일까?
- ④ 호장이 경업에게 임금의 전지(傳旨)를 보여 준 이유는 무엇일까?
- ⑤ 호장이 처음에 경업 앞에서 의기양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고난도 고전 신문 정선
L L L L O L

49. 상황과 정서가 ㉠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해는 지고 찬 바람은 불어오는데 / 입을 멀리 보내려니 눈물이 옷을 적시네 / 저 언덕에 봄풀은 해마다 푸르네 / 한번 간 그대 돌아올지 어떨지.
- ② 강에 떠 있는 저 달은 둥글다가 이지러지고 / 뜰 앞에 매화는 피고 또 지나니 / 봄이 와도 돌아가지 못하고 / 홀로 다락에 올라 고향을 바라보네.
- ③ 약속을 하고 어찌 오지 않는가 / 뜰의 매화꽃이 저 가고 있는데 / 문득 가지 위 까치 소리를 듣고 / 부질없이 거울 속눈썹을 그리네.
- ④ 푸른 대는 가지마다 움직이고 / 마름풀은 줄기마다 하늘거리네 / 입은 대쪽 같은 마음 / 저 마름풀은 따르지 말지니.
- ⑤ 봄은 갔는데 꽃이 피었네. / 하늘은 맑은데 골짜기는 어둡네. / 한 곡조 타고 싶어도 / 내 마음 알 사람 없네.

50. ㉡에 나타난 인물의 의도로 적절한 것은?

- ① 거짓말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려 한다.
- ② 과장된 표현으로 불안한 마음을 숨기려 한다.
- ③ 자신의 능력을 내세워 상대방을 위협하려 한다.
- ④ 상대방의 인물됨을 이용해 위기를 면하려 한다.
- ⑤ 상황을 핑계 삼아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려 한다.

51. <보기>의 과제를 수행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제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이 글의 뒷이야기를 구상하되, 아래의 조건을 따르시오.

(자료)

「임경업전」은 조선 인조 14년에 청(淸)이 침입하여 군신의 예를 강요한 치욕적인 사건인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여 임경업의 일생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청나라에 대해 분노하고 국운을 걱정하는 충신의 면모가 잘 나타나 있다. 또한,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어 역사적 패배를 문학적으로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가 드러나 있다.

(조건)

1. 역사적 패배를 문학적으로 보상받으려는 원작의의도를 살릴 것.
2. 주인공의 영웅적 성격과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동시에 나타낼 것.
3. 당대 집권층에 대한 부정적 의식을 나타낼 것.

- ① 경업은 호국에 들어가 세자를 구해 낼 기회를 엿보다. 그 때 조정에는 호국과의 교류와 협력을 주장하는 현실론자들이 득세하게 된다. 호국과 마찰이 생길 것을 두려워한 조정은 자객을 보내어 경업을 살해한다.
- ② 호병을 뒤따라간 경업은 산적으로 위장을 해 적장을 죽이고 세자를 구해 내어 고국으로 돌아온다. 백성들은 그의 충성심과 지략을 높이 칭송하고, 경업은 큰 공을 쌓은 대가로 높은 자리에 올라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다.
- ③ 경업은 조정으로 돌아와 원수를 갚기 위해 군사를 일으킬 것을 건의한다. 그러나 조정의 신하들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여 경업을 매도하기만 한다. 이에 실망한 경업은 세상을 등지고 산 속으로 들어가 여생을 보낸다.

- ④ 호국에 들어간 경업은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여 적장을 설득해 세자를 고국으로 돌려보낸다. 적장은 경업에게 호국을 위해 일할 것을 권하지만 경업은 이를 거절한다. 이에 적장은 경업을 죽이려 하고 경업은 끝까지 저항하다가 최후를 맞는다.

- ⑤ 세자를 구하기 위해 호국에 들어간 경업은 여러 위기를 만나지만 뛰어난 무술과 지략으로 전투에서 승리하여 적장의 항복을 받는다. 그러나 고국으로 돌아온 경업은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간신배의 모략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죽는다.

52. ㉢~㉤를 바꾸어 표현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이 지경을 당한 것은 과인의 부족함 때문이니 수원수구(誰怨誰咎)하리오
- ② ㉣: 이때 임경업이 불철주야(不徹晝夜)로 호적이 오기를 기다리더라.
- ③ ㉢: 호병이 혼비백산(魂飛魄散)하여 살아남기 위해 달아나고
- ④ ㉣: 남은 군사들은 속수무책(束手無策)으로 죽음을 맞이하더라.
- ⑤ ㉤: 경업은 구상유취(口尙乳臭)하니 어찌 그를 당해 낼 수 있으리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04학년도 5월 전국 모의고사

¹신은 옛날 화왕(花王)이 처음 왔을 때의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²화왕을 향기로운 동산에 심고 푸른 장막으로 보호하였는데, 삼춘(三春)을 당하여 예쁜 꽃을 피우니 이는 다른 꽃보다 유달리 뛰어났다 합니다. ³이에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에 이르기까지 탐스러운 영기(靈氣)와 요요한 향기를 풍기므로 온갖 꽃들은 분주히 화왕을 뵈고자 하였으며, 오직 그 뜻을 이루지 못할까 두려워하였다 합니다.

⁴이 때, 갑자기 한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 붉은 얼굴, 옥 같은 이에 깨끗한 옷으로 몸을 단정하고 홀로 맴시 있게 화왕의 앞으로 나와 말하였습니다.

⁵“첩은 흰 눈 같은 모래밭을 밟고 거울같이 맑은 바다를 대하며, 봄비에 목욕하여 때를 씻고 상쾌한 맑은 바람을 쐬고 사는데 이름은 장미라고 합니다. ⁶지금 임금(花王)님의 높이신 덕이 있음을 듣고 찾아왔사오니 기어이 배개를 향유(香幄)에 드리도록 임금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소서.”

⁷이 때 또 한 장부가 있어, 벼룩에 가죽띠를 띠고 머리는 백발인데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쇠약한 걸음으로 허리를 굽히고 와서 말하였습니다.

⁸“저는 서울 밖 큰 길가에 사옵는데, 아래로는 창망한 들 경치를 임하고 위로는 높고 험한 산의 경치를 바라보고 사는데 이름은 백두

고난 고전 신문 정선
L L L L O L

옹(白頭翁)*이라 하나이다. ⁹그런데 가만히 말씀드릴 것은 임금님은 좌우에서 온갖 물건을 충족하게 공급하여 고량진미(膏粱珍味)로써 배를 불리고, 차와 술로써 정신을 맑게 하나, 건포(巾布)를 충분히 저장하여 놓고, 모름지기 좋은 약으로 원기를 돋우며, 모진 돌로써 온갖 독소를 깨끗하게 없애야 합니다. ¹⁰그러므로 ㉠비록 사마(絲麻)*가 있으나 관괴(管蒯)*를 버리지 않고 모든 군자들은 대궐(代賈)*하지 않음이 없다 하는데, 임금(花王)님께서 이 뜻이 어디 있는지 아시지 못하겠나이까?”

¹¹하였습니다. ¹²그런데 후자는 말하기를,

¹³“둘이 왔는데 어느 것을 취하고 어느 것을 버리겠나이까?” ¹⁴하였다 합니다.

¹⁵화왕은

¹⁶“장부의 말이 또한 도리가 있으나, 아름다운 사람은 얻기도 어려우니 장차 어찌하면 좋을꼬?”

¹⁷하였습니다.

¹⁸장부는 다시 앞으로 나아가 말하기를,

¹⁹“저는 임금님께서 총명하여 옳은 이치를 아시는가 생각한 까닭으로 왔나오나 지금 보니 곧 그렇지 못하옵니다. ²⁰㉡무릇 임금된 자는 간사하고 요망한 자를 친근히 하지 말고 정직한 자를 멀리 아니 하는 것이 좋습니다. ²¹그러므로 맹가(孟軻)는 불우하게 몸을 마쳤고 풍당랑(馮唐郎)은 몰래 머리를 희게 하였습니다. ²²옛날부터 이와 같은 데 저인들 어찌하겠습니까?”

²³하니, 화왕은 말하기를

²⁴“내가 잘못했다. ²⁵내가 잘못했다.”

²⁶하였다 합니다.

* 백두옹(白頭翁) : 할미꽃을 이르는 말

* 사마(絲麻) : 명주실과 삼실

* 관괴(管蒯) : 기렁풀(띠)와 왕골

* 대궐(代賈) : 궁한 나머지 딴 것으로 대용을 삼음

- 설총, '화왕계(花王戒)'

5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물을 의인화하여 우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서로 다른 두 유형의 인물을 대비시키고 있다.
- ③ 서술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시각이 드러나고 있다.
- ④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설정하여 교훈을 주고 있다.
- ⑤ 가상적 상황을 설정하여 독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54. ㉠의 의미와 통하는 한자 성어는?

- ① 유비무환(有備無患) ② 초지일관(初志一貫) ③ 다다익선(多多益善)
- ④ 미인박명(美人薄命) ⑤ 일석이조(一石二鳥)

55. ㉡를 노래로 변용하여 부른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마귀 검다 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것치 거문들 속조차 거문소냐.
 아마도 것 희고 속 검을손 너뿐인가 하노라.
- ② 구름 빗치 조타 하나 검기를 자로 한다.
 바람 소리 맑다 하나 그칠 적이 하노매라.
 조코도 그칠 뉘 업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 ③ 구름이 無心(무심)탄 말이 아마도 허랑(虛浪)하다.
 中天(중천)에 떠 이셔 任意(임의)로 다니면서
 구태여 光明(광명)흔 날빛출 따라가며 답나니.
- ④ 백설(白雪)이 자아진 골에 구루미 머흐레라.
 빈가온 매화(梅花)는 어느 곳에 피였는고
 석양(夕陽)에 홀로 서 이셔 갈 곳 몰라 하노라.
- ⑤ 수양산(首陽山) 바라보며 이제(夷齊)를 한(恨)하노라.
 주려 죽을진들 채미(採薇)도 하난 것가.
 비록에 푸새엿것인들 그 뉘 따헤 났나니.

56.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해 이 글의 관점을 적용하여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 보 기 ■

어느 여름날 신문왕이 설총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오던 비도 개었고 시원한 바람도 불어오니, 비록 진수성찬(珍羞盛饌)과 서글픈 음악이 있으나 고상한 이야기와 맛있는 익살로 율적인 마음을 푸는 것이 좋을 것 같소, 그대는 기이한 이야기가 있거든 나를 위하여 이야기하여 주지 않겠는가?”

하였다. 이에 설총이 옛날 이야기 하듯이 왕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바로 ‘화왕계’이다.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쓸쓸한 표정을 짓고 말하기를

“그대의 우언(寓言)에는 참으로 깊은 뜻이 있으니, 청컨대 이를 써두어 임금된 자를 경계하는 말로 삼으리라.” 하고 설총에게 높은 벼슬을 주었다.

- ① 언로(言路)가 막히면 국시(國是)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신하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 ②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법입니다. 뚜렷한 주관으로 나라를 이끄는 소신 있는 정치를 하여야 합니다.
- ③ 의식이 족해야 예절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경제치용(經世致用)에 힘써야 합니다.
- ④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합니다. 바른 소리를 하는 정직한 신하를 가까이 두어야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법입니다.
- 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였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여 기득권을 누리려는 세력을 과감히 타파하고, 나라를 이끌어 갈栋梁(棟梁)의材를 찾아야 합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2004학년도 10월 서울시 교육청

¹이때 안평국 왕비가 기러기 발에 편지를 매어 보내고 회답 오기를 밤낮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루는 왕이 내전에 들어 왕비와 더불어 옥루에 올라 난간에 비기어 앉아 성의를 생각하시고 슬픔을 금치 못하였다. ²홀연 기러기가 중천에 높이 떠서 긴 소리로 아뢰는 듯 하더니 순식간에 쏜살같이 내려와 왕비 앞에 앉거늘, 왕비가 기러기만 보아도 성의를 본 듯하여 손으로 기러기를 덥석 안고 어루만지며 살펴보니 기러기가 발에 한 통의 편지를 매고 왔는지라. ³일회일비하여 급히 풀어 뜯어보니 그 사연에 이르기를,

⁴“불효자 성의는 삼가 백배(百拜)하옵고 부왕 전하와 모비 마마께 올리나이다. ⁵이별이 오래되었사온데 양 전하의 기후 강녕하심을 기러기 편으로 듣자오니 반갑고 설운 마음 헤아릴 길이 없사옵나이다. ⁶연전에 모비의 병환을 위하여 슬하를 떠나 서역을 갈 때에 천신만고 끝에 십생구사(十生九死)로 수만리 서천에 이르러 일영주를 얻었습니다. ⁷돌아오던 도중 바다 가운데에서 포악한 변을 만나 뱃사람 일행을 모두 죽이고 장차 소자를 죽이려 할 때 거느린 군사 중에 태연이라 하는 사람의 힘을 입어 목숨은 보전하였으나 두 눈을 잃고 한 조각 나무판에 태워져 푸른 파도 속으로 밀렸으니 십이 세 어린 것이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⁸파도에 밀려서 지향없이 가옵더니 여러 날만에 겨우 한 섬에 다달았습니다. ⁹짐작하니 언덕이어서 더듬어 보니 바위가 있기에 바위 위에 올라 정신을 수습하였더니 바람결에 대 우는 소리가 들려 내려가 더듬어 보니 과연 대발이 있었습니다. ¹⁰○대를 베어 단저*를 만들어 슬픈 마음을 덜고 앉아 오작에게 실과를 얻어 먹고 있었더니 천지신명이 도우사 중국 호승상이 남일국의 사신으로 다녀 오시는 길에 소자를 데려다가 보살핌을 입어 승상부에 머물게 되었던 일이며, 과거에 급제하여 부마된 전후 사연과 호승상의 수양자된 말쑤를 낱낱이 아뢰고, 공주와 더불어 고국으로 즉행하오니 또 중도에 무슨 변이 있을지 모르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양친은 살피옵소서.”

¹¹하더라. ¹²왕비가 보기를 다함예, 전하는 다 듣고 나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시더라. ¹³왕비가 기러기를 붙들고 통곡하여 슬퍼하시더니, 이 때 세자 향의가 왕비의 곡성을 듣고 크게 놀라 들어가 앞드려 여쭙기를,

¹⁴“모후는 무슨 까닭으로 이렇듯이 비창(悲愴)하십니까?”

¹⁵왕비가 향의를 보고 잠잠하시거늘 향의가 일어나 사면을 살펴보니 서안에 일봉 서찰이 놓였고 또 기러기를 어루만지시거늘 자세히 보니 이는 곧 성의의 팔작이었다. ¹⁶향의가 말하기를,

¹⁷“서간을 보오니 성의가 중국에 들어가 입신양명하여 부마가 되었다 하니 이는 부왕의 성덕이거늘 어찌 그리 슬퍼하십니까? ¹⁸빨리 예단을 갖추어 마중나가시옵소서.”

¹⁹하더라. ²⁰왕비가 그날로 예단을 갖추어 중로에 사신을 보내었다. ²¹이 때 상이 향의에게 칙교(勅敕)하기를, ‘중전을 모시고 떠나지 말

라’ 하셨다.

²²차설, 향의가 마음 속으로 헤아리되, ‘성의가 틀림없이 죽은 줄로 알았는데 어찌하여 살았으며 이다지 영귀하게 되었고 ²³만일 성의가 오면 나의 전후 행적이 발각되겠구나.’ 하고 매우 근심하다가 한 계교를 생각하고 노복에게 분부하여 적부리를 부르니, 이 사람은 지혜와 용기가 매우 많았다. ²⁵이날 향의가 적부리를 청하여 후히 대접하고 말하기를,

²⁶“그대가 나를 위하여 오백 군사를 거느리고 중로에 나가 매복하였다가 성의 일행을 쳐서 함몰시키고 돌아오면 천금의 상을 아끼지 않겠다. ²⁷그리고 내 장차 왕이 되는 날 무거운 소임을 맡길 것이니 그대는 힘을 다하여 성사케 하라.”

〈중략〉

²⁸적부리가 정신을 진정하여 살펴보니 한 소녀가 말을 타고 진전에 횡행함이 제비 같은지라. ²⁹적부리가 분을 참지 못하여 달려들어 칠십여 차례가 되도록 승부를 결정지을 수 없었는데, 기러기가 또 날개에 모래를 묻혀 적부리의 얼굴에 뿌려 두 눈에 모래가 들어가 눈을 뜨지 못할 때에 공주의 칼이 번뜩하더니 적부리의 머리가 말 아래로 떨어졌다. ³⁰이 때 적진 중에서 적부리의 죽음을 보고 또 한 장수가 장창을 들고 내달아 크게 외쳐 말하기를,

³¹“나는 조그만 여자이다. ³²내 형을 죽이고 어찌 살기를 바라겠느냐?”

³³하니 이는 부리의 아우 문이라. ³⁴오백 근 철퇴를 들고 달려들어 싸울 때에, 황성 장졸이 접응(接應)하여 공주를 도우니 창검이 서리 같았다. ³⁵문이 더욱 분하여 서로 싸워 칠십여 합에 이르러도 서로 승부를 결정 짓지 못할 정도로 검술이 신묘하니 참으로 적수였다. ³⁶공주가 정신을 진정하여 무슨 경문을 외니 문득 공중으로부터 오방신장(五方神將)이 내려와 좌우로 적문을 치며 호령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더라. ³⁷문이 황겁하여 도망하고자 하더니 문득 공주의 검광이 빛나며 문의 머리가 검광을 따라 떨어졌다. ³⁸공주가 칼을 들어 적부리의 군사를 치고자 하다가 문득 깨닫고 ‘적부리의 군사는 곧 부마국 백성이다’ 하고 일제히 호령하여 세우고 큰 소리로 깨우쳐 돌려 보내니, 군사들이 물러나와 공주의 은덕을 송덕하며 만세를 불렀다. ³⁹군사 한 사람이 아뢰기를,

⁴⁰“망발스런 모습이 되었사오니 소졸들이 전배(前陪)*함을 바라나이다.”

⁴¹하거늘 공주가 허락하여 앞세우고 황성 일행은 뒤를 따라 일행과 인마를 거느리고 도성으로 들어가니 거리마다 송덕하며 만민이 모두 천만세를 부르며 남녀노소 없이 다투어 구경하더라.

- 작자 미상, ‘적성의전’

* 단저 : 짧은 피리.

* 전배(前陪) : 벼슬아치가 행차할 때나 상관을 뵈는 때에 앞을 인도하는 일.

57. 위 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지를 만들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주는 왜 적부리의 군사들을 살려두었을까?
- ② 성의는 어떻게 해서 외딴 섬에 이르게 되었을까?
- ③ 공주는 어떤 도움을 받아 적부리 형제를 물리쳤을까?
- ④ 항의는 어떻게 편지가 성의가 보낸 것임을 알아차렸을까?
- ⑤ 왕비는 어떻게 항의의 속셈을 알고 성의에게 편지를 보냈을까?

58. ㉠과 같은 상황에서 ‘성의’가 불렀을 만한 노래를 써 보았다.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난 해 알은 체 하던 기러기
울해도 머리 위를 가로지르니
외로운 강가에 반가움이 앞서네
- ② 깊은 숲 향기를 따라 들어가
나무 베고 잔돌 가지 골라 놓으니
원앙은 오지 않고 까마귀만 우짖네
- ③ 피리를 들어 어깨에 맞추고
쓸쓸한 가을 바람에 곡조를 맞추며
세월의 덧없음을 서글퍼 하네
- ④ 새벽 바람에 눈물로 이별한 입
약수가 가렸는가 소식이 망망하니
재회를 기약치 못하고 한숨만 쉰다
- ⑤ 옛날을 생각하고 눈물지으며
피리를 부니 까막까치만 모여드네
부모의 슬하가 따뜻한 걸 너희는 아느냐

59. 위 글에 나온 인물들에 대해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항의’는 ‘성의’의 귀향 소식에 전전긍긍(戰戰兢兢)하고 있군.
- ② ‘적부리’와 ‘공주’는 난형난제(難兄難弟)의 실력을 갖고 있군.
- ③ ‘왕비’는 ‘성의’로부터 소식이 오기를 학수고대(鶴首苦待)하고 있군.
- ④ ‘성의’는 마침내 금의환향(錦衣還鄉)하여 부모 곁으로 오게 되었군.
- ⑤ ‘성의’는 ‘호승상’의 결초보은(結草報恩)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군.

60. 위 글과 <보기>의 공통적인 이야기 요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옛날에 어떤 왕이 계속 딸만 낳았는데 그 일곱 번째 딸이 바리데기였다. 일곱째도 또 딸이라는 소리에 화가 난 왕은 딸을 갖다 버리도록 시켰다. 십여 년 후 왕과 왕후가 죽을 병에 걸려 점을 쳐보니 저승에 있는 약수를 먹어야 산다고 했다. 왕은 여섯 딸들에게 그 약을 가져올 것을 부탁했지만 모두 거절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리데기는 약수를 구하러 저승으로 떠난다. 공주는 수 많은 역경을 겪지만 불보살의 도움으로 무사히 저승에 도착한다. 그러나 저승의 수문장이, 같이 살면서 아들 일곱을 낳아주고 온갖 시중을 다 들어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의 요구를 들어 준 바리데기는 약수를 얻고 돌아와서 왕과 왕후를 살려낸다. 바리데기는 만신의 왕인 무당이 되고 남편과 아들들도 각각 신이 되었다.

- ① 주인공이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태어났다.
- ② 주인공의 과업 성취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
- ③ 주인공이 겪는 시련은 운명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 ④ 주인공이 노력의 대가로 영예로운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 ⑤ 주인공이 어려운 과업을 성취함으로써 비범성을 드러낸다.

61. 위 글을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의를 위한 투쟁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어.
- ② 성의와 항의가 벌이는 싸움은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왕자들이 다툼을 벌이던 역사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 ③ 남녀의 결연, 환상적인 이야기, 뚜렷한 선악 대결 등 흥미로운 요소들이 많아서 오늘날 독자들의 취향에도 맞을 것 같아.
- ④ 권력을 되찾기 위해 항의의 제안에 응하는 적부리 형제의 행위를 통해 당쟁에서 밀려난 양반들의 실세 회복 의지를 엿볼 수 있어.
- ⑤ 공주가 싸움의 전면에 나서서 공을 세우는 장면은 남성 중심의 봉건적인 의식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게 아닐까?

고난 고전 심문 정선
L L L L O L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2005학년도 6월 평가원

¹청이 이 말을 듣고 나서야 전후 지낸 일이 다 정한 운명인 줄 알고 더욱 슬퍼하여 땅에 엎드려 아뢰기를,

²“말씀을 듣고 보니 저의 전생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 분명한데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마는, ³④ 지나간 고생과 지금 병든 아버가 굶주리고 슬퍼하여 죽게 될 일을 생각하니 간장이 미어지는 듯합니다.”

⁴하니, 용왕이 말하기를,

⁵“이제는 너의 고생이 다 끝나고 이후에 ⑥ 무궁한 복을 누릴 것이니 슬퍼하지 말아라.”

⁶하고 시녀를 명하여 다과를 내와서 먹이라 하니, ⁷얼마 후에 시녀가 붉은 소반에 차를 내오는데 백옥 잔에 안개 같은 차와 대추 같은 과일이었다. ⁸청이 받아먹으니 정신이 맑아져서 전생의 일이 분명히 기억났다. ⁹부왕(父王)의 용안을 새롭게 알아보며, 좌우 시녀가 전생에 자기 앞에서 심부름하던 무리인 줄 아니 반갑기 그지없었다. ¹⁰자기가 본디 천일주를 맡아보다가 ③ 노군을 불쌍히 여겨 술을 훔쳐 먹었던 일이 어제 일처럼 생각나니, ¹¹슬픈 마음이 새로워 부인을 우러러 눈물을 흘리며,

¹²“제가 인간 세상에서 고초를 겪던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두렵습니다.

¹³이제 여기 들어왔으니 도로 나가지 말고 여기 머물기를 원합니다.”

¹⁴부인이 말하기를,

¹⁵“너는 슬퍼하지 말아라. ¹⁶이제 다시 인간 세상에 나가면 전날의 고초는 일장춘몽이 될 것이니 어찌 ⑦ 천명을 어기겠느냐?”

¹⁷하고, 시녀를 명하여,

¹⁸“청을 후원 별당으로 인도하여 편히 쉬게 하라.”

¹⁹하였다.

²⁰청이 시녀를 따라 후원 별당에 이르니 집안에 벌여놓은 것들이 모두 전날에 보던 것이었다.

²¹이때 심현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도 딸이 문을 나가 어디로든 가는 모양이나 보려 하나 눈이 감겼으니 어찌 볼 수가 있겠는가? ²²가슴을 치며 통곡하다가 문득 기절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 ²³이웃 사람들이 그 형편을 참혹히 여겨 붙들어 손발을 주무르고 더운물을 입에 떠 넣어 구호하니, ²⁴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려 손으로 벽을 치며 통곡했다.

²⁵“불쌍하다 내 딸아, ²⁶세 살에 어미를 잃고 가련한 어린 아기 어미를 부르짖어 울 적에 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 ²⁷목숨이 모질어 죽지 못하고 사는 중에 ① 앞 못 보는 병신까지 되어 지척을 분간하지 못하고, ²⁸집안 살림은 나날이 어려워 하루 한 끼를 얻어먹지 못하고 있을 때에, ²⁹② 추위와 더위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빌어다가 잠시도 배고프지 않게 해 주더니, ³⁰이제 아버를 위하여 이렇게 되었으니 네 정성은 지극하나 내 어찌 살기를 바라겠느냐?

[A] ³¹아아, 하늘이여, 집안 살림이 어렵거든 눈이나 성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거나 집안 살림이 넉넉하거나 할 일이지, 제 어찌 애를 그토록 태우며 죽을 곳에 나아갔단 말이나? ³²슬프다! ³³자식이 병들어 죽어도 참혹한데 나는 오랜 병에 성한 자식을 눈앞에서 비명원사(非命冤死)케 하니, ³⁴설령 천지귀신이 그릇되게 여기지 아니하여 눈이 뜨인들 어찌 홀로 살아 이 설움을 참고 견디리오?”

³⁵하며, 이렇듯 밤낮으로 청을 부르며 통곡하니 이웃 사람이 그 우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³⁶공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홀로 애통해 하다가 스스로 위로하여 더듬어 보니, ³⁷청이 빌어다 모아 둔 양식과 마른 고기 반찬과 익힌 음식이 그릇마다 담겼거늘, ³⁸만지는 족족 가슴이 막히고 간장이 녹는 듯하여 아무리 슬픔을 억제하려 하나 어찌할 수가 없었다. ³⁹다시금 딸을 부르짖어,

⁴⁰“불쌍하다, 너는 병신 아버를 이같이 먹여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⁴¹나는 너를 죽을 곳에 보내고도 태연하니 이게 어찌 사람의 도리라 하겠느냐?”

⁴²하며, 밤낮없이 울음으로 세월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었다. ⁴³눈바람이 몰아쳐 뼈에 사무치고 적막한 빈집에 인적이 끊어지니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청이뿐이었고, 얼굴은 핏색하여 뼈만 남아 있었다.

- 작자미상, '심청전(경판본)'

62. 위 글의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인물간의 갈등이 표면화되어 있다.
- ② 서술자의 직접 개입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③ 인물간의 관계가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 ④ 비장미와 골계미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 ⑤ 대립적인 두 공간을 병치시켜 사건을 전개한다.

63. <보기>를 참조할 때, ㉠~㉣ 중 ㉠과 거리가 먼 것은?

■ 보 기 ■

고전소설에 형상화된 세계에는 옥황상제라는 주재자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옥황상제의 뜻이 '천명(天命)'이며 모든 존재는 그 뜻을 따라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64. [A]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심현의 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
- ②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서글퍼하고 있다.
- ③ 남은 삶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 ④ 심청의 고달팠던 삶에 대해 통탄하고 있다.
- ⑤ 부모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고 있다.

65. 위 글을 읽은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심현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관심이 지속되지는 않았군.
- ② 용궁의 신비한 다과는 심청이 지상에서 살았던 삶을 잊게 하는군.
- ③ 용궁은 심청에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군.
- ④ 용궁은 심청이 다른 존재로 변화하기 위한 장소라는 의미를 지니는군.
- ⑤ 심청은 심현에 대한 걱정과 용궁에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을 모두 가지고 있군.

고난도 고전 신문 정선
L L L L O L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2005학년도 9월 평가원

¹민(閔) 영감은 어릴 때부터 매우 영리하고 총명하며, 말을 잘하였다.
²특히 옛사람의 기이한 절개나 거룩한 발자취를 흠모하여 이따금 의기가 북받쳐서 흥분하기도 하였다. ³그들의 전기를 읽을 때마다 한숨 쉬며 눈물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중략)

⁴손님이 또 물었다.⁵“영감님은 신선도 보았소?”⁶“보았지.”⁷“신선은 어디에 있소?”

⁸“[㉠]집이 가난한 자가 바로 신선이라오. ⁹부자들은 늘 속세를 그리워하는데, 가난한 자는 언제나 속세를 싫어하니, 속세를 싫어하는 게 신선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¹⁰“영감님은 나이 많은 사람도 보았겠구려?”

¹¹“보았지. ¹²내가 오늘 아침 숲 속에 들어갔더니, 두꺼비와 토끼가 제각기 나이가 많다고 다투더군. ¹³토끼가 두꺼비더러, ‘내가 팽조와 동갑이니까, 너 같은 자야말로 후생(後生)*이다.’

¹⁴하고 말하니까, 두꺼비가 머리를 숙이고 훌쩍훌쩍 읊디다.¹⁵토끼가 깜짝 놀라서,¹⁶“왜 그리 슬퍼하나?”¹⁷물었더니, 두꺼비가 이렇게 말함이다.

¹⁸나는 저 동쪽 이웃집 어린아이와 동갑인데, 그 아이는 다섯 살 때에 벌써 글을 읽을 줄 알았단다. ¹⁹그는 아득한 옛날 천황씨(天皇氏) 때에 태어나서 인년(寅年) 역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왕(王)과 제(帝)를 거쳤으며, 주(周)나라에 이르러 왕통이 끊어지자 책력(冊曆)** 하나를 이루었지. ²⁰진(秦)나라 때에 윤달이 들었고, 한(漢) 당(唐)을 거쳐 아침엔 송(宋)나라가 되었다가 저녁엔 명(明)나라가 되었지. ²¹모든 사변을 겪으면서 기쁜 일, 놀라운 일, 죽은 이를 슬퍼하는 일, 가는 이를 보내는 일 등으로 지루한 세월을 보내다가 오늘에 이른 것이야. ²²그런데도 오히려 귀와 눈이 밝아지고, 이와 털이 나날이 자란단 말이야. ²³저 아이처럼 나이 많게 살았던 자는 없을 거야. ²⁴그런데 팽조는 겨우 팔백 살을 살다가 일찍 사라졌더니, 그는 세상을 겪은 것도 많지 못하고, 일을 경험한 것도 오래지 못했을 거야. ²⁵그래서 내가 슬퍼하는 거지.’

²⁶결국 토끼가 두 번 절하고 뒷걸음질치면서,²⁷“내가 내 할아버지뻘이다.”

²⁸함디다. ²⁹[㉡]이로써 본다면 글 많이 읽은 자가 가장 목숨이 긴 거라오.”

³⁰“그럼 영감님은 가장 훌륭한 맛도 보았겠구려?”

³¹“보았지. ³²[㉢]하현달이 되어서 썰물이 물러나면, 바닷가의 흙을 평평하게 해서 염전을 만들거든. ³³그 갯벌을 구워서 성긴 것으로는 수정염을 만들고, 고운 것으로는 소금을 만들지. ³⁴온갖 맛을 조화시키면서, 소금 없이 어찌 맛을 내겠소?”

³⁵그러자 모두들 말하였다.³⁶“종소. ³⁷그러나 불사약은 영감님도 결코 못 보았겠쥬?”³⁸민 영감이 웃으면서 말하였다.³⁹“이거야말로 내가 아침저녁으로 늘 먹는 것인데, 어찌 모르겠소?”

³¹큰 골짜기 굽은 소나무에 달콤한 이슬이 떨어져 땅속으로 스며든 지 천 년만에 복령(茯苓)이 되지. ³²인삼 가운데는 신라의 토산품이 으뜸인데, 단정한 모양 붉은 빛에 사지가 갖추어진 데다, 쌍갈래로 뿔은 머리는 아이처럼 생겼지. ³³구기자가 천 년 되면 사람을 보고 짓는다우. ³⁴내가 일찍이 이 세 가지 약을 먹고는 백 일이나 음식을 먹지 못하다가, 숨결이 가벼워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 ³⁵이웃집 할미가 와서 보고는 이렇게 탄식함이다.

³⁶“자네 병은 굶주렸기 때문에 생겼지. ³⁷옛날에 신농씨(神農氏)가 온갖 풀을 다 맛보고 비로소 오곡(五穀)을 뿌렸으니, 병을 다스리려면 약을 쓰고 굶주림을 고치려면 밥을 먹어야 한단네. ³⁸이 병은 오곡이 아니면 고치기 어렵겠네.”

³⁹나는 그제야 쌀로 밥을 지어먹고는 죽기를 면했다우. ⁴⁰[㉣]불사약치고 밥보다 나은 게 없는 셈이지. ⁴¹그래서 나는 아침에 한 그릇, 저녁에 또 한 그릇 먹고, 이제 벌써 일흔이 넘었다우.”

(중략)

⁴²어떤 사람이,

⁴³“해서 지방에 황충(蝗蟲)***이 생겨서, 관청에서 백성들더러 잡으라고 감독한답디다.”

⁴⁴하고 말하자, 민 영감이 물었다.⁴⁵“황충을 잡아서 무엇 한다우?”⁴⁶“이 벌레는 누에보다도 작는데, 알록달록한 빛에 털이 돋혔지요.

⁴⁷이놈이 날면 명(螟)이 되고, 붙으면 모(蠹)가 되어서 우리 곡식을 해치는데 거의 전멸시키지요. ⁴⁸그래서 잡아다가 땅속에 묻는답디다.”

⁴⁹민 영감이 말했다.

⁵⁰“이따위 조그만 벌레를 가지고 걱정할 게 무어람. ⁵¹[㉤]내 보기엔 종로 네거리에 한길 가득히 오가는 것들이 모두 황충일 뿐이야. ⁵²키는 모두 일곱 자가 넘고, 머리는 검은 데다 눈은 빛나지. ⁵³입은 주먹이 드나들 만큼 큰 데다 무슨 소린지 지껄여 대고, 구부정한 허리에 발굽이 서로 닿고 궁둥이가 잇달아 있지. ⁵⁴이놈들보다 더 농사를 해치고 곡식을 짓밟는 놈들이 없다우. ⁵⁵내가 그놈들을 잡고 싶은데, 큰 바가지가 없는 게 한스럽구려.”

⁵⁶마치 이런 벌레가 참으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크게 두려워했다.

- 박지원 ‘민옹전(閔翁傳)’

* 후생(後生): 뒤에 태어난 사람.

** 책력(冊曆): 일 년 동안의 월일, 절기, 특별한 기상 변동 따위를 적은 책.

*** 황충(蝗蟲): 풀무치. 메뚜기과의 곤충.

66. 위 글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 ② 대화를 통해서 극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③ 인물의 내면 심리가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 ④ 여러 개의 삽화가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 ⑤ 간결한 문체로 사건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67. 위 글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민 영감은 학식이 풍부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민 영감은 신선이냐 불사약이 헛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 ③ 손님들은 당시 정치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민 영감은 당시 현실이 옛사람의 도(道)에서 멀어졌다고 보고 있다.
- ⑤ 손님들의 질문 속에는 당시 사람들의 소망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68. [A]의 내용에 착안해서 도서 광고 문안을 작성해 보았다. 민 영감이 말하고자 한 의도를 가장 잘 살린 것은?

- ① 어린이를 위한 『중국사 오천 년』, 초등학교 어린이 독자를 위해서 쉽게 풀어썼습니다.
- ② 생각을 키우는 『중국사 오천 년』, 오천 년의 경험과 지혜를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 ③ 시대 구분이 새로운 『중국사 오천 년』, 고대사와 중세사에 대한 최근 연구 성과를 반영했습니다.
- ④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오천 년』, 한국인이 알아야 할 내용들을 주체적인 관점에서 서술했습니다.
- ⑤ 한 권에 담은 『중국사 오천 년』, 선사 시대부터 명나라까지 시대별 주요 사항을 간명하게 요약했습니다.

69. <보기>는 가상해서 쓴 글쓴이의 회고록이다. 위 글의 ㉠~㉣ 중 <보기>의 밑줄 친 ‘측면 공격이나 역습’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 보 기 ■

돌아보건대 민 영감의 이야기는 참으로 신나고도 기이하고, 능청스럽고도 결죽했다. 민 영감은 말 속에 단단한 속 뜻을 담아 생각을 펼치곤 했다. 민 영감은 언제나 말을 길게 늘어놓았지만, 끝에 가서는 모두 이치에 맞았다. 게다가 속속들이 풍자를 머금었으니, 변사(辯士)라고 할 만했다. 마치 전투에 나선 장수가 작전을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듯 했는데, 자주 측면 공격이나 역습을 펼쳤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70. ㉠에 나타난 민 영감의 심정을 표현한 것은?

- ① 비분강개(悲憤慷慨) ② 맥수지탄(麥秀之嘆)
- ③ 망양지탄(亡羊之嘆) ④ 후생가외(後生可畏)
- ⑤ 후회막급(後悔莫及)

*다음은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05학년도 3월 서울시 교육청

(가) ¹배도는 눈물을 흘리고 정색을 하며 말했다.

²“시경에 ‘아낙네 잘못 없는데, 사내는 달리 대하네.’라고 이르지 않았습니까? ³낭군은 이익과 껍소옥의 사연을 알지 않습니까? ⁴낭군이 만약 저를 멀리 버리지 않을 것이라면, 원컨대 맹세의 글을 써 주십시오.”

⁵이어서 배도가 고운 명주 한 폭을 꺼내어 주자, 주생은 즉시 붓을 휘갈겨 말했다.

⁶“푸른 산이 늙지 않고 푸른 물이 내내 흐르듯이 내 마음 변치 않으리. ⁷그대가 내 말을 믿지 않는다면, 하늘에 뜬 밝은 달에 맹세하리라.”

⁸주생이 다 쓴 뒤에, 배도는 마음과 피로 봉하듯이 그 글을 정성껏 봉해서 허리춤 속에 넣었다. ⁹이날 밤 시를 읊으며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니, 비록 김생과 취취나 위랑과 빙빙의 사랑이라도 여기에 미치지 못할 정도였다.

¹⁰다음날 주생이 비로소 어젯밤에 들었던 사람 소리와 말 울음소리에 대해서 묻자, 배도가 말했다.

¹¹“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붉은 대문을 단 집이 물가를 마주 바라보고 서 있는데, 이는 바로 옛날 승상(丞相)이었던 노모(盧某)의택입니다. ¹²승상은 이미 죽고, 부인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아들 한 명과 딸 한 명만을 데리고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¹³이들은 매일 춤과 노래로 소일하고 있는데, 어젯밤에도 말을 보내어 저를 불렀으나 제가 낭군 때문에 병을 핑계 대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나) ¹⁴주생은 몸을 숨긴 채 다가가서 숨을 죽이고 엿보았다. ¹⁵금빛 병풍과 채색 담요가 황홀하여 눈이 부시었다. ¹⁶부인은 붉은 비단 적삼을 입고 백옥(白玉) 방석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¹⁷나이는 50세 정도 되어 보였으나 지긋이 한 쪽 눈을 감고 돌아보는 태도에는 아직 예전의 어여쁜 모습이 남아 있었다. ¹⁸꽃다운 나이의 소녀가 부인 옆에 앉아 있었는데, 구름처럼 고운 머릿결에는 푸른빛이 맺혀 있고 아리따운 뺨에는 붉은빛이 어리어 있었다. ¹⁹밝은 눈동자로 살짝 흘겨보는 모습은 흐르는 물결에 비친 가을 햇살 같았으며, 어여쁨을 자아내는 아름다운 미소는 봄꽃이 새벽 이슬을 머금은 듯 했다. ²⁰배도가 그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배도는 그 소녀에 비하면 봉황에 섞인 갈가마귀나 올빼미요, 옥구슬에 섞인 모래나 자갈일 뿐이었다. ²¹그 소녀를 본 주생은 낮이 구름 밖으로 날아가고 마음이 공중에 뜬 듯이 황홀하였다. ²²그래서 몇 번이나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갈 뻔했다.

(다) ²³주생은 한번 선화를 본 후부터는 배도를 향한 마음이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²⁴그래서 배도와 술잔을 주고받는 사이에도 애써 웃고 기뻐할 뿐, 마음은 온통 선화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²⁵하루는 승상 부인이 아들 국영을 불러 놓고 말했다.

고난도 고전 신문 정선
L L L L O L

26“네 나이가 열두 살인데도 아직 글을 배우지 않고 있으니, 훗날 어른이 되어서 어떻게 자립할 수 있겠느냐? 27배 낭자의 남편인 주생은 학문이 뛰어난 선비라고 들었다. 28네가 가서 그에게 배움을 청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중략>

29이때부터 주생은 승상의 집으로 옮겨가 더부살이를 했다. 30그러나 낮에는 국영과 함께 생활을 하고, 밤이 되더라도 문빛장이 굳게 잠기어 있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31주생은 10여 일이 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마침내 자신에게 일렀다.

32“처음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본래 선화를 만나기 위함이었다. 33이제 향기로운 봄도 이미 끝나 버렸는데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있으니, 사람의 수명이 얼마나 된다고 황하가 맑아지기를 기다리겠는가? 34차라리 당돌하게 ㉠담을 넘어 가는 것이 더 나으리라. 35일이 이루어지면 귀하게 될 것이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벌을 받아 죽으면 그만이다.”

36마침 그날 밤 달이 뜨지 않았다. 37주생은 몇 겹으로 된 담을 넘어 비로소 선화의 처소에 이르렀는데, 그곳에는 굽이진 기둥과 돌아드는 복도마다 주렴과 장막(帳幕)이 겹겹이 드리워져 있었다. 38주생은 한참 동안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았으나 인적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39다만 ㉡주렴 뒤에서 선화가 촛불을 밝히고 악곡(樂曲)을 타고 있었다. 40주생은 기둥 사이에 엎드려 선화가 타는 악곡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다. 41선화는 악곡을 다 연주하고 나서 작은 소리로 소자침의 <하신랑(賀新郎)>이라는 사곡(詞曲)을 읊었다.

㉢ 주렴 밖에 누가 와서 비단 창을 두드리고?

㉣ 안타깝게도 요대에서 노니는 꿈 깨뜨리네.

㉤ 아아, 대밭을 스치는 바람이런가.

- 권필 '주생전(周生傳)'

71. <보기>는 위 작품으로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배부한 참고 자료이다. 위 글과 <보기>를 읽은 후 학생들이 발표한 의견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주생전〉의 전체 내용 구조

- 주생이 배를 띄우고 잠들었다가 '전당'에 도착하여 어릴 적 친구인 배도를 만남.
- 배도에게 연정을 느끼고 그와 동거하게 됨.
- 배도를 찾으러 선화의 집에 갔다가, 선화를 보고 반함.
- 선화의 동생인 국영이 가르침을 청해 와 그의 집에서 기거하게 됨.
- 밤을 틈타 선화를 만나 사랑을 이루고 매일 밤 남 몰래 만남.
- 사실을 알게 된 배도의 질투로 인해 선화와 헤어져 있으면서 서로 간절히 그리워 함.
- 배도가 병으로 죽고, 주생은 친척의 도움으로 선화와 혼약을 함.
- 혼인날을 기다리던 중, 왜적의 침입 때문에 구원병으로 징발되어 참전함.
- 전쟁 중, 선화에 대한 그리움으로 병이 들어 객사에 머물게 됨.
 - ➔ 객사에서 내(지은이)가 '주생'을 만나 이 이야기를 듣고 글로 씀.

- (가)에서 배도가 주생을 믿지 못했던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사랑할 수 있겠어.
- 우리가 읽은 부분은 B에서 E까지의 내용 중 일부인 것 같아. (다)의 뒤에는 주생과 선화가 인연을 맺고 계속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겠지?
- 주생의 사랑이 매우 강해서, 선화와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행복한 결말을 맺는 다른 고전 소설들과는 사뭇 달라.
- 주생은 배도를 찾으러 갔다가 선화를 보게 되었어. 작가는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만나도록 하기 위해 배도가 선화의 집에 가 있던 것으로 설정한 게 아닐까?
- 우연한 사건 때문에 원하던 바가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주생에게는 승상 부인이 자신을 국영의 스승으로 칭한 것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어.

72. '주생'이 <보기>의 조건에 맞추어 ㉠에 대해 화답하는 시를 쓴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 상대방의 노래에 쓰인 소재를 활용할 것.
-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드러낼 것.

- 바람이 대밭에 스친다고 말하지 말라
그건 바로 고운 님이 오는 소리라네.
- 주렴을 걷고 비파를 가볍게 희롱하니
노래 속에 담긴 원망을 그 누가 알리오
- 기쁘도다. 미인이 곁에 있으니
이 집에 가득한 꽃과 달을 어이 하리오
- 대밭 너머로는 가벼이 안개가 어리고
안개 속에는 가느다란 버들가지 실처럼 푸르렀네.
- 피꼬리는 한껏 제 목소리를 뽐내는데
한스럽게도 젊은 청춘은 꿈속에서 시들어 버렸네.

73.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과 ㉡을 해석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소설에 등장하는 소재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두 인물이 만남을 이루는 과정에 등장하는 각종 소재를 일정한 의미를 부여하여 해석하면 감상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두 인물 사이에 일정한 경계선을 긋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인물들이 이를 넘어서기 위해 갈등을 하기도 하고 시련을 겪게도 함으로써 독자들이 그 만남의 기쁨에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둘 다 만남을 위해 넘어야 할 경계선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 둘 다 그것을 넘어서려는 '주생'에게 심리적 갈등을 불러일으켰을 것 같아.
- ㉠의 경계선을 넘는 데에는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도움이 된 것 같아.
- 주생의 결심 이후에 ㉡은 장애물로서의 성격이 약화되었어.
- 두 사람의 만남 이후에는 ㉡은 주생의 심리적 갈등을 더 강하게 불러일으킬 거야.

고난 고전 신문 정선
L L L L O L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2005학년도 4월 전국 모의고사

¹대곤삼십도(大棍三十度)를 매우 치고, 죄목을 엄히 문초하되,
²“네 이 놈! ³차후에도 웅가라 하겠느냐?”
⁴실옹가는 곰곰이 생각건대, 만일 다시 웅가라 우길진대 필시 곤장 밑에 죽겠기에,
⁵“예, 웅가가 아니오니, 처분대로 하옵소서.”
⁶아전이 호령하기를,
⁷“장제 안동(眼洞)*하여 저 놈을 월경(越境)시키라.”
⁸하니, 군노사령 벌떼같이 일시에 달려들어 웅가놈의 상투를 움켜잡고 휘휘 돌려 내쫓으니, ⁹실옹가는 할 수 없이 걸인 신세가 되고 말았다.
⁹고향 산천 멀리하고 남북으로 빌어먹을 새, 가슴을 탕탕 치며 대성 통곡하며 하는 말이,
¹⁰“답답하다 내 신세야! ¹¹이 일이 꿈이나 생시냐? ¹²어찌하면 좋을지고? ¹³이른바 낙미지액(落眉之厄)*이로다.”
¹⁴무지하던 실옹가는 어느덧 허물을 뉘우치고 애통하여 하는 소리가,
¹⁵“나는 죽어 썩 놈이로되, 당상학발(堂上鶴髮)*우리 모친 다시 봉양하고 싶고, 어여쁜 우리 아내 월하(月下)의 인연 맺어 일월로 다짐하고 천지로 맹세하여 백년종사(百年從事) 하렘더니, 독수공방 적막한데, 임도 없이 홀로 누워 전전반측(轉轉反側) 잠 못들어 수심으로 지내는가? ¹⁶슬하에 어린 새끼 금옥같이 사랑하여 어를 적에 ‘섬마 둥둥 내 사랑아! 후두둑 후두둑, 엄마 아빠 눈에 암암’ 나 죽겠네, 나 죽겠어! ¹⁷이 일이 생시는 아니로다. ¹⁸아마도 꿈이니, 꿈이거든 어서 바빠 깨어나라!”
¹⁹이럴 즈음 허옹가의 거동 보세. ²⁰송사에 이기고서 돌아올 때 의기양양하는 거동, 진소위(眞所謂) 제법이것다. ²¹얼씨구나 좋을시고! ²²손춤을 휘저으며 노래가락 좋을시고! 이러저리 다니면서 조롱하여 하는 말이,
²³“허허 흥악한 놈 다 보것다! ²⁴하미터면 고운 우리 마누라를 빼앗길 뻔하였구나.”
²⁵하고 집으로 들어서며 희색(喜色)이 만면하니, 온 집안 식솔들이 송사에 이겼다는 말을 듣고 반가이 영접할새, 실옹가의 마누라가 활짝 뛰쳐 내달으며 허옹가의 손을 잡고 다시금 묻는 말이,
²⁶“그래 참말 송사에 이겼소이까?”
²⁷“허허 그리하였다네. ²⁸그 사이 편안히 있었는가? ²⁹세간은 고사하고 자칫하면 자네마저 놓칠 뻔하였다네! ³⁰원님이 명찰하여 주시기로 자네 얼굴 다시 보니 이런 경사 또 있는가? ³¹불행 중 다행이로세!”
³²그럭저럭 날 저물매, 허옹가는 실옹가의 아내와 더불어 긴긴 밤을 수작타가 원앙금침 펼쳐놓고 한자리에 누웠으니, 양인 심사 깊은 정을 새삼 일러 무엇하랴
³³이같이 즐기다가 잠시 잠이 들어 실옹가의 아내가 한 꿈을 얻으매 하늘에서 허수아비가 무수히 떨어져 보이기에 문득 깨달으니 남가일몽(南柯一夢)이라. ³⁴허옹가한테 몽사를 말하니, 허옹가 고개를 끄덕이며,
³⁵“그 일이 분명하면 아마도 태기가 있을 듯하나, 꿈과 같을진대 허수아비를 낳을 듯하네마는, 장차 내 두고 보리라.”
³⁶이러구러 십 삭이 차매 실옹가의 아내 몸이 고단하여 자리에 누워

몸을 풀 새 진양성중가가조(晉陽城中家家稿)*에 개구리 해산하듯, 돼지가 새끼 낳듯 무수히 퍼 낳는데 하나 둘 셋 넷 부지기수다. ³⁷이렇듯이 해산하니 보던 바 처음이며 듣던 바 처음이다.

³⁸실옹가의 마누라는 자식 많아 좋아라고 괴로움도 다 잊으며 주렁주렁 길러 내었다.

³⁹이렇듯이 즐거이 지낼 무렵, 실옹가는 할 수 없이 세간 처자 모조리 빼앗기고 팔자에 없는 곤장 맞고 쫓겨나니 세상에 살아본들 무엇하랴?

⁴⁰이렇게 슬피 울 새 한 곳을 쳐다보니 층암절벽 벼랑 위에 백발도사 높이 앉아 청려장을 옆에 끼고 반송 가지를 휘어잡고 노래 불러 하는 말이,
⁴¹“뉘우쳐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⁴²하늘이 주신 벌이거늘,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탓하고자 하는가?”

⁴³실옹가는 이 말을 다 들으매 어찌할 줄 모르는 듯, 도사 앞에 급히 나아가 합장배례 급히 하며 애원하되,
⁴⁴“이 몸의 죄 돌이켜 생각하면 천만 번 죽사와도 아깝지 아니하오나, 밝으신 도덕 하에 제발 덕분 살려 주사이다. ⁴⁵당상의 늙은 모친, 규중의 어린 처자, 다시 보게 하옵소서. ⁴⁶이 소원 풀고 나면 지하로 돌아가도 여한이 없을 줄로 아나이다. ⁴⁷제발 덕분 살려 주옵소서.”

⁴⁸온갖 정성 다 기울여 애걸하니, 도사가 소리 높여 꾸짖기를,
⁴⁹“천지간에 몹쓸 놈아! ⁵⁰이제도 팔십 당년 병든 모친 구박하여 냉돌방에 두려는가? ⁵¹불도를 업신여겨 못된 짓 하려는가? ⁵²너 같은 몹쓸 놈은 응당 죽여 마땅하되, 정상이 가금하고 너의 처자 불쌍하기로 풀어 주겠으니 돌아가 개과천선하리라.”

⁵³도사는 ㉠부적 한 장을 써 주면서 일러두길,
⁵⁴“이 부적 간직하고 네 집에 돌아가면 괴이한 일이 있으리라.”
⁵⁵하고 슬며시 사라지니, 도사는 간데 온데 없었다.

⁵⁶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와서 제 집 문전 다다르니, 고루거각(高樓巨閣) 높은 집에 청풍명월 맑은 경계는 이미 눈에 익은 풍취로다. ⁵⁷담장 안의 흥련화는 주인을 반기는 듯, 영산홍아 잘 있었느냐? ⁵⁸자산홍아 무사하냐? ⁵⁹옛일을 생각하매 오늘이 옳으며 어제는 잘못임을 깨닫고 옛집을 다시 찾아오니 죽을 마음 전혀 없다.

⁶⁰“가소롭다, 허옹가야! ⁶¹이제도 네가 웅가라고 장담을 할 것이냐?”
⁶²늙은 하인 내달으며,
⁶³“애고 애고 죄수님, 저 놈이 또 왔소이다. ⁶⁴천살 맞았는지 또 와서 지랄하니 이 일을 어찌하오리까?”

⁶⁵이럴 즈음에, 방에 있던 웅가는 간데 없고, 난데없는 짚 한 묶음이 놓여 있을 따름이요, 허옹가와 수다한 자식들도 홀연히 허수아비 되므로, 온 집안이 그제서야 깨달은 듯 박장대소하였다.

*안동(眼洞) : 직접 데리고 감.
 *낙미지액(落眉之厄) : 눈 앞에 닥친 재앙
 *당상학발(堂上鶴髮) : 머리가 흰 늙은 부모님
 *진양성중가가조(晉陽城中家家稿) : 진양성[진주성] 안에 집이 백백하게 들어서 있다는 뜻

- 작자 미상, ‘웅고집전(壘鼓執傳)’

고난도 고전 신문 정선
L L L L O L

7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술자가 등장 인물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
- ② 장면의 전환이 잦고 사건 전개가 우발적이다.
- ③ 상황을 과장하여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④ 청중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문체를 활용하고 있다.
- ⑤ 윤리적인 덕목을 내세워 독자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75. 위 글을 통해서 추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옹의 아내는 허옹보다 실옹을 더 사랑하였다.
- ② 실옹은 과거에 패륜적인 행동을 일삼은 적이 있다.
- ③ 도사는 실옹에게 인과응보의 진리를 가르쳐 주었다.
- ④ 실옹은 자신의 하인으로부터 문전박대를 받은 적이 있다.
- ⑤ 허옹은 자신의 자식이 실재적인 존재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76. ㉠이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한 것은?

- ① 오지랖이 넓기도 하군.
- ②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네.
- ③ 공든 탑이 무너져 버렸구나.
- ④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유분수지.
- 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군.

77. <보기>의 ㉠~㉥ 중, ㉠과 유사한 기능을 지닌 것은?

■ 보 기 ■

경덕왕 19년(760) 4월 초에 ㉠해가 둘이 나란히 나타나 열흘 동안이나 없어지지 않았다. 이것을 보고 일관은 인연이 있는 중을 청하여 꽃을 뿌리며 정성을 들이면 재앙을 물리치리라고 상주하였다. 이에 조원전에 깨끗한 단을 만들고 청양루에 왕이 친히 나가 중을 기다렸다. 이 때 월명사는 긴 두령의 남쪽 ㉡길을 가고 있었다. 왕이 ㉢사자를 보내 그를 불러 단을 열고 기도문을 짓게 하였다.

월명사는 “저는 국선의 무리에 속해 있으므로 다만 향기만 할 뿐이고 범성에는 익숙지 못합니다.”하고 대답하였다. 왕은 “이에 인연 있는 중으로 뽑혔으니 향기라도 좋다.”

하고, 그에게 노래짓기를 청하였다. 이에 월명사는 ㉣노래를 지어 바쳤다. 조금 있다가 해의 번개가 사라졌다. 왕이 이를 가상하게 여겨 좋은 ㉤차 한 봉과 수정 염주 108개를 하사하였다.

- ① ㉠ 해 ② ㉡ 길 ③ ㉢ 사자
- ④ ㉣ 노래 ⑤ ㉤ 차

78. 위 글의 ‘실옹’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은?

- ①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인물이다.
- ②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 인물이다.
- ③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는 인물이다.
- ④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인물이다.
- ⑤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인물이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2005학년도 5월 전국 모의고사

¹이 때 사또 평양 비장에게 회계 비장을 겸하고 분부하여 추월을 잡아 들여 돈 오천 냥 바치라 하시니 뉘 영이라 거역할까? ²성화같이 재촉하여 수일 내에 반가니 춘풍이 비장 덕에 돈 받아 실어놓고 갓 망건 의복 치레하여 은안준마(銀鞍駿馬) 높이 타고 경성을 올라와서 제 집을 찾아가니, 이 때 춘풍의 처 문 밖에 썩 나서서 춘풍의 소매 잡고 깜짝 놀라며 하는 말이,

³“어이 그리 더디던고, 장사에 소망 얻어 평안하시니까?”

⁴춘풍이 반기면서

⁵“그새 잘 있던가?”

⁶춘풍이 이십 바리 돈을 여기저기 벌이고 장사에 남긴 듯이 의기양양하니 춘풍 아내 거동 보소 ⁷주찬을 소담히 차려 놓고,

⁸“자시오.”

⁹하니 저 잡놈 거동 보소 ¹⁰없던 교태(驕態) 지어 내어 제 아내 꾸짖되,

¹¹㉠“안주도 좋지 않고 술맛도 무미하다. ¹²평양서는 좋은 안주로 매일 장취하여 입맛이 높았으니, 평양으로 다시 가고 싶다. ¹³아무래도 못 있겠다.”

¹⁴젓가락을 그릇에 던져 박고 고기도 씹어 뱉어 버리며 하는 말이,

¹⁵“평양 일색 추월이와 좋은 안주 호강으로 지냈더니 집에 오니 온갖 것이 다 어설피다. ¹⁶호조 돈이나 다 갚고 약간 전량을 수쇄(收刷)하여 전 주인에게 환전 부치고 평양으로 내려가서, 작은 집과 한가지로 음식을 먹으리라.”

¹⁷㉡그 거동은 차마 못 볼러라. ¹⁸춘풍 아내 거동 보소 ¹⁹춘풍을 속이려고 상을 물려 놓고 황혼시에 밖에 나가 비장 복색 다시 하고, 오동수복(烏銅壽福) 화간죽(花竿竹)을 한발이나 빼쳐 물고 대문 안에 들어가서 기침하고,

²⁰“춘풍아, 왔느냐?”

²¹춘풍이 자세히 보니 평양서 돈 받아주던 회계 비장이라, 춘풍이 황겁하여 바선발로 뛰어 내달아 복지(伏地)하여 여쭙되,

²²㉢“소인이 오늘 와서 날이 저물어 명일에 덕문하에 문안코자 하옵더니, 나으리 먼저 행차하옵시니 황공만만하외다.”

²³“내 마침 이리 지나가다가 너 왔단 말 듣고 네 집에 잠깐 들렀노라.”

²⁴방 안에 들어가니, 춘풍이 아무리 제 안방인들 어찌 들어갈까 문밖에 섰노라니,

²⁵“춘풍아, 들어와서 말이나 하여라.”

²⁶“나으리 좌정하신 데를 감히 들어가오리까?”

²⁷“잔말 말고 들어오라.”

²⁸춘풍이 마지못하여 들어오니, 비장이 가로되,

²⁹“그 때 추월에게 돈을 진작 받았느냐?”

³⁰㉣“나으리 덕택에 즉시 받았나이다. ³¹못 받을 돈 오천냥을 일조에 다 받았사오니, 그 덕택이 태산 같사이다.”

³²“그 때 맞던 매가 아프더냐?”

³³㉤“소인에게 그런 매는 상이로소이다. ³⁴어찌 아프다 하리이까?”

³⁵“네 집에 술이 있느냐?”

³⁶춘풍이 일어서서 주안을 들어거늘 비장이 꾸짖어 말하되,

고난도 고전 신문 정선

37“네 계집은 어디 가고 네게 일을 시키느냐? 38네 계집 불러 술 준비 못 시킬까?”

39춘풍이 황급하여 아무리 찾은들 있을소냐? 40들며나며 찾아도 없어 제 손수 거행하니 한두 잔 먹은 후에 취담으로 하는 말이,

41“네 평양에서 추월의 집 사환할 제 형용도 참혹하고 걸인 중 상거지라, 추월의 하인 되어 봉두난발(蓬頭亂髮) 현 누더기 감발 버선이 어떨더냐?”

42춘풍이 부끄러워 제 계집이 문 밖에서 엿듣는가 민망하건마는, 비장이 하는 말을 제가 어찌 막을손가, 좌불안석(坐不安席) 하는 꼴은 혼자 보기 아깝더라. (중략)

43비장이 말하되,

44“밤이 깊었으니 네 집에서 자고 가리라.”

45 ㉠

46관망탕건 벗어 놓고 옷옷을 훨훨 벗은 후 일어서니 완연한 제 계집이라. 47춘풍이 깜짝 놀라 자세히 보니 분명한 제 계집이라.

48춘풍이 어이없이 아무 말없이 앉았으니 춘풍의 처 달려들며,

49“여보소, 아직도 나를 모르시오?”

50춘풍이 그제야 아주 깨닫고 깜짝 놀라며, 두 손을 마주잡고,

51“이것이 웬일인가? 52평양 회계 비장으로서 지금 내 아내 될 줄 어이 알리. 53이것이 생신가, 꿈인가, 태중인가. 54귀신이 내 눈을 어리어 이러한가?”

55하며 파경(破鏡)이 부합(附合)하여 원앙금침에 구정을 다시 이뤄 은근한 정이 비할 데 없더라.

- 작자미상, ‘이춘풍전’

79.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우연적인 사건 전개로 극적 흥미가 반감되고 있다.
- ② 역순행적인 구성을 통하여 갈등 원인을 추리하게 하였다.
- ③ 대화 위주의 서술을 통해 사건 전개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 ④ 부정적 인물을 희화화(戲畵化) 시켜 극적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⑤ 서술자의 직접적인 개입을 자제하여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80. 위 글을 영상물로 제작하기 위해 세운 계획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춘풍은 환경에 따라 행동이 변하는 허위에 찬 인물로 보이도록 해야겠어.
- ② 이해를 돕기 위해 비장이 직접 추월이를 심문하는 장면을 먼저 제시해야겠어.
- ③ 춘풍의 아내는 재치 있고 대범한 성격을 소유한 인물로 캐릭터를 설정해야겠어.
- ④ 춘풍이 아내와 사랑을 나누는 장면은 은은한 배경 음악으로 분위기를 조성해야겠어.
- ⑤ 평양 비장이 자신의 아내임을 알고 놀라는 대목에선 춘풍의 얼굴을 확대 촬영하는 것이 좋겠어.

81. ㉠에 해당되는 춘풍의 행위와 관련이 없는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82. 사건의 흐름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갈 춘풍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저놈의 비장이 혹시 내 마누라가 아닐까.
- ② 비장을 모셔야 하는데 마누라는 어딜 간 거야.
- ③ 아내와 만나 회포나 풀려고 했더니 다 틀렸군.
- ④ 비장이 우리 집에서 잔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군.
- ⑤ 이 놈의 비장이 혹시 다른 속내가 있는 것은 아닐까.

83. 위 글을 읽고 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권위 의식과 유교적 이념이 작품에 반영되어 있어.
- ② 무능력하고 방탕한 인물을 등장시켜 당대 지배 계층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어.
- ③ 행복한 결말로 볼 때, 이상 사회에 대한 작가의 소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 ④ 현실에 순응하기보다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인물을 제시하고 있어.
- ⑤ 당당하고 현명한 여성 주인공을 등장시킴으로써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

고난 고전 신문 정선
L L L L O L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2005학년도 10월 서울시 교육청

¹양왕은 황제의 셋째 아우인데, 그 무남 독녀는 용모와 재주가 겸해 뛰어나고 시서(詩書)에 능통하였다. ²양왕이 공주를 낳을 때 얻은 꿈에 선관이 매화꽃 한 가지를 주면서, “이 꽃은 봉래산(蓬萊山)의 설중매(雪中梅)니, 그대는 이 매화나무에 오얏(柰)나무를 접하면, 지엽(枝葉)이 번성하리라.” 하더니, 과연 그 달부터 부인이 잉태하여 만삭에 공주를 낳았으므로 이름을 매향(梅香)이라 하고 자를 봉래산이라 하였으니, 점점 자람에 따라 용모와 재주가 비상하니, 양왕이 애중하여 배필 고르기를 여간 엄격하게 하지 않더라.

³그러던 중에 우연히 이선을 한번 보고 대현 군자(大賢君子)인 줄 알고 구혼하여 그의 부친 위왕의 허락을 얻고, 장차 길일을 택하려고 하던 차에 이선이 다른 데 취처함을 알고 크게 노하여 퇴혼하려고 하였으나, 매향 공주가 말하기를,

⁴“충신불사이군(忠臣不事二君)이요, 열녀불경이부(列女不更二夫)라 하나이다. ⁵소녀 차라리 불효를 끼쳐서 목숨을 바칠지라도 타문(他門)에는 결단코 가지 않겠습니다.”

⁶하고 부친의 뜻에 따르지 않으며, 양왕이 오래 침묵하고 생각한 끝에 말하기를,

⁷“내 슬하에 아들이 없고 오직 너 하나뿐이라 어진 사위를 얻어 후사를 위탁하고자 하거늘, 네가 그러하니 이것이 모두 이 아비의 박복한 탓이다.”

⁸하고 긴 한숨을 쉬며 탄식하니, 공주가 재배하고,

⁹“소녀는 부모의 말씀을 수화(水火)라도 피하지 않사오나, 이번 일만은 순종할 바가 아니오매, 그 죄로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¹⁰하고 공주가 뜻을 변하지 않으므로 양왕은 매우 근심하던 차에 이선의 벼슬이 초공에까지 이름을 보고, 왕비 최씨와 상의하여 말하되,

¹¹“이제 이랑의 벼슬이 초공에 이르고 위인이 특출하니, 매향은 그 둘째 부인으로 삼아도 좋을가 하는데 당신의 의향은 어떻소?”

¹²“그 애한테 물어 보십시오.”

¹³공주를 불러 물어본즉,

¹⁴“타문에는 가지 않기로 결심한 저인데 차비(次妃) 됨을 어찌 욕되다 하오리까.”

¹⁵“그러면 위왕을 만나서 다시 의논해 보겠다.”

¹⁶하고 이튿날 아침 조회에 들어가서 어전에서 위왕을 보고,

¹⁷“위왕은 우리 집과 혼인을 이미 허락하고 타처와 하신 것은 웬일이요?”

¹⁸하고 추궁하자, 위왕이 부끄러워하면서 사과하고,

¹⁹“저로서 약속을 어긴은 닢 둘 곳이 없사오나, 당초에 제가 상경한 사이에 만누이에게 선의 수양을 시켰더니 제가 서울에서 귀가(貴家)의 소저와 약혼한 줄을 모르고 타문에 혼인하였으니, 지금 와서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²⁰황제가 나서서 말하기를,

²¹“이선의 일은 짐이 다 아는 바이니, 그의 불민함도 아니고 천정(天定)함이니, 다투지 말고 양왕은 다른 데 구혼함이 어떤가?”

²²양왕이 머리를 숙이고 말하되,

²³“성교(聖敎) 지당하오나 신의 딸이 그냥 늙을지언정 타문을 밟지 않으려 하오니 그 정상이 가장 민망하옵니다.”

²⁴황제가 매향 공주의 뜻을 칭찬하시고,

²⁵“경녀(卿女)의 절행(節行)이 족히 고인에 못지 않으니 기특하다. ²⁶이제 이선의 벼슬이 족히 두 부인을 두리니, 경의 뜻이 어떤고?”

²⁷양왕은 황제의 말에 즉시 찬성하여 사은하였으나, 위왕은 엎드려서 아뢰되,

²⁸“양왕의 공주는 금지옥엽(金枝玉葉)이라 선의 차위(次位)에 굴(屈)함이 불가하오나, 어찌 성교를 위월(違越)하오리까?”

²⁹“짐이 이제 이선을 불러 결단하겠소.”

³⁰하고 선을 부르시니, 초공이 필경 양왕의 혼사인 줄을 알고, 병을 빙자하고 부르심에 응하지 않자 근심한 정렬부인 숙향이,

³¹“황상께서 명초(命招)하시는데 어찌 칭병하십니까?”

³²“이번에 부르심이 양왕의 혼사 때문이라 칭병하고 피할 생각이요.”

³³이 말을 들은 부인이 정색을 하고,

³⁴“공(公)이 비록 나를 위하여 주니 감사하오나, 신자(臣子)의 도리로 옳지 못합니다.”

³⁵“나도 그런 줄을 알지만, 어전에서 사혼(辭婚)하면 죄를 면치 못할 것이요, 만일 그 여자를 취하여 불미한 일이 생기면 부인의 괴로움이 적지 않을 것이요, 하물며 그 여자가 국척(國戚)의 위세를 빙자하여 가중(家中)을 탁란(濁亂)시키면 우리 가문의 청덕(淸德)이 이로 인하여 손상되리니, 황송하나 거절함만 같지 못하오.”

³⁶“그러나 그 혼사를 거절함은 두 가지 뜻에서 불가하옵니다. ³⁷하나는 군명(君命)을 거역함이 신자(臣子)의 도리가 아니요, 하나는 그 여자가 타문에는 출가하지 않고 백 년을 독수공방(獨守空房)하오면 그 원한을 사나이 대장부가 살 바가 아닙니다.”

³⁸부인의 이런 충고에도 이선이 마침내 듣지 아니하더라.

³⁹사관이 돌아가서 그대로 고하자, 황제가 양왕에게 이선이 병으로 입궐하지 못한다 하니 다음 기회로 하자고 말씀하셨으나, 양왕은 초공이 혼사를 거절하고 거짓 병으로 어명(御命)까지 거역함을 짐작하고 격분하여 장차 이선을 해칠 앙심을 품게 되니라.

- 작자 미상, ‘숙향전’

84. 위 글의 등장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매향은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았다.
- ② 황제는 두 집안의 갈등을 공평무사하게 해결해 주었다.
- ③ 양왕은 위왕의 간계로 혼약이 깨진 것으로 오해하였다.
- ④ 위왕은 혼사에서 아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 ⑤ 숙향은 이선이 혼사 문제로 원한을 사게 될까 염려하였다.

85. <보기>의 ‘양소유’ 입장에서 위 글의 ‘이선’에 대해 비판 한다고 할 때, 적절한 것은?

■ 보기 ■

이날 상서가 상소하니 그 글은 다음과 같았다.

“한림학사 겸 예부상서 양소유는 머리를 조아려 절하며 황제 폐하께 아뢰니다. …… 소신(小臣)이 바야흐로 정가 여자와 혼인을 정하여 납채 하였는데 천만 뜻밖에 부마로 봉코자 하시어 황태후의 명으로 이미 받은 납채를 내어주라 하시니, 이는 예로부터 듣지 못하던 바입니다. 원컨대 폐하는 왕정과 인륜을 살피어 정가와 혼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상이 보시고 태후께 아뢰니, 태후가 크게 화를 내어 ‘양 상서를 감옥에 가두라.’ 하자, 조정 백관이 다 다투어 간(諫)하였지만 듣지 아니하였다.

- 김만중, ‘구운몽’에서

- ① 황실의 부마가 되는 길을 마다한 것은 좋지만, 거절의 사유는 매우 불순해 보인다.
- ② 비록 황제의 명일지라도 그것이 옳지 않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따르는 안 된다.
- ③ 부인을 둘씩이나 두는 일이 불가한데도 내심 그렇게 되길 바란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 ④ 집안의 일을 중히 여기고 나라의 일을 가볍게 보았으니, 이는 불충(不忠)이 아닐 수 없다.
- ⑤ 벌을 받게 될지라도 자기 뜻을 당당히 밝혀야지, 병을 핑계로 모면하려 한 것은 비겁한 처사이다.

8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대방을 납득시키고자 한다.
- ② 칭병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③ 상황을 가정하여 말하고 있다.
- ④ 예상되는 문제점을 열거하고 있다.
- ⑤ 자신의 뜻을 우회적으로 알리려 한다.

87. 위 글 이후의 사건을 <보기>와 같이 예상해 보았다. 그 근거가 되기 어려운 것은?

■ 보기 ■

양왕의 주장으로 이선이 위험한 임무를 맡게 되어 집을 떠난다. 이선은 위기에 처하지만 선계(仙界)의 도움으로 벗어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 돌아온 뒤 이선은 양왕과 화해하고, 매향을 둘째 부인으로 맞이한다. 이후 매향은 숙향과 의종게 지내며, 이선과의 사이에서 아들과 딸 여럿을 두고 다복하게 일생을 보낸다.

- ① 양왕의 태몽에 선관이 나타나 매향의 훗날을 예언하였다.
- ② 매향은 이선이 아니면 시집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 ③ 매향은 이선의 둘째 부인이 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 ④ 위왕은 혼약을 어긴 것에 대해 양왕에게 사과하였다.
- ⑤ 양왕은 매향의 일로 이선에게 앙심을 품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06학년도 6월 평가원

¹백호산군이 왈,

“²대개 만물의 경중을 알고자 할진대 저울만 같음이 없고, 송사의 곡직을 알진대 양쪽의 말을 들음만 같음이 없나니, 한 쪽의 말만 듣고 선불선(善不善)을 가별이 판결치 못할지라. ³소진*의 말로써 진나라를 배반함이 어찌 옳다 하며 장의*의 말로써 진나라를 섬김이 어찌 그르다 하리오. ⁴소장(訴狀) 양쪽의 말을 같이 들은 연후야 종횡을 쾌히 결단하리니, 다람쥐는 우선 옥으로 내리고 서대쥐를 즉각 잡아 와서 상대한 연후에 가히 밝게 분변하리라.”

하고, ⁵오소리와 너구리 두 형제로 하여금 서대쥐를 빨리 잡아 대령하라 분부하니 두 짐승이 명을 듣고 나올새 오소리가 너구리더러 일러 왈,

“⁶내 들으니 서대쥐 재물이 많으므로 심히 교만하매 우리 매양 괴악히 알아 버르던 바이러니, 오늘 우리에게 걸렸는지라. ⁷이놈을 잡아 우리를 괘시하던 일을 분풀이하고 또 소송당한 쪽 전례는 위에서도 아는 바라. ⁸수백 냥이 아니면 결단코 놓지 말자.”

⁹하고 둘이 서로 약속을 정하고, ¹⁰호호탕탕한 기분을 발호하고 예기는 맹렬하여 바로 구궁산 팔괘동에 이르러 토굴 밖에서 소리 높여 부르며 가로되,

“¹¹서대쥐 고소를 당함에 백호산군의 명을 받아 패자(牌子)*를 가지고 잡으러 왔나니 서대쥐는 빨리 나오고 지체 말라.” ¹²독촉이 성화 같은지라.

¹³비복들이 이 말을 듣고 혼백이 흩어져 버리는 듯 놀라서 급급히 들어가서 서대쥐께 연유를 고할새 서대쥐 호흡이 급해지고 땀이 배어 등을 적시는지라. ¹⁴모든 쥐들이 이를 보고 눈을 둥글고 두 귀 발록발록하여 허둥지둥하거늘 서대쥐 왈,

“¹⁵너희들은 놀라지 말라. ¹⁶옛말에 일렀으되 칼이 비록 비수라도 죄 없는 사람은 해치지 못한다 하였으니 우리 본디 죄를 범한 바 없는지라 무엇이 두려우리오.”

¹⁷인하여 자손과 노복쥐를 데리고 토굴 밖으로 나오니 오소리와 너구리가 서대쥐 나음을 보고 더욱 의기양양 하는지라. ¹⁸서대쥐 오소리를 보고 혼연히 웃어 가로되,

“¹⁹오 별감은 그 사이 평안하셨느뇨. ²⁰나는 층암절벽 한 곳에 토굴을 의지하고 그대는 천봉만학 절승처에 산군을 모시니 유현(幽顯)*의 길이 다른지라. ²¹마음은 항상 그옥하나 승안접사(承顔接事)*를 일차 부득하더니 오늘 관고(官故)로 말미암아 누추한 곳에 왕림하여 의외로 청안(淸眼)을 대하니 패자예차는 서서히 수작하려니와 일배 박주(薄酒)*를 잠깐 나누기를 바라노니 허락함이 어떠리오.”

²²오소리는 본디 마음이 순한지라, 서대쥐의 대접이 심히 관후함을 보고 처음에 발발하던 마음이 춘산에 눈 녹듯이 스러지는지라. ²³서대쥐더러 왈,

“²⁴우리 백호산군의 명을 받아 서대쥐와 다람쥐로 더불어 재판코자 하여 빨리 잡아오라 분부 지엄하니 빨리 행함이 옳거늘 어찌 조금이나 지체하리오.”

²⁵장지쥐 왈,

“²⁶오 별감 말씀이 옳은지라, 어찌 두 번 청함이 있으리오마는 성인도 권도(權道)함이 있나니 원컨대 오 별감은 두 번 살피라.”

고난도 고전 신문 정선
L L L L O L

²⁷모든 쥐들이 일시에 간청하며 서대주는 오소리의 손을 잡고 장자 쥐는 너구리를 붙들고 들어가기를 청하니, ²⁸너구리는 본래 음흉한 짐승이라 심중에 생각하되,

²⁹만일 들어가는 경우에는 죄인 다루는 데 거북할 테니 정신을 차려야 한다. ³⁰그리고 기왕 뇌물을 받으려면 툭툭히 실속을 차려야 한다.

³¹하며 소매를 떨치고 거짓 노왈,

³²관령은 지엄하고 갈 길은 멀고 날은 저물어 가는데 어느 때에 술 마시고 놀며 희롱하리오. ³³관령이 엄한 줄 알지 못하고 다만 일배 박주에 팔려 형장(刑杖)이 이 몸에 돌아오는 것은 생각지 못하는가. ³⁴나는 굴 밖에 있으리니 빨리 다녀오라.”

³⁵하고 말을 마치며 나와 수풀 사이에 앉아 종시 들어가지 않는지라. ³⁶서대주 이 말을 듣고 오소리더러 너구리를 청하라 권하매, ³⁷오소리 나아가 너구리를 이끌어 가로되,

³⁸서대주 이처럼 간청하거늘 어찌 차마 거절하리오. ³⁹잠깐 들어가 동정을 봄이 좋도다.”

⁴⁰너구리 가로되,

⁴¹그러면 ㉠전례는 어찌한다 하느뇨.”

⁴²오소리가 너구리 귀에 대고 대강 이르니, 너구리 그제야 오소리와 더불어 가니 화려한 누각이 굉장한지라. ⁴³전각에 올라 서대주와 더불어 좌정 후에 다람쥐 송사한 일을 두어 마디 수작하더니 얼마 안 되어 안으로서 주찬이 나오는지라. ⁴⁴잔을 잡아 서로 권할새 수십 배를 지난 후에, 장지쥐 화각(畫角) 모반에 황금 스무 냥을 담아 서대주 앞에 드리니, 서대주 황금을 가져 오소리 앞으로 밀어 놓으며 가로되,

⁴⁵이것이 대접하는 예는 아니나 서로 정을 표할 것이 없으며 마음에 심히 무정한코로 소소한 물건으로 옛정을 표하니 두 분 별감은 혐의치 말고 나의 적은 정성을 거두소서.”

⁴⁶오소리 웃으며 왈,

⁴⁷서대주의 관대함이 감사하던 중 이같이 후의를 끼치시니 받는 것이 온당치 못하오나 감히 물리치지 못할지라. ⁴⁸그러나 서대주는 조금도 염려치 말고 다람쥐와 결송케 하면 내일 재판할 때에 우리 둘이 집장(執杖)할 터이니 어찌 다람쥐를 중죄(重罪)하여 서대주의 분풀이를 못하리오.”

하고 인하여 서대주와 더불어 떠나더라.

- 작자 미상, '서동지전(鼠同知傳)'

- * 소진, 장의: 중국 전국시대에 활약한 달변의 정치가.
- * 패자: 지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주는 글.
- * 유현: 사람의 눈에 띄지 아니하는 곳과 눈에 띄는 곳.
- * 승안접사: 웃어른을 만나 뵙는 일.
- * 박주: 맛이 좋지 못한 술.

88.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의 직접 개입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② 인물이 처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회상 형식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있다.
- ④ 섬세하고 치밀한 묘사로 비장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⑤ 사건 전개에 따른 인물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89. 작중 인물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대주: 두 형졸에 대한 나의 대접이 소홀하여 부끄럽다.
- ② 백호산군: 다람쥐 말만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③ 너구리: 이 기회에 서대주에게 돈을 뜯어내야겠다.
- ④ 장지쥐: 형편에 따라 원칙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 ⑤ 오소리: 평소 서대주의 행실이 불만스러웠다.

90. ㉠에 내포된 의미로 알맞은 것은?

- ① 죄를 자백하겠다고 하는가?
- ② 음식은 준비했다고 하는가?
- ③ 재물을 바치겠다고 하는가?
- ④ 재판정에 나가겠다고 하는가?
- ⑤ 교만함을 사죄하겠다고 하는가?

91. 위 글을 읽고 나서 보인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실성 없이 겉과 속이 다른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두었군.
- ② 관(官)의 힘에 기대어 위세를 부리는 인물을 풍자하고 있군.
- ③ 인정세태를 그리기 위해서 동물을 주인공으로 삼는 기법을 사용했군.
- ④ 돈의 힘을 알고서 능란하게 쓸 줄 아는 인물의 처세를 보여주고 있군.
- ⑤ 절차를 까다롭게 하여 백성을 괴롭히는 재판 제도의 불합리성을 비판하고 있군.

92. <보기>를 참고했을 때, 위 글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의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소설은 시대와 현실을 반영한다. 새로운 유형의 소설이 등장하는 것은 현실의 변화와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다. 조선 후기에 계모와 전처 자식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한 계모형 가정소설이 크게 유행하게 되는데, 장화홍련전은 그 대표작으로 꼽힌다. 다양한 판본과 아류작을 파생시킨 장화홍련전은 계모의 인물형을 소설 속에서 본격적으로 정립한 작품이다.

- ① 작품에 나타나는 계모의 이미지와 당대 현실에서의 계모의 이미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 ② '홍녀'로서의 계모와 박해 받는 존재로서의 장화·홍련의 이미지가 이 작품의 결말에서는 어떻게 달라질까?
- ③ 작품에서 드러나듯 '홍녀'로 지칭되는 계모라는 인물형이 조선 후기에 서사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 ④ 계모형 가정 소설이 유행했던 조선 후기 시대 상황과 장화·홍련이 계모에 의해 죽게 되는 작품 속 상황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 ⑤ 계모형 가정 소설의 특징인 계모와 전처 자식 간의 갈등이 작품에서는 장식과 전처 자식 간의 갈등으로 변화된 이유는 무엇일까?

고난 고전 신문 정선
L L L L O L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2006학년도 4월 경기도 교육청

[아전 줄거리] ¹예방 소임을 맡아 제주에 온 배비장은 어머니와 부인에게 여자에 절대 빠지지 않을 것을 굳게 약속하고 하인에게까지 큰소리친다. ²그러나 제주 목사의 지시로 나타난 기생 애랑을 보자 한 눈에 반하고 만다. ³배비장이 어쩔사리 애랑과 만나 정을 나누려고 하는 순간 방자가 밖에서 여인의 남편 흥내를 내며 호통을 치자, 경황이 없어 애랑이 숨으라는 피나무 껍질에 숨는다.

⁴이 때 궤 속에 든 배비장 그 말 듣고 탄식하되,

“⁵인제는 바로 화장(火葬)한다. ⁶이 일을 어찌할꼬?”

⁷저 계집도 악을 쓰며 하는 말이,

“⁸조상(祖上)에서 전래(傳來)하온 기물(器物)이라 소중한 저 궤 속에 업귀신(業鬼神) 들어 있어 우리 집 여러 식구 먹고 입고 쓰고 남을 업궤(業櫃)*을세. 불사르진 못하오리.”

⁹방자가 화를 내어 하는 말이,

“¹⁰네 행실 저러하니, 너 데리고 못 살겠다. ¹¹집안의 세간살이 귀치 않고 예쁘고 젊은 첩인 너도 싫다. ¹²업궤(業櫃) 하나 가졌으면 내 어디 가서 못 살쪼냐.”

¹³하더니 그 궤를 걸머지고 나서면서 이른 말이,

“¹⁴이년, 정든 본 남편 날 버리고 새서방을 네 취하니, 재산 차지 잘 살아라.”

¹⁵저 여인 궤를 붙들며 하는 말이,

“¹⁶업궤는 임자가 가져가면 나는 폐가(廢家)하라는가? ¹⁷이 궤는 못 놓겠네. ¹⁸재산 차지 임자가 하고 업궤란 나를 주소.”

¹⁹저놈 하는 말이,

“²⁰그럴 터면 양편이 가난치 않게 이 업궤 한가운데 먹줄 맞춰 갈라내어, 한 도막씩 가졌으면 그 아니 평균할까? ²¹톱 대어라. 갈라 보자.”

²²하더니 대톱 들어 마주잡고

“²³다리어라 톱질이야. ²⁴슬근슬근 다리어라. ²⁵행실 부정(行實不貞) 몸 쓸 년을 내 모르고 두었더니, 오늘이야 알았구나. ²⁶월로결승(月老結繩) 처음 연분(緣分)** 이 톱으로 잘 켜 보자. ²⁷이 궤를 갈라내어 윗도막은 너를 주고 아랫도막 내 가지면, 나는 소부(小富) 되고 너는 대부(大富) 되어 분복(分福)대로 각기 살자. ²⁸이 톱 바빠 다리어라.” ²⁹좌르르 점점 내려가니 배비장 궤 속에서 아랫싸 벌써 톱밥이 드는데, ³⁰인제는 바로 허리를 자르는구나 겁결에,

“³¹여보소 미련하오. ³²하룻밤을 자도 만리성(萬里城)을 쌓는다는데, 살던 계집 그 궤 모두 주오. ³³도막 자르면 반실(半失) 아니 되오?”

³⁴이 놈이 톱 내던지고 하는 말이,

“³⁵아랫싸 업궤신(業櫃神)이 살아나서 사람이 되었으니 화침(火針)으로 찌르자.”

³⁶하고 끝 좋은 가락꽃이***를 불에 달구어 쑥 찌르니, 배 비장의 왼편 눈으로 내려온다.

³⁷배비장 기가 막히어 아랫싸, 인제는 생죽음을 하나 보다. ³⁸죽기는 일반이니 악이나 써 보리라 하고,

“³⁹여보, 아무리 무식하기로 눈동자가 가장 중하지 아니하오?”

⁴⁰이놈이 화침(火針)을 내던지고 하는 말이,

“⁴¹에그 궤신(櫃神)이 저 상할 줄 미리 알고 애걸(哀乞)하니 정상(情狀)이

가금(可矜)이라. ⁴²제 몸 상치 않게 궤째 저다 물에 넣으리라.”

⁴³하고 질방 걸어 궤를 지고 문을 열며 썩 나서서 노래하되, 상두꾼의 소리로 하던 것이었다.

(중략)

“⁴⁴하늘이 도우신가? ⁴⁵헌원씨(軒轅氏) 배를 만들어 다 통하도록 건네준 뜻은 날 살리란 배 아닌가? ⁴⁶물에 죽을 나의 목숨 살려 적덕(積德)이니, 적덕으로 날 살리오.”

⁴⁷그 사령(使令) 하는 말이,

“⁴⁸우리 배에는 부정 탈까 못 올리겠고, 궤 문이나 열어 줄 것이니, 능히 해어 갈까?”

“⁴⁹글랑은 염려 마오. ⁵⁰내가 용산(龍山) 삼개 왕래할 제 개헤엄 날이나 배웠소.”

“⁵¹이 물은 잔물이라, 눈에 들면 멀 것이니 감고 헤자.”

“⁵²눈은 생전 멀지라도 목숨이나 살려 주오.”

⁵³그 사령 하는 말이,

“⁵⁴그릴 지경이면, 눈이 멀지라도 날 원망은 마시오.”

⁵⁵하고 함장같이 잠긴 금거북 쇠를 톱 쳐 열어 놓으니, 배비장이 알몸으로 썩 나서며 그래도 소경될까 염려하여 두 눈을 잔뜩 감으며 이를 악물고 월각 냇다 쪼으면서 두 손을 허위적허위적 해어 갈 제 한 놈이 나서며, “⁵⁶이리 헤자.”

⁵⁷한참 이 모양으로 해어 갈 제 동헌(東軒) 댕돌에다 대궁이를 딱 부딪치니, 배비장이 눈에 불이 반짝 나서 두 눈을 뜨며 살펴보니, 동헌(東軒)에 사또 앉고 대청(大廳)에 삼공형(三公兄)이며 전후 좌우에 기생들과 육방 관속(六房官屬) 노령배(奴令輩)****가 일시에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참는 것이 웃음이라

⁵⁸사또 웃으면서 하는 말이,

“⁵⁹“자네 저것이 웬 일인고.”

⁶⁰배비장 어이없어 고개를 숙이고 여쭙오되,

“⁶¹소인의 선산(先山)이 동소문(東小門) 밖이옵더니, 근래 서남풍이 들어 이 지경 되었나이다.”

- 작자 미상, ‘배비장전’

* 업궤(業櫃) : 업보(業報) 귀신이 든 궤

** 월로결승(月老結繩) 처음 연분(緣分) : 월하노인이 맺어준 처음 인연

*** 가락꽃이 : 물레질할 때 실이 감기는 쇠꼬챙이

**** 노령배(奴令輩) : 지방 관아의 관노와 사령들

93. 위 글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과 악의 대결에서 선이 이길 수밖에 없음을 보여 주는 작품이야. 세상 일은 결국 바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야.
- ② 신분 상승에 대한 지나친 욕망을 비판한 작품이야. 권력에 대한 집착은 결국 인간의 본성을 왜곡하고 마는 거야.
- ③ 무위도식하는 인간의 사회적 해악을 지적하는 작품이야. 사회적 비용만 축내며 행세하는 사람들은 추방되어야 해.
- ④ 교활한 인간의 비참한 말로를 보여주는 작품이야. 출세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사람은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야.
- ⑤ 허세를 부리는 인간의 가식적인 모습을 비꼰 작품이야. 이중성을 지닌 인물은 언젠가는 그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

94. 위 글의 등장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또’는 사건의 해결을 주도한다.
 ② ‘방자’는 희극적 상황을 유도한다.
 ③ ‘애랑’은 인물 간의 갈등을 해소한다.
 ④ ‘배비장’은 독자의 웃음을 유발한다.
 ⑤ ‘사령’은 인물을 희화화하는 데 기여한다.

95. 위 글을 마당극으로 무대에 올릴 때, 구상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극적 효과를 살리기 위해 상황에 어울리는 장단을 준비하는 게 좋겠어.
 ② 대사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 해학성을 드러내는 게 좋겠어.
 ③ 중간 중간에 서술자 역할을 하는 인물을 투입해 보는 것도 어울리겠어.
 ④ 무대는 관객들에게 현장감을 주기 위해 바다를 배경으로 꾸미는 게 좋겠어.
 ⑤ 희극적 효과를 드러내기 위해 능청스럽게 연기할 수 있는 배우가 필요하겠어.

96. ㉠의 말하기 방식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내가 누구인고?”
 흥부는 기가 막혀 대답하되,
 “내가 흥부올시다.”
 놀부가 소리질러 가로되,
 “흥부가 어떤 놈인가?”
- ② “당신 평생 과거(科擧)를 보지 않으니, 글을 읽어 무엇합니까?”
 허생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아직 독서를 익숙히 하지 못하였소.”
 “그럼 장인바치 일이라도 못 하시나요?”
- ③ “네 고을에 양이가 있느냐?”
 이방이 아뢰되,
 “소인 고을에 양은 없사와도 염소는 한 이십마리 있나이다.”
 신관이 하는 말이,
 “없다, 이놈아! 가생에 양이가 있느냐?”
- ④ “인제도 웅가라 하겠느냐?”
 실웅가 생각하되, 만일 웅가라 하다가는 곤장 밑에 죽을 듯하니,
 “예, 웅가 아니오 처분대로 하옵소서.”
 아전(衙前)이 호령하여,
 “장채 안동하여 저놈을 월경(越境)하리라.”
- ⑤ 여우 어이없어 물러앉으며 가로되,
 “그러하면 존장은 하늘 구경도 하셨나이까?”
 두꺼비 왈,
 “너는 하늘 구경하였는가?”
 여우 왈,
 “하늘은 구경한 지 오래지 않으니 삼년 삼일에 보았노라.”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06학년도 7월 인천 교육청

[앞 부분의 줄거리] ¹정유재란으로 헤어졌던 최척과 아내 옥영은 3국(일본, 중국, 조선)을 헤맨 끝에 중국에서 다시 만나 둘째 아들 몽선을 낳는다. ²그 후 최척은 전쟁에 나갔다가 헤어졌던 큰아들(몽석)을 만나서 함께 조선으로 돌아가게 된다. ³그 뒤 옥영은 남편을 찾아 둘째 아들 내외(몽선, 홍도)를 데리고 조선으로 향한다.

⁴그날 늦은 저녁에 예상치도 못한 마파람이 심하게 불어왔다. ⁵검푸른 파도가 배보다 높이 솟아올랐고 순식간에 안개가 사방으로 번져 지척을 분간할 수 없었다. ⁶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배를 뒤흔드는 바람에 돛은 찢어지고 노는 부러져 나갔다. ⁷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⁸뱃길을 헤쳐 나가는 데 노련한 재주를 가진 옥영도 그 상황에서는 어찌 해볼 도리가 없었다. ⁹몽선 부부는 놀람과 어지럼증에 시달리느라 배 구석에 처박혀 꼼짝 못하는데 옥영은 이리저리 휘둘리는 몸을 세워가면서 홀로 염불을 외었다.

‘¹⁰부처님, 저희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¹¹얼마나 지났을까, 언제 그랬냐는 듯 풍량이 잦아들기 시작하자 거의 부서지기 일보 직전에 놓인 배는 새까만 바닷물과 어둠을 삼키며 어디론가 흘러갔다. ¹²기진맥진한 세 사람은 목표도 없이 떠가는 배에 몸을 싣고 있었다.

¹³그들은 새벽 동이 틀 무렵 어느 작은 섬에 겨우 닿았다. ¹⁴파손된 배를 고치느라 머물고 있던 어느 날 기이한 모습을 한 배 한 척이 홀연히 모습을 드러내었다. ¹⁵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낀 옥영은 몽선 내외를 불러 배 안에 남아있는 물건들을 가리지 말고 자루에 담아 바위 동굴로 옮기게 하였다.

¹⁶몽선 부부가 서둘러 그것들을 다 옮기고 나서 한숨 돌리려는데 그들의 배는 마치 날아온 듯 섬에 닿았다. ¹⁷그리곤 그 안에서 시꺼먼 뱃사람들이 썰라대며 쏟아져 나왔다. ¹⁸말이나 옷차림으로 보아 그들은 조선인이나 일본인은 아니었다. ¹⁹아마도 중국 어느 변방의 말 같았는데 병기는 지니지 않았으나 저마다 흰 몽둥이를 쳐들고 수리 중인 옥영의 배에 오르더니 화물(貨物)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²⁰옥영이 중국말로 말하였다.

“²¹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²²고기를 잡으려고 바다에 나왔다가 표류하여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²³뭍 그리 찾으시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제 배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²⁴표류하는 동안에 다 잃었으니까요.”

²⁵옥영의 배에서 아무 것도 건지지 못한 그들은 옥영을 향해 눈을 부라리며 때리려는 행동을 취했다. ²⁶그러더니 해하지는 않고 옥영의 망가진 배를 빼앗아 자기들의 배 뒤꽂무니에 묶어서 끌고 가버리는 것이었다. ²⁷그나마 망가진 배라도 있을 때에는 살아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배마저 잃자 허탈에 빠진 옥영은 그대로 땅바닥에 주저앉아 마른 울음을 울 뿐이었다. ²⁸바위 동굴에 숨어 있던 몽선과 홍도는 뛰어나와서 사시나무 떨 듯 하는 옥영을 끌어안고 위로했다.

“²⁹어머니 걱정 마세요. ³⁰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갈 수 있을 거예요. ³¹이러다가 어머니의 마음이 상해버린다면 저희 어떡합니까?”

³²옥영의 눈동자는 다 풀려있었고 반쯤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았다. ³³그러다가 혼잣말을 하듯 웅얼거렸다.

고난 고전 신문 정선

[A] “³⁴저들은 필시 해적들이야. ³⁵해적들의 거점지가 중국과 조선 사이 어디쯤 있다던데. ³⁶그나저나 이 꼴이 뭐냐. ³⁷내가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일을 저질렀다가 이런 낭패를 당하고 말았으니 면목이 없구나. ³⁸이젠 배마저도 없으니 어찌해야 좋을꼬. ³⁹날아서 바다를 건널까, 뗏이파리에 의지할까, 구름 뗏목이라도 띄울까 흐흐흐...”

⁴⁰바닷가는 순식간에 옥영의 통곡 소리로 그득 찼다. ⁴¹처량한 그 소리는 겹겹이 밀려드는 파도에 휘말렸다 다시 먼 바다로 쓸려나가곤 하였는데 갈매기들도 그들의 애통함을 아는지 머리 위에서 빙빙 돌며 오래 머물렀다. ⁴²한참을 울어댄 옥영은 벌떡 일어서더니 아들 내외가 말릴 새도 없이 절벽으로 마구 기어 올라갔다. ⁴³그리고 거기서 바다를 향하여 뛰어내리려 하였으나 급히 뒤쫓아온 몽선의 만류로 주저앉고 말았다.

“⁴⁴애들아, 나는 죄인이니 말리지 말거라. ⁴⁵자루에 남아 있는 식량으로는 사흘 정도밖에 못 버틴다. ⁴⁶쓸모없는 늙은이가 어찌 그 귀한 식량을 축내고 있겠느냐.”

[B] “⁴⁷어머니, 우리가 떠나오기 전에 이런 말씀 하셨지요? ⁴⁸설혹 불행한 일을 당한다 해도 벗어날 방도가 어찌 없겠느냐고 말입니다. ⁴⁹어머니, 죽는 것은 식량이 다 떨어진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⁵⁰만약 그 사이에 살아날 길이 생기더라도 한다면 그 얼마나 후회막급한 일이겠습니까. ⁵¹그러니 제발 다른 생각은 마십시오. ⁵²어머니가 정히 그러시겠다면 저희도 같이 죽겠습니다.”

⁵³옥영은 몽선과 홍도의 간절한 설득에 자신의 뜻을 접고 부축을 받으며 내려와 바위 동굴에서 잠을 이루었다. ⁵⁴어느덧 새벽 바다에 해의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⁵⁵곧이어 바다 밑에서부터 솟아오른 거대한 붉은 꽃잎이 서서히 온 세상을 끌어안아 가는 광경을 우두커니 바라보던 옥영은 아들 내외를 돌아보며 조용히 말하였다.

“⁵⁶애들아, 내가 기진맥진한 채 잠이 들어서 그랬는지 꿈속에서도 마냥 방황을 하지 않았겠느냐. ⁵⁷그런데 장육금불께서 또 모습을 드러내셨구나.”

⁵⁸그러자 홍도가 몸을 반쯤 일으키며 물었다.

“⁵⁹이번에는 뭐라 하시던가요?”

“⁶⁰그 분께서는 ‘죽으려 하지 말거라, 잘 살아 남는다면 훗날에 좋은 일을 보게 될 것이니라.’ 라고 하시더라. ⁶¹참 이상도 하시지.”

⁶²세 사람은 둘러앉아 정성을 다하여 염불을 외며 발원을 하였다.

“⁶³부처님아시여! 저희를 가엾이 여기시어 구렁에서 구해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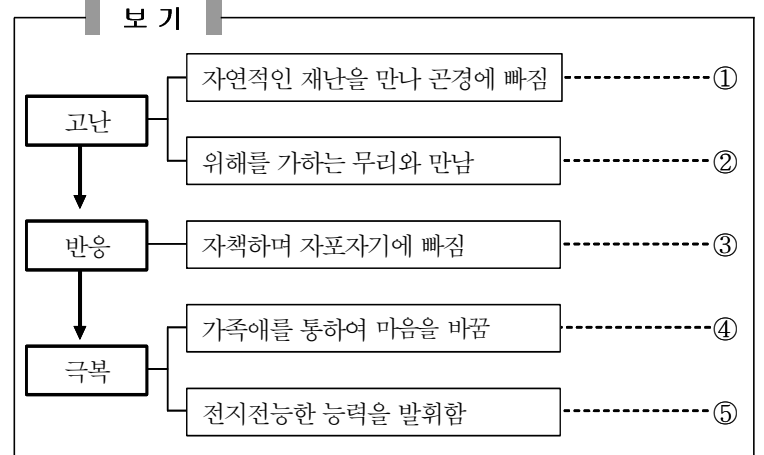
⁶⁴이들이 지났을 때였다. ⁶⁵부드러운 봄바람을 가르며 큰 돛을 단 배 한 척이 섬 앞을 지나가고 있는 게 보였다. ⁶⁶몽선이 깜짝 놀라 어머니를 불러 보게 하였다. ⁶⁷손 차양을 하고서 지켜보던 옥영은 밝게 웃음을 지었다.

“⁶⁸깃발이나 배 모양새로 보아 저것은 조선 배가 틀림없다. ⁶⁹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 것 같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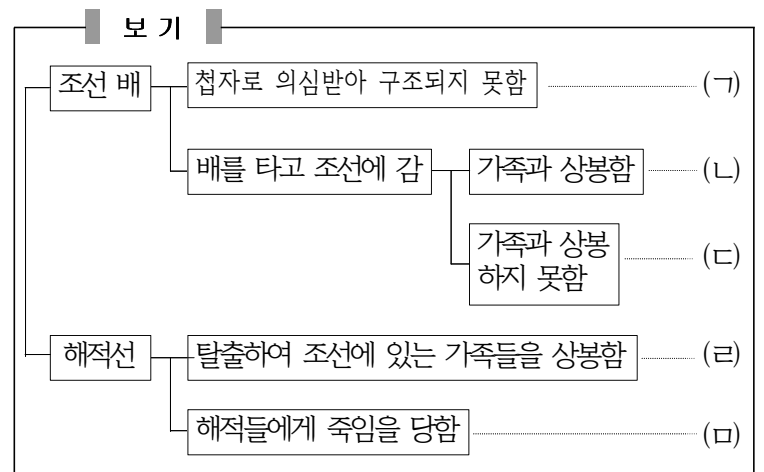
⁷⁰그들은 서둘러 조선 옷으로 갈아입었다. ⁷¹그리고 몽선이 높은 데로 올라가 소리소리 지르며 양팔로 옷가지를 흔들어댔는데 다행히도 그러한 모습이 눈에 띄었던지 ⑦그 배는 몸체를 돌려서 그들이 있는 섬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 조위한 ‘최척전’

97. 위 글의 내용을 ‘옥영’을 중심으로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98. <보기>는 ㉠ 이후의 사건 전개를 여러 방향으로 구상해 본 것이다. (㉠)~(㉡) 각각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효과를 잘못 설명한 것은?



- ① (㉠) : 기대했다가 좌절을 맛보는 인물들의 심리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② (㉡) : 행복한 결말로서의 구조를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③ (㉢) : 인물 간의 새로운 갈등 관계를 예고하여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④ (㉣) : 역경을 이겨내는 인물의 의지적인 면모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⑤ (㉡) : 계속되는 시련으로 인물의 비극적 처지를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고난 고전 신문 정선
L L L L O L

99. 위 글이 <보기>의 글을 참고하여 쓰였다고 가정할 때, 이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 때 홍도는 가산을 정리해서 조그만 배 한 척을 마련해 가지고 아들 몽진과 며느리를 데리고 중국을 떠났다. 그는 중국 복색, 조선 복색, 또는 일본 복색을 각각 준비했다. 중국 사람을 만나면 중국 사람이라고 속이고, 일본 사람을 만나면 일본 사람이라고 속였다. 두 달 만에 제주도 앞 가카도에 닿았다. 남은 양식은 겨우 7홉뿐이었다.

홍도가 몽진을 보고 말했다.

“우리가 배 안에서 굶어 죽으면 마침내 물고기의 밥이 되고 말 것이니 섬으로 올라가 목을 매어 죽는 것이 낫겠다.”

그러나 며느리가 반대했다.

“우리가 한 홉 쌀로 죽을 쑤어 먹으면 하루는 살 수가 있습니다. 하오니 이 쌀을 가지고 7일 동안은 지탱이 됩니다. 그리고 저 동쪽에 은은히 육자가 보이는 듯하오니 좀 참고서 삶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그동안에 다행히 지나가는 배를 만나서 육지로 건너 갈 수가 있으면 십중팔구는 살 가망이 있는 게 아닙니까?”

홍도는 이 말을 좇았다. 그리고 5, 6일 지냈다. 하루 먹을 양식이 남았을 뿐이다. 이때 통제사의 사수선이 그 근처에 와 닿았다.

- 홍도전

- ①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의 구도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 ② 고난을 극복해 나간다는 이야기의 기본 구조를 그대로 살렸다.
- ③ 인물 간의 대화 내용을 확장하여 인물들의 고난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 ④ ‘어머니, 며느리’에 해당하는 인물의 성격에 변화를 주어 인물 간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 ⑤ 초월적 존재가 꿈에 나타나는 내용을 추가하여 이어질 내용을 암시하고자 하였다.

100. [A]와 [B]에서 ‘옥영’과 ‘몽선’이 나눈 대화의 특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옥영은 현실의 처지를 과장해서 말하였고, 몽선은 사태의 심각성을 축소해서 말하였다.
- ② 옥영은 현실의 상황을 우회적으로 말하였고, 몽선은 현실의 상황을 직설적으로 말하였다.
- ③ 옥영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여 말하였고, 몽선은 현실 상황을 중심으로 말하였다.
- ④ 옥영은 현실 상황에 대해 비관적인 태도로 말하였고, 몽선은 낙관적인 태도로 말하였다.
- ⑤ 옥영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말하였고, 몽선은 주관적인 입장에서 사태를 과장해서 말하였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06학년도 10월 서울시 교육청

①이두병이 황제라 자칭하고, 국법을 새로이 하여 각국 여러 고을에 공문을 보내고 벼슬도 높이는지라. ²신하들이 모여 동궁(東宮)을 폐하여 외객관에 내치니, 시중(侍中) 빈환(嬪嬙)이며 내외궁(內外宮) 노비 등이 하늘에 호소하고 땅에 고하며 망극 애통하니, 창천(蒼天)이 호통치고 백일(白日)이 빛을 잃더라.

³이때에 왕 부인이 이러한 변을 보고 크게 놀라 왈,

“⁴응당 죽으리로다.”

하며, 밤낮으로 하늘을 향하여 축원하여 왈,

“⁵웅의 나이 팔 세라. ⁶죄 없는 것을 살려 주소서.”

하며 애걸하니, 그 정상(情狀)을 차마 보지 못할러라.

⁷웅이 모친을 붙들고 만 가지로 위로 왈,

“⁸모친은 불효자를 생각지 마옵시고 천금같이 귀한 몸을 안보(安保) 하소서. ⁹꿈 같은 세상에 유한한 간장을 상하게 말으소서. ¹⁰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것은 제왕도 면치 못하옵거늘, 어찌 한 번 죽음을 면하리까? ¹¹짐작하옵건대 이두병은 우리 원수요 우리는 저의 원수 아니오니, 어찌 조웅이 이두병의 칼에 죽사오리까? ¹²조금도 염려치 말으소서.”

¹³하며, 분기를 참지 못하더라.

¹⁴이때 이두병이 장자(長子) 관으로 동궁을 봉하고 국호를 고쳐 평순 황제(平順皇帝)라 하고, 연호를 바꾸어 건무(建武) 원년이라 하다.

¹⁵이때에 송 태자(太子)를 외객관에 두었더니, 신하들이 다시 간하여 태산 계량도에 귀양 보내어 소식을 끊게 하니라.

¹⁶이 날 왕 부인 모자 태자의 귀양 감을 듣고 망극하여,

“¹⁷우리 도망하여 태자를 따라 사생을 함께 하고 싶으나, 종적이 드러나면 지레 죽을 것이니 어찌 하리오?”

¹⁸하며 모자 주야 통곡하더니, ¹⁹하루는 웅이 황혼에 명월을 대하여 복수할 모책(謀策)을 생각하더니, 마음이 아득하고 분기탱천한지라. ²⁰우울한 심사를 참지 못하여 부인 모르게 중문에 내달아 장안 큰길로 두루 걸어 한 곳에 다다르니, ²¹아이들이 모여 시절 노래를 부르거늘 그 노래에 하였으되,

²²국파군망(國破君亡)에 무부지자(無父之子) 나시도다.

²³문제(文帝)가 순제(順帝) 되고 태평이 난세로다.

²⁴천지가 불변하니 산천을 고칠쏘냐.

²⁵삼강(三綱)이 불퇴(不退)하니 오륜(五倫)을 고칠쏘냐.

²⁶맑고 밝은 하늘에서 부슬비 내림은

²⁷충신 원루(怨淚) 아니시면 소인의 시샘이로다.

²⁸슬프다 창생(蒼生)들아, 오호(五湖)에 편주(扁舟) 타고

²⁹사해(四海)에 노닐다가 시절을 기다려라.

³⁰웅이 듣기를 다함에 분을 이기지 못하고 두루 걸어 경화문에 다다라 대궐을 바라보니, ³¹인적은 고요하고 달빛은 만정(滿庭)한데, 오리와

고난 고전 신문 정선

기러기는 연못에 떠다니고, 십 리나 되는 정원 안에 전조(前朝)의 경물(景物) 아님이 없는지라. ³¹전조의 일을 생각하니 일편단심에 구비구비 쌓인 근심 갑자기 일어나는지라. ³²낮은 담장을 넘어 들어가 이두병을 대하여 사생을 결단코자 싶으되, 강약부동(強弱不同)이라. ³³문 안에 군사 많고 문이 굳게 닫혔는지라, 할 수 없어 그저 돌아서며 ㉠분을 참지 못하여 붓을 내어 경화문에 대서특필(大書特筆)하여, 이두병을 욕하는 글을 지어 쓰고 자취를 감추어 돌아오나라.

㉡이 날 왕 부인이 등불 아래 일몽(一夢)을 얻으니, 조 승상이 들어와 부인의 몸을 만지며 가로되,

“³⁵부인이 무슨 잠을 이리 깊이 자나이까? ³⁶날이 새면 큰 환란을 당할 것이니, 웅을 데리고 급히 도망하소서.”

³⁷하거늘, 부인이 망극하여 묻되,

“³⁸이 깊은 밤에 어디로 가리이까?”

³⁹승상 가로되,

“⁴⁰수십 리를 가면 자연 구할 사람이 있을 것이니 급히 떠나소서.”

⁴¹하거늘, 놀라 깨달으니 남가일몽이라. ㉢웅을 찾으니 또한 없는지라, 대경실색하여 문 밖에 내달아 두루 살펴보니 인적이 없는지라. ⁴³정신이 창황하여 이속하도록 중문을 바라보더니, 웅이 급히 들어오거늘,

⁴⁴부인이 놀라 묻되,

“⁴⁵이 깊은 밤에 어디를 갔느냐?”

⁴⁶웅이 이르되,

“⁴⁷마음이 산란하여 달빛을 따라 거리를 배회하다가 돌아오니이다.”

⁴⁸부인이 목이 매어 가로되,

“⁴⁹아까 한 꿈을 얻으니 네 부친이 와 이리이리 하니, 가다가 죽을지라도 어찌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리오. ⁵⁰바빠 행장을 차리라.”

⁵¹한대, 웅이 놀라 이르되,

“⁵²소자 아까 나가 동요를 듣사오니 이리이리하옵거늘, 분두(忿頭)에 경화문에 다다라 이리이리 쓰고 왔나이다.”

⁵³부인이 크게 놀라 꾸짖어 가로되,

“⁵⁴어린 아이 이렇듯 일을 망령되이 하느냐? ⁵⁵그렇지 아니하여도 마음이 우물가에 어린 아이 섬 같거늘, 어찌 그리 경홀하냐? ⁵⁶새는 날 그 글을 보면 경각에 죽을 것이니 바빠 행장을 차려 도망하자.”

하고, ⁵⁷약간의 의복과 행장을 모자 힘대로 가지고 바로 충렬묘에 들어가니, ㉤화상(畫像)의 얼굴이 붉고 땀이 나 화안(畫顔)을 적셨거늘, 모자 나아가 안하(案下)에 엎드려 크게 울지는 못하고 체읍(涕泣)하여 가슴을 두드리며 애통하니, 그 정상이 가련 가금(可憐可矜)한지라.

- 작자 미상, '조웅전'

101. 위 글에 나타난 '웅'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
- ② 모친의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 ③ 동지를 규합하여 장차 벌어질 싸움에 대비하고 있다.
- ④ 현재의 집권 세력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⑤ 복수심에 불타지만 현재로서는 역부족임을 느끼고 있다.

102. ㉠~㉤를 제대로 이해한 반응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 사건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어.
- ② ㉡: 정경을 동적인 이미지로 묘사하여 공간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어.
- ③ ㉢: 꿈이 갖는 예언적 기능을 활용하여 이후의 사건 전개를 암시하고 있어.
- ④ ㉣: 상황의 화급성과 시간의 흐름을 관련지어 인물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 ⑤ ㉤: 초현실적 내용의 묘사에서 당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짐작할 수 있어.

103. <보기>에 나타난 이야기 구조를 위 글과 비교하여 이해할 때, 위 글에 나타나 있지 않은 이야기 요소는?

보 기

진성 여왕이 임금인 된 지 몇 해 만에, 유모 부호(豊好) 부인과 위홍(魏弘) 각간 등 서너 명의 신하가 정권을 잡고 권력을 휘두르니 도적들이 사방에서 일어났다. 나라 사람들이 걱정하여 이에 다라니(陀羅尼)의 은어를 지어 길거리에 써 붙였다. 왕과 권신들이 이를 얻어 보고 이르기를, “왕거인(王居仁)이 아니면 누가 이러한 글을 지으리오” 하고 거인을 감옥에 가두었다. 거인이 시를 지어 하늘에 호소하니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이로 인해 방면하였다.

- '삼국유사'

- ① 불의(不義)한 세력의 전횡
- ② 민심의 동향
- ③ 불의에 대한 고발
- ④ 의인(義人)에게 닥친 위기
- ⑤ 절대자에 의한 구원

104. ㉠에서 '웅'이 쓴 글을 추측하여 지어 보려고 한다. <보기>의 조건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은?

보 기

- 당면 현실에 대한 '웅'의 태도와 결의가 드러나도록 한다.
- 비유적 표현으로 의미가 우회적으로 드러나도록 한다.

- ① 열흘 붉은 꽃이 없음을 그대들은 알지 못하는가. 천하 백성들의 울음을 그대들은 듣지 못하는가. 강보에서 막 벗어난 나도 아는 이치(理致)이고 들을 수 있는 소리이거늘 하물며 그대들 같음에랴.
- ② 국가를 찬탈한 역도들은 들으라. 너희들의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도다. 전죄를 깊이 뉘우쳐 살기를 도모할진대 어진 황제께서 어찌 엄하게 처분하시겠는가. 다만 때를 잃지 않기를 바라노라.
- ③ 도적이 발호하여 도성이 깨어져도 산과 강만은 의구하구나. 봄이 와 초목이 우거졌는데 도적의 말발굽 소리만 요란하도다. 시절을 헤아려보니 꽃을 봐도 눈물이 쏟아지고, 이별한 임 생각에 새소리에도 놀라는구나.
- ④ 한 조각 먹구름이 천하를 어지럽히고 있도다. 중천의 해와 달을 가리우니 산천초목이 분노하도다. 잔바람에도 구름은 티끌같이 흩어지는 법. 하물며 만인 공분의 폭풍임에랴. 내 기꺼이 그 바람 되어 밝은 날을 보리라.
- ⑤ 앞을 바라보고 뒤를 돌아보니 나라의 혼란이 극에 달했음을 보도다. 그 누가 의(義) 아니면 가히 쓸 수 있겠으며, 그 누가 선(善)이 아닌데 가히 복종할 수 있으랴. 내 아직 어리고 미비하나 장차 기필코 정도(正道)를 보려함이라.

고난도 고전 산문 정선
L L L L O L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07학년도 수능

(가) [중모리] ¹창황분주 도망을 갈 제 새만 푸루루루루 날아 나도 북병인가 의심하고, ²낙엽만 퍼뜩 떨어저도 추병인가 의심하여, ³앞어지고 자빠지며 오림산 험한 산을 반생반사 도망을 간다.

(나) [아니리] ⁴조조(曹操) 가다 목을 움쭙움쭙하니 정욱(程昱)이 여자 오되,

⁵“승상님 무게 많은 중에, 말 허리에 목을 어찌 그리 움치시나이까?”

⁶“아야, 화살이 귀에서 앵앵하며 칼날이 눈에서 번뜻번뜻 하는구나.”

⁷“이제는 아무 것도 없사오니 목을 늘어 사면을 살펴보옵소서.”

⁸“아야, 진정으로 조용하냐?”

⁹조조가 목을 막 늘어 좌우 산천을 살펴보려 할 제, ¹⁰의외에 말 굽통 머리에서 메추리 푸루루루 하고 날아 나니 조조 깜짝 놀라,

¹¹“아이이고 정욱아, 내 목 떨어졌다. 목 있나 보라.”

¹²눈치 밝소 ¹³조조만한 메추리를 보고 놀랄진대 ¹⁴큰 장끼를 보았으면 기절할 뻔하였소그려.”

¹⁴조조 속없이,

¹⁵“야 그게 메추리냐? ¹⁶그놈 비록 자그마한 놈이지만 냄비에다 물 붓고 갖은 양념 하여 보글보글 볶아 놓으면 술안주 몇 점 참 맛있느니라만.”

¹⁷입맛은 이 통에라도 안 변하였소그려.”

¹⁸조조가 좌우 산천을 살펴보니,

(다) [중모리] ¹⁹산천은 험준하고 수목은 총잡한데, ²⁰꿀짜기 눈 쌓이고 봉우리 바람 칠 제, ²¹화초 목실 없었으니 앵무 원앙이 그쳤는데 새가 어이 올라마는, ²²적벽 싸움에 죽은 군사 원조(怨鳥)라는 새가 되어 조 승상을 원망하여 지지거려 우더니라. ²³나무 나무 끝끝트리 앵아우는 각 새 소리. ²⁴도탄에 싸인 군사, 고향 이별이 몇 해리고 ²⁵귀촉도 귀촉도 불여귀라, 슬피 우는 저 초혼조. ²⁶여산 군량이 소진하여 춘비 노략 한때로구나, 소텅 소텅 저 흥년새. ²⁷백만 군사를 자랑터니 금일 패전이 어인 일고, 입뻘쭙 입뻘쭙 저 뻘쭙새. ²⁸자칭 영웅 간곳없고 도망할 길을 피로만 낸다, 피꼬리 수리루리루 저 피꼬리. ²⁹들판 대로를 마다하고 심산 숲 속에 고리각 까옥 저 까마귀. ³⁰가련타 주린 장졸 냉병인들 아니 들랴, 병에 좋다고 쑥쑥 쑥쑥국. (중략)

³¹처량하구나 각 새 소리. 조조가 듣더니 탄식한다.

³²울지를 말아라. ³³너희가 모두 다 내 제장 죽은 원귀가 나를 원망하여서 우는구나.”

(라) [아니리] ³⁴탄식하던 끝에 ‘히히히, 해해해’ 대소하니 정욱이가 막혀,

³⁵“여보시오 승상님, 근근도생 창황 중에 슬픈 신세 생각지 않고 무슨 일로 웃나이까?”

³⁶조조 대답하되,

³⁷“내 웃는 게 다름 아니라 주유(周瑜)*는 피가 없고 공명(孔明)*은 슬기 없음을 생각하여 웃노라.”

(마) [엇모리] ³⁸이 말이 지듯 마듯 오림산곡 양편에서 고성 화광이 충천, 한 장수가 나온다. ³⁹얼굴은 형산백옥 같고 눈은 소상강 물결이라. ⁴⁰이리 허리 곱의 팔, 녹포엄신 갑옷, 팔척 장창 비껴들고 당당위풍 일 포성, 큰 소리로 호령하되,

⁴¹“네 이놈 조조야. ⁴²상산 명장 조자룡(趙子龍)을 아느냐 모르느냐? ⁴³조조는 단지 말고 창 받으라.”

⁴⁴말 놓아 달려들어 등에 얼른 서를 쳐, 남에서 얼른 북을 쳐, 생문으로 내리달아 사문에 와 번뜻. ⁴⁵장졸의 머리가 추풍낙엽이라. ⁴⁶예 와서 번뜻하면 저가 덩기령 베고, 저 와서 번뜻하면 예와 덩기령 베고, ⁴⁷백송골이 꿩 차듯, 두거비 파리 차듯, 은장도 칼 베듯, 여름날 번개 치듯 흥행행 쳐들어갈 제, 피 흘려 강물 되고 주검이 여산이라.

- 작자 미상, ‘적벽가(赤壁歌)’

* 주유 : 조조의 위나라와 적대 관계에 있던 오나라의 대장군.

* 공명 : 제갈량(諸葛亮). 위나라와 적대 관계에 있던 촉나라의 군사(軍師).

10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봄빛이 완연한 산속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 ② 군사를 다 잃은 조조가 정욱과 단둘이 도망가고 있다.
- ③ 조조는 숲에 숨어들어 적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이다.
- ④ 조조는 큰 낭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세를 버리지 않고 있다.
- ⑤ 조조는 전쟁 중에 죽은 장졸들을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06. (나)와 (마)를 비교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에서는 (마)에 비해 상황이 희극적으로 연출되어 골계미가 살아나고 있다.
- ② (마)는 (나)에 비해 작중 상황이 급박하여 정서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 ③ (나)에서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데 비하여, (마)에서는 인물 간의 갈등이 고조된다.
- ④ (나)는 주로 인물 간의 대화에 의해, (마)는 주로 서술자의 서술에 의해 사건이 진행된다.
- ⑤ (나)가 산문적 표현에 가까운 데 비하여, (마)는 노래로 부르기에 적합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10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주변인물을 통해 중심인물의 부정적 면모를 드러낸다.
- ② ㉡ :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혀 수용자의 공감을 유도한다.
- ③ ㉢ : 반어적 표현을 통해 상황의 반전을 암시한다.
- ④ ㉣ : 관습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의 특성을 묘사한다.
- ⑤ ㉤ : 비유적 표현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과 생동감을 살려낸다.

고난도 고전 신문 정선
L L L L L

108. <보기>에 비추어서 (다)의 ‘새타령’을 해석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새타령’은 「적벽가」에서도 절창으로 꼽힌다. 새 모습 묘사와 새 소리 표현에 생동감이 넘쳐, 이름난 광대가 이 대목을 부르면 새가 날아들 정도였다고 한다. 흥미로운 것은 새의 울음을 표현한 말소리들이 서사적 상황과 절묘하게 연결되면서 전쟁 상황에 얹힌 의미를 표출한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도탄에 싸인 군사, 고향 이별이 몇 해런고’에 이어지는 ‘귀촉도 귀촉도’라는 울음소리는 ‘귀촉’의 뜻인 ‘고국으로 돌아감’과 연결되어 고향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군사들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① 흥년새가 ‘소텡 소텡’ 하고 우는 것은 ‘소텡(솔뚜깡)’이나 ‘솔이 텡 빈 것’과 연결되어, 식량 문제로 고생하는 군대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어.
- ② 삐죽새가 ‘입삐죽 입삐죽’ 하고 우는 것은 ‘삐죽대다’와 연결되어, 대군을 잃고 한심한 처지가 된 조조를 비웃는 의미를 담았다고 할 수 있겠네.
- ③ ‘찌꼬리 수리루리루’라는 울음소리는 ‘찌’라는 말과 연결되어, 도망갈 궁리를 짜내기에 분주한 조조를 희화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④ 까마귀가 ‘고리각 까옥’ 하고 우는 것은 까마귀가 ‘효조(孝鳥)’라는 사실과 연결되어, 군사들이 부모를 그리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
- ⑤ ‘쑥쑥 쑥쑥’이라는 울음소리는 ‘쑥’의 약효와 연결되어, 병에 시달리는 군사들의 고통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군.

109.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마)에서 ‘조조’가 처한 상황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범을 피하니 이리가 앞을 막는다.
- ②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 ③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④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⑤ 병 주고 약 준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07학년도 6월 평가원

[앞부분의 줄거리] ¹토번국이 당나라를 침공하니, 양소유가 대원수가 되어 전장에 나간다. ²양 원수가 전장에서 잠깐 조는데, 꿈에 동정호(洞庭湖) 용왕의 작은딸 백능파를 만난다. ³양 원수가 그녀를 첩으로 삼자, 남해 태자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양 원수와 싸운다. ⁴양 원수는 자기 군대를 지휘하여 싸움에서 이긴다.

⁵홀연 보니 동남쪽에서 붉은 기운과 안개 자욱이 끼며 용궁 사신 행렬의 깃발이 공중에서 날아오며 사자(使者) 내달아 아뢰되,

⁶“동정호 용왕이 원수의 남해 태자 깨침과 공주 구하심을 듣고 친히 궁전에서 축하하려 한대 스스로 맑은 땅에서 경계를 넘지 못하는 고로 궁궐에서 잔치를 베풀고 삼가 원수를 청하여 욕되시더라도 잠깐 임하시게 하시고 겸하여 공주를 궁중에 돌아오시게 하시더이다.”

⁷원수 왈,

⁸“내 비야흐로 대군을 거느려 적군과 마주하고 있고 동정호가 여기서 만 리 밖이라 비록 가고자 한들 어이 얻으리오?”

⁹사자 왈,

¹⁰“이미 수레를 갖추어 여덟 용이 끌고 있으니 반나절만 하면 돌아오리이다.”

하더라.

¹¹양 원수 용녀와 더불어 함께 수레를 타니 신령한 바람이 수레바퀴에 불어 공중에 오르니 이미 인간 세상에서 몇 천 리를 떠난 줄 알지 못하되 다만 흰 구름이 세계를 덮은 양을 불러라. ¹²잠깐 사이 동정호에 다다르니 용왕이 맞아 주인과 손님의 예법과 위용이 자못 엄숙하더라.

¹³왕이 수중 종족을 모으고 큰 잔치를 차려 원수가 싸움 이기고 용녀가 집에 돌아옴을 축하할새, 술이 취하매 온갖 음악을 내니 풍류 질탕하여 인간 세상과 다르더라.

¹⁴원수 보니 앞뜰 좌우에 일천 장사 칼과 창을 들고 북 치고 나오고 여섯 줄의 미녀가 비단옷을 입고 춤추니 웅장하고 화려하여 자못 봄 직하더라.

¹⁵용왕더러 묻되,

¹⁶“이 춤이 인간 세상에서 보지 못한 배라. ¹⁷아지 못게라, 이 무슨 곡조니이까?”

¹⁸용왕 왈,

¹⁹“이 곡조는 용궁에도 옛날에는 없더니 과인의 만딸이 경하강(涇河江) 용왕의 아들에게 시집갔다가 옥을 당하매 유의(柳毅)*가 편지로 전하거늘, ²⁰전당강(錢塘江)에 사는 아우가 경하강에 가 싸움해 이기고 여아를 데려오니 궁중 사람이 글을 만들어 전당 파진악(錢塘波陣樂)과 귀주 환궁악(貴主還宮樂)이라 하여 이따금 궁중 잔치에 쓰더니, ²¹이제 원수께서 남해 태자를 이기고 부녀 서로 모임이 전일과 방불할새 이 곡조를 내고 이름을 고쳐 원수 파진악(元帥波陣樂)이라 하나이다.”

²²원수 크게 기뻐 왕께 사뢰되,

²³“유 선생이 어디 있나니이까. 가히 서로 볼 수 있으리까?”

고난도 고전 산문 정선

²⁴용왕 왈,
²⁵“유익은 지금 영주의 신선 벼슬을 맡고 있으니 마음대로 오지 못하리이다.”
²⁶술잔이 아홉 번 도니 원수 왈,
²⁷“군중(軍中)에 일이 많으니 한가히 머물지 못하리소이다.”
²⁸용녀와 더불어 훗날을 기약하더라.
²⁹용왕이 원수를 결문 밖에 가 보내더니 원수 문득 눈을 들어 보니 한 뼘 높고 빼어나 다섯 봉이 구름 속에 들었거늘 왕더러 묻되,
³⁰“이 뼘 이름을 무엇이라 하나니이까. ³¹이 양소유 천하를 두루 다녔으되 오직 화산(華山)과 이 뼘을 못 보았나이다.”
³²용왕이 답하여 이르기를,
³³“원수 이 뼘을 모르시리이다. ³⁴이 곧 남악(南嶽) 형산(衡山)이니이다.”
³⁵원수 왈,
³⁶“어이 하면 저 뼘을 보리이까.”
³⁷용왕 왈,
³⁸“날이 아직 늦지 아녔으니 잠깐 구경하셔도 군영에 돌아갈 수 있으리이다.”
³⁹원수 수레에 오르니 금방 뼘 아래 이르렀더라. ⁴⁰원수 막대를 끌고 돌길을 찾아 가니 일천 바위 다투어 빼어나고 일만 물이 겨워 흐르는 절경이지만, 볼 겨를이 없는지라, 한탄하여 가로되,
⁴¹㉠ “어느 날 공적을 이루고 물러나 세상 밖 한가한 사람이 될꼬.”
⁴²문득 바람결에 경쇠 소리 들리거늘 절 문이 멀지 않은 줄 알고 쫓아 올라가니, 한 절이 있으되 그 규모가 극히 장려하고 노승이 당 위에 앉아 바야흐로 설법하니 눈썹이 길고 눈이 푸르고 골격이 빼어나 세상 사람이 아니더라. ⁴³모든 중을 거느리고 당에서 내려와 원수를 맞으며 왈,
⁴⁴“산 속 사람이 귀와 눈이 없어 대원수 오시는 줄 알지 못하여 멀리서 맞지 못했으니 죄를 용서하소서. ⁴⁵원수 이번은 돌아올 때 아니거니와 이미 왔으니, 불전 위에 올라가 예불하소서.”
⁴⁶원수 분향 예배하고 불전 아래로 내리더니 문득 실족하여 엎어져 놀라 깨달으니 몸은 영중(營中)의 높은 의자에 기대고 있고 날은 이미 밝았더라.
⁴⁷원수 장졸을 모으고 문 왈,
⁴⁸“너희들 밤에 무슨 꿈이 있느냐.”
⁴⁹㉡ 모두 답 왈,
⁵⁰“꿈에 원수를 모시고 귀신 병졸과 더불어 싸워 이기고 장수를 생포하였나이다. ⁵¹이 필연 오랑캐를 멸할 징조로소이다.”
⁵²원수 크게 기뻐 자신의 꿈을 이르고 장졸을 거느려 백룡담 위로 가 보니 고기 비늘이 떨어져 가득하고 피 흘러 내가 되었더라. ⁵³원수 잔을 가져오라 하여 먼저 못 물을 떠 마시고 또 병든 군병을 먹이니 즉시 낫거늘, 그제야 군병과 전마를 일시에 먹이니 즐겨하는 소리 우레 같더라. 적병이 듣고 크게 두려워 항복코자 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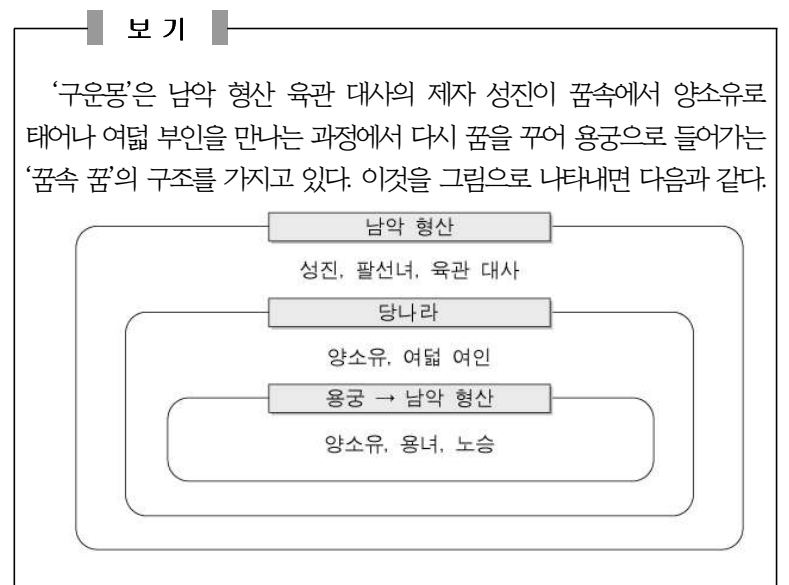
- 김만중, '구운몽'

* 유의: 중국 당나라 소설 '유의전'의 주인공.

110.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면이 여러 차례 바뀌고 있다.
- ② 주인공의 영웅적 면모가 나타나 있다.
- ③ 공간적 배경이 환상적으로 그려져 있다.
- ④ 격조 있는 표현으로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 ⑤ 하나의 사건을 다양한 시각에서 그리고 있다.

111. <보기>를 참조하여 위 글을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이 활동하는 공간이 현실 층위에 한정되어 실감이 나는군.
- ② ‘꿈속 꿈’의 공간이 꿈 이전의 현실과 연결된다는 점이 묘미가 있군.
- ③ 꿈과 ‘꿈속 꿈’을 통하여 모든 현실적 욕망에 대해 반성하게 하는군.
- ④ ‘꿈속 꿈’의 공간은 양소유와 여덟 여인이 만나게 되는 배경이 되는군.
- ⑤ 꿈과 ‘꿈속 꿈’의 공간이 단혀 있어서 안정감 있는 공간 의식을 갖게 하는군.

112. [A]는 ‘유의전’의 이야기를 빌려와 쓴 부분이다. ‘구운몽’과의 대응 구조를 표로 나타낼 때, ㉠, ㉡에 알맞은 것은?

	유의전	구운몽
구출자	㉠	양소유
적대자	경하강 용왕의 아들	㉡
구출 대상	동정호 용왕의 만딸	동정호 용왕의 작은딸

- | | | |
|---|------------|------------|
| | ㉠ | ㉡ |
| ① | 육관 대사 | 남해 태자 |
| ② | 남해 태자 | 동정호 용왕의 아우 |
| ③ | 남해 태자 | 동정호 용왕 |
| ④ | 동정호 용왕 | 남해 태자 |
| ⑤ | 동정호 용왕의 아우 | 남해 태자 |

고난 고전 신문 정선
L L L L O L

113. ㉠에 담긴 양소유의 심정을 시조로 표현할 때,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귀거래(歸去來) 귀거래 말뿐이요 갈 이 없어
전원이 장무(將無)하니 아니 가고 어떨고
초당에 청풍명월이 나명들명 기다리나니
- ② 재 너머 성 권농 집에 술 익닷 말 어제 듣고
누운 소 발로 박차 언치 놓아 눌러 타고
아이야 네 권농 계시냐 정 좌수 왔다 하여라
- ③ 강산 좋은 경(景)을 힘센 이 다툼 양이면
내 힘과 내 분으로 어이하여 얻을쏘냐
진실로 금(禁)할 이 없을새 나도 두고 노니노라
- ④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라마는
시절이 하 수상(殊常)하니 울동말동 하여라
- ⑤ 선인교 나린 물이 자하동 흘러들어
반 천년(半千年) 왕업(王業)이 물소리뿐이로다
아이야 고국 흥망을 물어 무엇하리오

114. ㉡을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② 갑론을박(甲論乙駁)하며
③ 설왕설래(說往說來)하며 ④ 중구난방(衆口難防)으로
⑤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07학년도 9월 평가원

¹이날 사향이 틈을 타 부인의 침소에 들어가 금봉차*와 옥장도*를 훔쳐 남자의 사사로운 그릇 속에 감추었더니 그 후에 부인이 잔치에 가려고 봉차를 찾으니 간 데 없는지라. ²괴이하게 여겨 세간을 내어 살펴보니 장도 또한 없거늘 모든 시녀를 죄 주었다. ㉠

³이때 사향이 들어오며 말하기를,

⁴“무슨 일로 이렇게 요란하십니까?”

⁵부인이 말하기를,

⁶“옥장도와 금봉차가 없으니 어찌 찾지 아니하리오?”

⁷사향이 부인 곁에 나아가 가만히 고하여 말하기를,

⁸“저번에 숙향이 부인의 침소에 들어가 세간을 뒤지더니 무엇인가 치마 앞에 감추어 가지고 자기 침방으로 갔으니 수상합니다.”

⁹부인이 말하기를,

¹⁰“숙향의 빙옥 같은 마음에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오?”

¹¹사향이 말하기를,

¹²“숙향이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더니 근간 혼인 의논을 들은 후로는 당신의 세간을 장만하노라 그러하온지 가장 부정함이 많습니다.

¹³어쨌든 숙향의 세간을 뒤져 보십시오.” ㉡

¹⁴부인이 또한 의심하여 숙향을 불러 말하기를,

¹⁵“봉차와 장도가 혹 네 방에 있나 살펴보라.”

¹⁶숙향이 말하기를,

¹⁷“소녀의 손으로 가져온 일이 없사오니 어찌 소녀 방에 있겠습니까?”

하고 그릇을 내어 친히 찾게 하니 과연 봉차와 장도가 있는지라.

¹⁸부인이 대로하여 말하기를,

¹⁹“네 아니 가져왔으면 어찌 네 그릇에 들어 있느냐?”

하고 승상께 들어가 말하기를,

²⁰“숙향을 친딸같이 길렀으나 이제 장도와 봉차를 가져다 제 함 속에 넣고 종시 몰라라 하다가 제게 들켰사오니, 봉차는 계집의 노리개니 이상하지 않으나 장도는 계집에게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라 그 일이 가장 수상합니다. ²¹어찌 처치하면 마땅하겠습니까?” ㉢

²²사향이 곁에 있다가 고하기를,

²³“요사이 숙향의 거동을 보오니 혹 글자도 지으며, 외인이 자주 출입하니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²⁴승상이 대경하여 말하기를,

²⁵“제 나이가 찼음에 필연 외인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²⁶그냥 두었다가는 집안에 불측한 일이 있을 것이니 빨리 쫓아내십시오.”

(중략)

²⁷숙향이 천지 아득하여 침소에 들어가 손가락을 깨물어 벽 위에 하직하는 글을 쓰고 눈물을 뿌리며 차마 일어나지 못하니, 사향이 발을 구르며 숙향을 이끌어 문밖으로 내치고 문을 닫고 들어가며 말하기를,

²⁸“근처에 있지 말고 멀리 가라. 만일 승상이 아시면 큰일 나리라.”

하거늘, 숙향이 멀리 가며 승상 집을 돌아보고 울며 가더라. ㉣

²⁹한 곳에 다다라 문득 보니 큰 강이 있으니 이는 표진강이었다.

³⁰㉤ 어찌할 바를 몰라 강변을 헤매다가 날은 저물고 행인은 드문지라 사면을 돌아봐도 의지할 곳이 없는지라,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다가 손에 김수건을 쥐고 치마를 뒤집어쓰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

³¹행인이 놀라 급히 구하려 하였으나 이미 어쩔 수 없는지라 모두 탄식하며 그 곡절을 알고자 하더라.

³²이때 숙향이 물에 뛰어드니 검은 소반 같은 것이 물 밑으로부터 숙향을 태우고 물 위에 섰는데 편하기가 반석 같았다. ³³이윽고 오색 구름이 일어나며 사양머리를 한 계집아가이 연엽주를 바삐 저어 앞에 다다라 말하기를,

³⁴“부인은 어서 배에 오르십시오.”

하니 그 검은 것이 변하여 계집아가이가 되어 숙향을 안아서 배에 올리고 아이 둘은 숙향을 향하여 재배하여 말하기를,

³⁵“귀하신 몸을 어찌 이렇듯 가벼이 버리십니까? ³⁶저희는 항아의 명으로 부인을 구하려 오다가 옥하수에서 여동빈 선생을 만나 잠시 술을 마셨는데 하마터면 부인을 구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하고 용녀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³⁷“어디로부터 와서 구하셨습니다?”

고난 고전 신문 정선

37 용녀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38“전에 사해용왕이 수정궁에 모여 잔치를 할 때 저의 사랑하는 시녀가 유리종을 깨트렸기에 행여 죄를 얻을까 하여 감추었더니 부왕이 아시고 노하여 첩을 반하수에 내치시매 물가로 다니다가 어부에게 잡혀 죽게 되었습니다. 39이때 김 상서*의 구함을 입어 살아났으니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40어제 부왕이 옥경에서 조회할 때 옥제 말씀을 듣사오니 ‘소아*가 천상에서 득죄하여 김 상서 집에 적강*한 뒤로 도적의 칼 아래 놀라게 하고 표진강에 빠져 죽을 액을 당하고, 갈대밭에서 화재를 만나고, 낙양 옥중에서 죽을 액을 지낸 후에야 태을*을 만나게 하라.’ 하시고 물 지키는 관원을 명하여 ‘기다렸다가 죽이지는 말고 옥만 봐서 보내라.’ 하시기에 제가 특별히 김 상서의 은혜를 갚고자 하여 자원하여 왔습니다. 41이제 그대가 또 구하시니 저는 가겠습니다.”

- 작자 미상, ‘숙향전’

- * 금봉차: 금으로 만든 봉황 모양의 비녀.
- * 옥장도: 옥으로 만든 장식용 칼.
- * 김 상서: 숙향의 아버지.
- * 소아: 달나라에 사는 선녀. 숙향의 전생의 이름.
- * 적강: 죄를 지어 인간계로 쫓겨남.
- * 태을: 숙향의 장래 배우자인 이선의 전생의 이름.

115.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정적 인물에 대한 적개심이 드러나 있다.
- ② 서술자가 직접 인물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
- ③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 ④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율문투를 사용하여 비극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116. 위 글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하였다. ㄱ~ㄴ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짝지는 것은?

■ 보기 ■

인물	역할	사건의 내용
사항	(ㄱ)	도둑질의 누명을 씌움
		(ㄴ)의 누명을 씌움
승상	심판자	(ㄷ)
숙향	피해자	(ㄹ)

- | | | | |
|-------|--------|-------|---------|
| ㄱ | ㄴ | ㄷ | ㄹ |
| ① 공모자 | 부정한 행실 | 체벌 허락 | 무죄를 탄원함 |
| ② 공모자 | 내통 | 추방 지시 | 집에서 쫓겨남 |
| ③ 음해자 | 밀고 | 체벌 허락 | 무죄를 입증함 |
| ④ 음해자 | 밀고 | 체벌 허락 | 무죄를 탄원함 |
| ⑤ 음해자 | 부정한 행실 | 추방 지시 | 집에서 쫓겨남 |

117. <보기>를 참고하여 [A]를 이해할 때,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숙향이 겪는 고난은 그 당시 ‘숙향전’의 향유층이 겪었을 법한 현실적인 경험이다. 그런데 고난의 해결은 초현실적이다. 당시 독자들이 숙향과 같은 고난에 부딪혔을 때,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숙향과 자신들을 동일시하였던 당시 독자들은 숙향의 패배와 죽음을 자신들의 것으로 여겼을 것이다. 이것이 숙향의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초월적 존재를 설정한 까닭이다. 요컨대, 숙향의 고난에 동화된 사람들은 고난에 공감하면서 비감(悲感)을, 숙향이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에서는 쾌감을 맛보게 된다. ‘숙향전’에 여러 고난이 반복되는 것은 향유층의 미적 쾌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 ① 숙향의 적강은 당시 독자들의 현실적인 경험을 반영한 것이군.
- ② 용녀의 보은은 당시 독자들에게 인과응보의 이치를 알리고자 했던 것이군.
- ③ 숙향이 여러 고난을 겪는 것은 당시 독자의 비감을 증대시키려는 것이군.
- ④ 옥제가 등장하는 것은 당시 독자들이 타고난 운명을 비관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군.
- ⑤ 숙향과 태을이 만나는 것은 당시 독자들에게 안정된 현실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군.

118. ㉠에 나타난 숙향의 처지를 표현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호지세(騎虎之勢)
- ② 고립무원(孤立無援)
- ③ 혈혈단신(孑孓單身)
- ④ 사고무친(四顧無親)
- ⑤ 진퇴유곡(進退維谷)

119. <보기>의 ‘전기수’처럼 위 글을 읽다가 멈추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곳은?

■ 보기 ■

전기수(傳奇叟)는 ‘숙향전’, ‘소대성전’ 등과 같은 국문소설을 장소를 바꿔가며 사람들에게 읽어 주었다. 그들은 책을 읽어 가다가 사람들이 꼭 더 듣고 싶어 할 만한 부분에 이르러 갑자기 읽기를 멈추었다. 사람들은 그 다음 대목을 듣고 싶어 다투어 돈을 던져 주었다. 이것이 이른바 요전법(邀錢法)이다. 전기수의 이런 수법은, 한 장회를 끝낼 때 새로운 사건의 첫 부분만 짧게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고소설의 장회 나누기 방법과 같은 원리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ㄹ
- ⑤ ㅁ

고난도 고전 신문 정선
L L L L O L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2007학년도 3월 서울시 교육청

¹어느 날 밤 대군이 손님을 청하여 잔치를 베푸는 자리에서 김 진사의 시재(詩才)를 칭찬하며 그가 지은 시 두 수를 손님에게 보이니 모두 경이로운 눈으로 구경하고 칭찬을 아니 하는 자가 없었다. ²그리고 한번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였다. ³그 자리에서 대군이 사람을 보내어 진사를 맞아 왔다. ⁴당(堂)에 오르는 모양을 본즉, ^①무슨 근심이 있는지 용모가 초췌하여 풍정이 사라지고 아주 탄 사람 같았다.

⁵대군이 “무슨 병이 있는가? 약으로 고치지 못할 병은 아닌가?” 하고 희롱하니 앉아 있는 모두가 웃었다.

⁶“한미한 유생이 외람되어 대군의 농을 받음인지, 복이 지나고 화가 당도하였는지 근일에는 식사도 전폐하고 폐인이 되었습니다. ⁷이렇게 부르시매 왔습니다만…….”

⁸김 진사가 그 중 나이 어리므로 말석에 앉았으며 다만 한 벽이 가리웠더라. ⁹밤이 이미 깊으며 손님들이 다 취하여 누웠거늘, ¹⁰첩이 벽 사이로 엿보니 진사 또한 그 뜻을 알고 귀통이를 향하여 앉거늘, ¹¹첩이 편지를 던지니 진사가 집어 가지고 집에 돌아가 떼어 보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차마 손에서 놓지 못하고 생각하는 정이 전보다 더하여 능히 목숨을 보존치 못할 듯한지라. ¹²⑦이에 답장을 써 부치고자 하나 청조(靑鳥)*가 없는지라 홀로 가슴만 태울 뿐이더니,

¹³마침 동문 밖에 한 무녀가 있어 영리함으로써 이름을 얻고 궁중에 출입하여 다닌다는 말을 듣고 반가이 여겨 그 집을 찾아가니, ¹⁴그 무녀가 서툰이 채 못 되고 자못 자색이 아름다우나 알짜이 혼자있었더니, ¹⁵진사가 이르는 것을 보고 술과 안주를 잘 차려 대접하거늘 진사가 잔을 받지 아니하고 가로되, ¹⁶“금일은 바쁜 일이 있으니 명일 다시 오마.” 하고 가더니, ¹⁷다음 날 또 간즉 대접이 여말하나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또 다시 “명일 오마.” 하고 돌아가니, ¹⁸무녀가 그 행색을 괴이히 여겨 ^②의심을 하나 그 용모의 탈속함과 풍채의 준수함을 보고 마음속에 기뻐하더라.

¹⁹이튿날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교태를 다하여 단장을 꾸미고 화려한 요며 구슬 방석을 두루 벌여 펴고 계집종에게 “문 밖에 가 기다려라.” 하더니, ²⁰이윽고 진사가 또 이르거늘 무녀가 웃고 반가이 맞아 들어와 자리에 앉으며, ²¹진사가 눈을 들어 그 단장의 화려함과 늘어놓은 것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속에 괴이히 여기더니, 무녀 가로되, ²²“오늘 저녁이 어떤 저녁이건대 이러한 옥인(玉人)을 보시고?” 한대, ²³진사가 뜻이 다른 데 있는지라, ²⁴그 말에 대답지 아니하고 ^③슬픈 표정으로 있거늘, ²⁵무녀가 또 돌아서 가로되, “과부의 집에 나이 어린 사람이 어찌 왕래하기를 꺼리지 아니하느뇨?” ²⁶진사 가로되, “무녀가 만일 신령한즉 어찌 나의 온 뜻을 알지 못하리오?” ²⁷하거늘, 무녀 더욱 괴이히 여겨 즉시 신단에 나아가 점쳐 보고 나서 말하되, “낭군아, 진실로 가히 아깝도다. ²⁸행하지 못할 계획으로써 ^④이루지 못할 일을 하고자 하는도다. ²⁹다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삼 년이 미치지 못하여 황천 사람이 되리도다.”

³⁰진사가 울며 왈 “그대 비록 이르지 아니하여도 내 또한 아는 일이라.” 하고, ³¹인하여 전말을 자세히 일러 왈 “^①마음속의 원이 맺힌지라 백약으로 풀지 못하리도다. 다만 바라나니 그대로 인하여 내 편지 한 쪽만 전하여 주면 죽더라도 또한 영광이 되리도다.” ³²무녀 가로되, “천한 무녀가 비록 신을 모시는 일로 인하여 간혹 출입함이 있으나,

부르는 명이 없으면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지라. 그러나 낭군이 저토록 간청하니 낭군을 위하여 한번 들어가 보라이다.” ³³진사가 기뻐 품속에서 봉투 하나를 내어주며 당부하되, “삼가 그릇 전하여 화를 짓게 말라.”

³⁴무녀가 응낙하고 받아 가지고 궁에 들어가니, ³⁵궁중 사람들이 다 그 음을 괴이히 여기거늘 무녀가 다른 말로써 대답하고, ³⁶인하여 틈을 타 눈 주어 첩을 데리고 후정(後庭) 그윽한 곳에 가 편지를 주거늘, ³⁷첩이 받아 가지고 방에 돌아와 떼어 보니 하였으되,

³⁸“그대를 한 번 봄으로부터 마음이 날고 혼이 흩어져 능히 뜻을 정하지 못하고 매양 서쪽을 향하매 거의 창자가 끊어지도다. ³⁹벽 틈으로 주던 글을 공경하여 받아 보기를 다 못하여 가슴이 막히고 눈물이 글자를 적시는지라 잠을 능히 이루지 못하고 밥을 능히 내리지 못하여 병이 골수에 들매 백약이 무효한지라. ⁴⁰다만 저승에서 만나기를 바라노라. ⁴¹하늘이 굽어 살피시고 귀신이 도와주시어 생전에 만나 ^⑤이 한을 씻게 하시면 백골난망이라.” 하였더라.

〈중략〉

⁴²첩이 보기를 마치매, 소리 끊이고 기운이 막혀 입으로 능히 말을 못하고 눈으로 능히 보지 못하여 눈물이 다하매 피가 나는지라. ⁴³사람이 알까 병풍 뒤에 앉아 종일 흐느끼고 그 후로부터 더욱 잇을 길이 없어 미친 듯 취한 듯하여 자연 얼굴과 말에 나타내매 대군이 의심하고 사람의 괴이히 여김을 면치 못하였노라.

- 작자 미상, ‘운영전’

* 청조(靑鳥) : 반가운 사자(使者)나 편지를 이르는 말.

120. 위 글을 읽으며 떠올린 장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김 진사가 ‘첩’의 편지를 읽고 있는 모습
- ② 김 진사가 지은 시를 대군이 보고 있는 모습
- ③ 무녀가 단장을 하고 김 진사를 기다리는 모습
- ④ 대군의 심부름꾼이 김 진사의 집을 찾는 모습
- ⑤ 손님들이 돌아간 후 ‘첩’과 김 진사가 만나는 모습

121. ⑦의 상황에 적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한자성어는?

- | | |
|--------------|--------------|
| ① 노심초사(勞心焦思) | ② 좌불안석(坐不安席) |
| ③ 절치부심(切齒腐心) | ④ 은인자중(隱忍自重) |
| ⑤ 풍수지탄(風樹之嘆) | |

122. ㉠~㉣ 중, ㉡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은?

- | | | | | |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

고난 고전 신문 정선
L L L L O L

※ 위 글에 나타난 '김 진사'의 심정을 (가)~(마)와 같이 표현했다고 할 때, 이를 참조하여 189번과 190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 (가) 내 마음을 아시는 사람이라면
시름이 그득하다 하시겠지만
내 마음속 모르는 사람이라면
무엇 땀에 그러느냐 하시리이라
- (나) 뜻밖에 임의 글을 반갑게 받아 보니
곳마다 눈물 흔적 글자가 흐렸고야
달 밝고 고요한 밤엔 생각 더욱 설워라
- (다) 비는 온다마는 임은 어이 못 오르고
물은 간다마는 나는 어이 못 가는고
오거나 가거나 하면 이대도록 그리라
- (라) 낙엽에 두 자만 적어 서북풍에 높이 띄워
월명 장안(月明長安)에 임 계신 데 보내고자
임께서 보으신 후(後)면 임도 반겨하시리라
- (마) 사랑 모여 불이 되어 가슴에 피어나고
간장(肝腸) 썩어 물이 되어 두 눈으로 솟아난다
일신(一身)이 수화상침(水火相侵)*하니 살동말동하여라

* 수화상침(水火相侵) : 매우 곤란한 환경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23.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대군의 물음에 대한 속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② (나)는 '첩'의 편지를 받고 난 후의 심정을 드러낸 것이다.
③ (다)는 무녀의 유혹에 대한 거부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④ (라)는 '첩'에게 편지를 전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⑤ (마)는 '첩'에게 보낸 편지에 담긴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

124. (가)~(마)의 사어를 위 글과 관련하여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시름'은 '첩'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것이다.
② (나)의 '밤'은 '첩'에 대한 그리움을 심화하는 배경이다.
③ (다)의 '물'은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해 주는 소재이다.
④ (라)의 '서북풍'은 무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⑤ (마)의 '수화상침'은 김 진사가 처한 상황을 드러낸 것이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07학년도 10월 서울시 교육청

¹남저운을 찾아 가 수학한 지 삼 년에 백로의 문장이 거룩한지라. ²백로가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선생에게 하직을 하고 돌아와 부모를 뵈온대, 부모도 크게 반겨 손을 잡고 정회를 이르며 학업이 크게 발전함을 칭찬하여 더욱 귀중함을 이기지 못하더니, 하루는 백로에게 백학선(白鶴扇)을 가져오라 하거늘 백로가 말하기를,

³“① 우연히 길에서 잃어 버려 감히 드리지 못하나이다.”

하자 상서가 크게 노하여

⁴“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물건을 너에게 이르러서 잃었으니 어찌 불초자(不肖子)를 면하겠느냐?”

하고 한숨지어 탄식하기를 마지아니하더라.

⁵이때 병부상서 평진이 유 상서를 보러 왔다가 생의 사람됨을 보고 가장 아름답게 여겨 사위 삼기를 청하거늘 상서가 초봄에 혼인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생이 간하기를,

⁶“소자의 마음에 작정하기를 뒷날 입신양명하온 후에 혼인을 정하고자 하오니, 비라건대 부친은 소자의 진정한 뜻을 이루게 하소서.”

⁷상서가 이 말을 듣고 기특하게 여겨 혼인을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⁸차시(此時) 유생이 나이가 십칠 세라 문장이 뛰어나고 풍채가 좋고 당당하매 보는 사람이 모두 칭찬하니라. ⁹이때에 천자가 별과(別科)를 실시하여 생이 이 소식을 듣고 장중(場中)에 들어가 시지(試紙)를 펼쳐 붓을 한번 두르매 문불가점(文不加點)이라. ¹⁰전상에 바치고 기다리더니 이윽고 이번 장원은 전임 이부상서 유태종의 아들 백로라 부르거늘, 생이 크게 기뻐 사람을 헤치고 천자 앞 섬돌로 나아가니 천자가 보시고 어주(御酒)를 하사하시며 말하기를,

¹¹“네 조상부터 국가에 공이 많은 신하이니 너도 국가의 주석지신(柱石之臣)이 되리니 어찌 기쁘지 않겠느냐?”

하시고 즉시 유백로로 한림학사를 제수하시고 유태종으로 귀주자사를 임명하사 바빠 부르시니, 이때 유태종이 집에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여 즉시 상경하여 한림을 보고 못내 기뻐하고 대궐 안에 들어가 인사한 후 귀주로 도임하니라. ¹²한림이 또한 표를 올려 선상에 제사 드린 후 모친을 뵈옵고 돌아와 대궐 안에 들어가 인사를 올리니 생이 보시고,

¹³“경으로 남방순무어사(南方巡撫御使)를 맡기니 백성들의 고통과 수령의 선악을 살펴 짐이 믿는 바를 저버리지 말라.”

하시니 어사가 즉시 하직하고 물러나와 생각하되, ‘이제 남방순무어사가 되었으니 전일 소상죽림(蕭湘竹林)에서 백학선을 준 여자를 찾아 평생 소원을 이루리라.’ 하더라.

¹⁴이때 조 낭자의 나이가 열다섯이라, 부드러운 태도와 기이한 기질이 진실로 절대가인(絶代佳人)이라. ¹⁵전에 소상죽림에서 한 소년을 만나 우연히 유자를 주고 백학선을 받아 돌아왔더니, 점점 자라 백학선을 내어 본즉 ‘요조숙녀(窈窕淑女) 군자호구(君子好逑)’라 쓰고 그 아래 사주(四柱)를 기록하였거늘, 심중이 놀라나 이 또한 천생연분이라. ¹⁶어찌 할 길이 없어 마음에 기록하고 말을 내지 아니하더라.

¹⁷이때 남방 남촌에서 상서 벼슬하는 최국낭은 당시 임금의 총애가

고난 고전 신문 정선
L L L L O L

으뜸이요 서자 하나가 있으니 인물과 재학이 뛰어나, 명사 재상의 딸
둔 자가 구혼하고자 하나 마침내 허락하지 아니하고, 조성로의 딸이 천
하 경국지색이란 말을 듣고 중매를 놓아 구혼하니 조공이 즉시 허락한
지라. ¹⁸남자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이 날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자
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니 명재경각(命在頃刻)이라. ¹⁹부모가 크게 놀
라 여아의 침소에 나아가 조용히 묻기를,

²⁰“우리가 늦게 너를 얻어 기쁜 마음이 측량없더니, 주야로 기다리는
바는 어진 배필을 얻어 원앙이 짝을 이루는 재미를 볼까 하였더니 이
제 무슨 연고로 식음을 전폐하고 죽기를 자처하느냐? 그 곡절을 듣고
자 하노라.”

²¹남자가 주저하다가 눈물을 흘려 말하기를,

²²“소녀 같은 인생이 세상에 살아 무익한 고로 죽음으로 고하고자 하
옵나니, 바라건대 부모는 살피소서. 소녀가 열 살에 외가에 갔다가 오
는 길에 유자를 얻어 가지고 오다가 소상 죽림에서 잠깐 쉬었더니 그
때 한 소년 선비가 지나가다가 유자를 구하기로 두어 개를 주었더니
받아먹은 후에 답으로 백학선(白鶴扇)을 주어 어린 마음에 아름답게 여
겨 받아 두었삽더니, 요사이 퍼 본즉 그 부채의 글이 백년가약을 뜻한
지라, 그때에 무심히 받은 것을 뉘우치나 이 또한 천생연분이 분명하옵
고 또한 그 선비를 보온즉 범상한 사람이 아니오라, 소녀가 이미 그 사
람의 신물(信物)을 받았으니 마땅히 그 집 사람이라. 어찌 다른 가문에
마음을 두리이까? 만일 생전에 백학선 임자를 만나지 못하면 죽기로
써 백학선을 지키올지라.”

하고 인하여 부채를 내어 다시 말하기를,

²³“만일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소녀는 죽어 혼백이라도 유기에
들어가 백학선을 전하고자 하옵나니, 원하건대 부모는 소녀의 박명
(薄命)을 가련하게 여기시고 죽은 후라도 만일 유생이 소녀를 찾아오
거든 소녀의 조그만 정성을 갖추어 전하여 소녀로 하여금 소상강 밤
비 중에 외로운 혼이 되지 아니하게 하소서.”

²⁴말을 마치니 눈물이 비 오듯 하고 조공 부부 또한 흐느끼며,

²⁵“네가 이 같은 사정이 있으면 어찌 진작에 이르지 않았느냐? 너는
일단 그 신물을 지키어 죽기로 정하거나와 저의 뜻을 어찌 알며 일시
갈가에서 우연히 만나 주고 간 부채를 찾으러 오기 쉽겠느냐? 그러하
나 네 뜻이 이미 이러한데 내 그 선비를 찾고자 하나 다만 거주와 성만
가지고 천리원정에 어디를 향하여 찾으리오? 일이 너무 맹랑하니 난처
하도다.”

²⁶남자가 답하기를,

²⁷“충신은 불사이군(不事二君)이요, 열녀는 불경이부(不更二夫)라 하
오니 소녀는 결단코 다른 가문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요 하물며 그 사
람은 잠깐 보아도 신의를 가진 군자였으니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할 것
이요, 또한 백학선은 세상에서 귀한 보배라 무단히 남을 주지 아니할까
하니이다.”

하거늘 조공이 들으니 그 철석같은 마음을 억제하지 못할 줄 알고
할 수 없어 이 뜻을 최국남에게 전한데, 최국남이 분함을 이기지 못하
여 장차 해할 뜻을 두더라.

- 작자 미상, ‘백학선전(白鶴扇傳)’

125.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재의 사건과 과거의 사건을 교차하며 전개하고 있다.
- ② 특이한 소재를 활용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관련 있는 두 인물이 각각 겪는 사건을 병치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④ 배경을 치밀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작품의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 ⑤ 대화를 통해 선한 인물과 악한 인물의 성격을 뚜렷이 형상화하고 있다.

126. ㉠의 말하기의 성격과 그 의도를 가장 잘 드러낸 것은?

- ① 실토하기 - 잘못된 게 확실하니 자세히 말씀드려 용서를 빌어야지.
- ② 둘러대기 - 아직은 사실대로 말할 때가 아니니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지.
- ③ 선수 치기 -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려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막아야지.
- ④ 차단하기 - 부모님이 내 일에 쓸데없이 간섭하지 않도록 못을 박아 두어야지.
- ⑤ 연막 치기 - 부모님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 내가 계획하는 일을 모르게 해야지.

127. (가)에 나타난 ‘조 낭자’의 상황과 심정을 가장 잘 형상화한 것은?

- ① 사창(紗窓)에 기대 앉아 수놓기도 느리구나.
활짝 핀 꽃떨기에 피꼬리는 지저귀고,
살랑이는 봄바람을 부질없이 원망하며,
가만히 바늘 멈추고 생각에 잠겨 있네.
- ② 좋은 인연이 도리어 나쁜 인연 되었으나
낭군은 원망스럽지 않고 하늘만 원망스럽네.
행여 옛 정이 아직 끊이지 않았다면,
황천으로 가기 전 이 내 몸 찾아 주소.
- ③ 연전에 맺은 인연 기이하고 신비하나
참으로 좋은 일엔 마(魔)가 많구나.
임의 자취 더듬어 가연(佳緣)을 이으려니
이승이 어려워니 저승이라 관계하리.
- ④ 편지를 부치고자 하나 부칠 길이 전혀 없어,
붓을 물고 창문가를 몇 번이나 돌았던고
쓸쓸히 이별한 후 임 그리워 흘린 눈물
꽃무늬 종이에 방울방울 떨어져 아롱지네.
- ⑤ 좋은 인연 되려는지 곳은 인연 되려는지,
부질없는 이내 시름 하루가 삼추(三秋) 같네.
넘겨 보낸 시 한 수에 가약(佳約) 이미 맺었나니,
저 다리 위 어느 날에 우리 고운 임 찾아올까.

128. ‘백학선’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 낭자’가 ‘백학선’을 귀하게 간직하려 한다는 점에서 ‘조 낭자’의 절개를 강조하는 구실을 한다.
- ② ‘유백로’와 ‘조 낭자’가 다시 만난다고 가정할 때, ‘조 낭자’의 정체를 확인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 ③ ‘유백로’가 ‘백학선’에 새긴 글귀로 보아 ‘유백로’가 ‘조 낭자’를 반려자로 맞이하려는 강한 의지를 상징한다.
- ④ ‘백학선’이 ‘세상에서 귀한 보배’라는 ‘조 낭자’의 말을 참고할 때, ‘유백로’ 가문의, 조정에서의 위상을 짐작케 한다.
- ⑤ ‘조 낭자’가 처음 본 소녀에게서 ‘백학선’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고난 고전 신문 정선
L L L L O L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2008학년도 6월 평가원

¹이때, 함경도 곡산 땅에 한 사람이 있되, 성은 김(金)이요 명은 덕령(德齡)이라. ²힘은 능히 삼천 근을 들고 신장은 구 척이요, 검술과 육도삼략이 옛날 황석공의 도술을 당하는지라. ³아갑도다. ⁴이때는 부친의 초토(草土)* 중에 있고, 모부인을 섬겨 하루도 떠나지 아니하더니, 일일은 들으니 왜적이 백 리 안에 온다 하거늘 모부인에게 여쭙오되,

⁵“국운이 불행하여 왜적이 산과 들에 가득 찼사오니, 소자가 비록 초토에 있사오니 지금은 국사가 망극하오니 신민의 도리로 어찌 편안하오리이까? ⁶나아가 도적을 물리치고 즉시 돌아오리이다.”

⁷부인이 책망하여 왈,

⁸“너는 어찌 무지한 말로 어미를 놀라게 하느냐? ⁹공자(公子)는 구 년 거상(居喪)이요, 군자(君子)는 육 년 거상이요, 대부(大夫)는 삼 년 거상이라. ¹⁰네 어찌 무슨 지략으로 사정에 어두운 말을 하느냐? ¹¹만일 내 말을 거역하면 모자지(母子之義)를 끊으리라.”

¹²덕령이 다시 말을 못하고 마음을 억누르고 있더니, 수일 후 들으니 도적이 머지않아 들어온다 하거늘, 마음이 송구하여 슬하를 떠나 가등청정의 집에 자취도 없이 들어가 외쳐 왈,

¹³“나는 조선 장수 김덕령이라. ¹⁴왜적의 씨를 없애려니와 천운이 불행하여 내 몸이 상중에 있기로 너희를 이제까지 살렸도다. ¹⁵무지한 왜적은 천위를 모르고 외람되이 조선을 침범하였으니 목숨을 아끼거든 바빠 살아 가라. ¹⁶너의 명이 내 수중에 달렸으니 빨리 돌아가라. ¹⁷만일 내 말을 믿지 못하거든 내일 오시(午時)에 올 것이니, 그 때를 기다려 재주를 구경하되 백지를 오려 너희 군졸 머리 위에 날 낚이 붙이고 기다리라.”

¹⁸하고, 마침 간데없거늘, 가등청정이 대로하여 ㉠수문장을 베어 장대에 달고 왈,

¹⁹“문을 어찌 지켜 요망한 놈이 임의로 출입하는가.”

²⁰하고, 군중에 전령하여,

²¹“백지를 오려 머리 위에 낚날이 붙여라. ²²내일 오시에 요망한 놈이 반드시 올 것이니, 동정을 살피되 일시에 함께 총과 활을 쏘아라.”

²³하고, 이튿날 오시가 되도록 종적이 없더니, 오시 후에 북쪽 으로부터 일점 흑운이 일어나며 광풍이 대작하고 사석(矢石)*이 날리며 큰 나무가 부러지며 천지가 뒤넘는 듯하더니 공중에서 한 소년 상복을 입은 채 포선(布扇)*을 들고 오른손으로 억만 군중 백화 발이 된 백지를 거두어 쥐고 천둥같이 호령 왈,

²⁴“너희는 내 재주를 보라. ²⁵내 몸이 상중이 아니면 너희 장졸의 머리를 이 종이같이 경각에 거두고자 하나니, 너희가 목숨을 아끼거든 빨리 퇴병하라. ²⁶만일 나의 말을 업신여기면 내 포선으로 너희를 씨도 없애리라.”

²⁷하고 간데없거늘, 가등청정이 간담이 서늘하여 차탄 왈,

²⁸“내 팔 년 동안 도술을 배워 조선에 나왔으되 저러한 재주는 처음이라. ²⁹천신 같도다”

³⁰하고, 진을 풀어 조섭의 진과 합하고자 하더라.

- 작자 미상, '임진록'

* 초토 : 거적자리와 흙 베개라는 뜻으로, 상중에 있음을 이르는 말.

* 사석 : 전쟁에 쓰던 화살과 돌.

* 포선 : 상주가 외출할 때 얼굴을 가리는 부채.

129.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김덕령은 종이를 이용해서 자신의 신이한 능력을 드러냈다.
- ② 어머니는 김덕령에게 신민의 도리보다 아들의 도리를 요구했다.
- ③ 상복을 입고 공중에서 나타난 소년은 김덕령이 둔갑한 인물이다.
- ④ 김덕령은 국가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모두 중시했다.
- ⑤ 가등청정은 김덕령의 능력을 두려워하여 군사들의 머리에 백지를 붙이게 했다.

130. 위 글과 <보기>는 같은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위 글과 <보기>의 비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남원부 사람으로 전에 참봉을 지냈던 변사정이 의병을 모집하여 영남으로 가려고 할 때, 최척은 활쏘기와 말 타기를 잘했기 때문에 의병에 뽑혀서 동행하게 되었다. 최척은 진중에 있으면서 옥영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몸이 아프게 되었다. 혼례를 치르기로 약속한 날이 되어 소장(訴狀)을 올려 휴가를 청하자, 의병장이 화를 내며 말했다.

“지금 이 어느 때인데 감히 혼사에 대해 말하느냐? 임금께서도 난리를 당하여 피난을 가서 풀썩을 방황하고 계시니, 이러한 때 신하 된 자는 마땅히 창을 베고 잘 거를도 없어야 할 것이다.”

의병장은 이렇게 꾸짖으며 끝내 최척의 귀가를 허락하지 않았다. 옥영도 최척이 돌아오지 않자 혼례를 치르지 못하고 그날을 헛되게 보낼 수밖에 없었다.

- ① 위 글은 <보기>에 비해 통쾌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 ② 위 글은 <보기>에 비해 주인공이 능동적으로 그려져 있다.
- ③ <보기>는 위 글에 비해 사실성이 두드러진다.
- ④ <보기>는 위 글에 비해 서술자의 개입이 두드러진다.
- ⑤ <보기>는 위 글에 비해 개인의 애환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다.

131. ‘김덕령’에 대해 정리한 다음의 역사 기록을 참조하여, 위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출생 배경	○ 전라도 광주 사람이다. ○ 미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인물 특성	○ 기개가 있고 자부심이 있었다. ○ 다른 사람에 비해 용맹과 힘이 뛰어났다.
주요 행적	○ 형 김덕홍이 의병으로 참전했다가 전사하자 세상일에 뜻을 두지 않았다. ○ 모친상을 치른 후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 매부 김응화가 여러 번 왜적을 토벌하라고 권유했으나 주저하였다. ○ 최담령 등 수십 명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 왜장 가등청정이 경계를 강화할 정도로 뛰어난 의병 활동을 하였다.

고난 고전 신문 정선

- ① 출생지를 달리 설정한 것은 독자층을 널리 확보하기 위한 것이겠군.
 ② 인물 특성을 과장한 것은 김덕령의 영웅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겠군.
 ③ 주요 행적을 단순화한 것은 핵심적인 사건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겠군.
 ④ 상중에 출전한 것으로 바꾼 것은 김덕령의 충성심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겠군.
 ⑤ 김덕령이 가등청정을 위협한 것으로 설정한 것은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의도가겠군.

132. 문맥으로 보아 ㉠과 가장 잘 어울리는 한자 성어는?

- ① 일벌백계(一罰百戒)
 ② 유구무언(有口無言)
 ③ 청천벽력(靑天霹靂)
 ④ 토사구팽(兔死狗烹)
 ⑤ 비분강개(悲憤慷慨)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2008학년도 9월 평가원

¹조선 초에 송경 송인문 안에 한 선비 있으니, 성은 전이요 이름은 우치라. ²일찍 높은 스승에게서 신선의 도를 배우되, 본래 [A] 재질이 뛰어나고 정성이 지극하여 마침내 오묘한 이치를 통하고 신기한 재주를 얻었으나 소리를 숨기고 자취를 감추어 지내므로 비록 가까이 지내는 이도 알 리 없더라.

³이때 남방 해변 여러 고을이 여러 해 바다 도적의 노략을 당하고 었친 데 덮쳐 무서운 흉년까지 만나니, 그곳 백성의 참혹한 형상은 이루 붓으로 그리지 못할지라. ⁴그러나 조정에 벼슬하는 이들은 권세 다투기에만 눈이 붉고 가슴이 탈 뿐이요 백성의 고통은 모르는 듯 버려두니, 뜻있는 이가 통분함이 이를 길 없더니 우치 또한 참다 못하여 뜻을 결단하고 집을 버리며 세간을 헤치고, 천하로써 집을 삼고 백성으로써 몸을 삼으려 하더라.

〈중략〉

⁵이때 간의태위 상소하여 왈

⁶“호서 땅에 사오십 명이 모여 반역을 모의하여 조만간 기병(起兵)한다는 문서를 사자가 신에게 가져왔사오니, 그를 가두어 두고 사연을 아뢰나이다.”

⁷상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⁸“과인이 박덕(薄德)하여 ㉠곳곳에 도적이 일어나니 어찌 한심치 아니하리오.”

하고 금부와 포청으로 잡으라 하시니, 오래지 않아 적당을 잡았거늘, 상이 친히 신문하는데 그중에 한 놈이,

⁹“선전관 전우치 재주 과인(過人)하기로 신 등이 우치로 임금을 삼아 만민을 평안케 하려 하더니, 하늘이 돕지 않아 발각되었으니 죄사 무석(罪死無惜)*이로소이다.”

하더라. ¹⁰이때 우치 문사낭청(問事郞廳)*으로 있더니, 뜻밖에 이름이 역도(逆徒)의 진술에 나오는지라. ¹¹상이 대로하시,

¹²“우치 역모함을 짐작하되 나중을 보려 하였더니, 이제 발각되었으니 빨리 잡아오라.”

하시니, 나졸이 명을 받들어 일시에 달려들어 관대를 벗기고 옥계하에 꿇리니, 상이 진노하사 형틀에 올려 매고 죄를 추궁하여 왈,

¹³“네 전일 나라를 속이고 도처마다 장난함도 용서치 못할 일거늘, 이제 또 역적죄에 들었으니 ㉡변명하들 어찌 면하리오.”

하시고, 나졸을 호령하사 한 때에 죽이라 하시니, 집장과 나졸이 함꼐 치나 능히 또 매를 듣지 못하고 ㉢팔이 아파 치지 못하거늘, 우치 아뢰되,

¹⁴“신의 전일 죄상은 죽어 마땅하오나, 금일 이 일은 만만 애매하오니 용서하옵소서.”

하고, 심중에 생각하되, ‘주상이 필경 용서치 아니시리라.’ 하고 다시 아뢰기를,

¹⁵“신이 이제 죽사옵진대, 평생에 배운 재주를 세상에 전하지 못할지라. ¹⁶지하에 돌아가오니 원혼이 되리니, 앞드려 바라건대 성상은 원을 풀게 하옵소서.”

¹⁷상이 헤아리시되, ‘이놈이 재주 능하다 하니 시험하여 보리라.’ 하시고 가라사대,

¹⁸“네 무슨 능함이 있어 이리 보채느냐?”

¹⁹우치 아뢰기를,

²⁰“신이 본대 그림 그리기를 잘하니 나무를 그리면 나무가 점점 자라고 짐승을 그리면 짐승이 걸어가고 산을 그리면 초목이 나서 자라니 이러므로 명화라 하오니, 이런 그림을 전하지 못하고 죽사오면 ㉣어찌 원통치 아니리오.”

²¹상이 가만히 생각하되, ‘이놈을 죽이면 원혼이 되어 괴로움이 있을까’ 하여 즉시 맨 것을 풀려 주시고 지필(紙筆)을 내리사 원을 풀라 하시니, ㉤우치 지필을 받자와 산수를 그리니 천봉만학과 만장포포가 산 위로부터 산 밖으로 흐르게 그리고 시냇가에 버들을 그려 가지가지 늘어지게 그리고 그 밑에 안장 지은 나귀를 그리고, 붓을 던진 후 사은(謝恩)하매, 상이 묻기를,

²²“너는 ㉥방금 죽을 놈이라, 이제 사은함은 무슨 뜻이뇨?”

²³우치 아뢰기를,

²⁴“신이 이제 폐하를 하직하옵고 산림에 들어 여년을 마치고자 하와 아뢰나이다.”

고난도 고전 신문 정선
L L L L O L

하고, 나귀 등에 올라 산 동구에 들어가더니 이윽고 간 데 없거
늘, 상이 대경하사 왈

㉞“내 이놈의 껍에 또 속았으니, 이를 어찌하리오”

- 작자 미상, '전우치전'

* 죄사무석: 죽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죄가 큼.

* 문사낭청: 죄인을 신문할 때 기록과 낭독을 맡은 임시 벼슬.

133. 위 글을 통해 '전우치'에 대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지로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였다.
- ② 조정에서 내린 벼슬을 받지 않았다.
- ③ 임금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 ④ 사사로운 이익보다 대의를 중시하였다.
- ⑤ 예전에도 나라를 곤란하게 한 적이 있다.

134. [A]와 비교하여 <보기>의 특징을 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인조 대왕 시절에 강원도 원주에 사는 한 사람이 있되, 성은 전이
요 명은 중보였다. 근본이 관노였지만 부자였고 늦도록 아들이 없어
걱정이었다. 어느 해 흉년이 들었을 때, 중보는 재산을 풀어 백성을 구
제한 공으로 벼슬을 얻었다. 인조 10년에 전중보는 신선의 제자가 자
신의 덕성을 칭찬하는 꿈을 꾸 후 아들을 얻어서 이름을 우치라 하였
다. 우치는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걷고, 오십 일 만에는 언어를 통달하
였다. 전중보는 불도를 가르칠 생각으로 우치를 절에 보냈다.

- ① 전우치의 태몽을 제시하여 인물의 신이성을 강화했군.
- ② 전우치의 출생을 전우치 아버지의 행적과 관련지었군.
- ③ 전우치의 득도 과정을 보여 주어 초월적 인물임을 강조했군.
- ④ 전우치의 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인물의 역사적 실재성을 부각했군.
- ⑤ 전우치 아버지의 원래 신분을 밝혀 전우치가 하층 출신 영웅임을 암시했군.

135. ㉠의 그림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

- ㄱ. 다른 공간으로 이어지는 통로이다.
- ㄴ. 의롭지 못한 자를 단죄하는 방법이다.
- ㄷ. 주인공의 능력을 보여 주는 수단이다.
- ㄹ.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방편이다.

- ① ㄱ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ㄱ, ㄴ, ㄹ

136. ㉡~㉣를 바꾸어 쓴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침소봉대(針小棒大)하니
- ② ㉢ - 목불인견(目不忍見)이리라
- ③ ㉣ - 수수방관(袖手傍觀)하거늘
- ④ ㉡ - 각골통한(刻骨痛恨)하리이다
- ⑤ ㉣ - 기사회생(起死回生)하리니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08학년도 3월 서울시 교육청

¹홍부는 마음이 인후하여 청산유수와 곤륜산의 옥결(玉玦)과 같았다.
²성덕을 본받고 악인을 저어하며, 물욕에 탐이 없고 주색에 무심하니,
마음이 이러하니 부귀를 바랄 것인가.

³홍부 아내가 하는 말이,

⁴“애고 여보소, 부질없는 청렴 맙소 ⁵안자(顔子) 단표(簞瓢)는 주린
염치로 삼십 조사(早死)하였고, 백이숙제(伯夷叔齊)는 주린 염치로 청투
* 소년이 웃었으니, ⁷부질없는 청렴 말고 저 자식들 굶겨 죽이겠으니,
이주버님네 집에 가서 쌀이 되나 벼가 되나 얻어 읊소”

⁶홍부가 하는 말이,

⁷“낮을 쇠우에 슬혼고 ⁸형님이 음식 끝을 보면 사촌을 몰라보고 똥
싸도록 때리는데, 그 매를 뉘 아들놈이 맞는단 말ियो?”

⁹“애고 동냥은 못 준들 쪽박조차 깨칠손가. ¹⁰맛으나 아니 맛으나 쏘
아나 본다고 건너가 보소”

¹¹홍부 이 말을 듣고 형의 집에 건너갈 때, ¹²치장을 볼 것 같으면 편
자 없는 헌 망건에 박초가리 관자 달고 물렛줄로 당끈 달아 대가리 터
지게 동이고 깃만 남은 중치막 동강 이은 헌 술띠를 흥복통에 눌러 띠
고 떨어진 헌 고의(袴衣)에 청울치로 대님 매고, 헌 짚신 감발하고 세
살 부채 손에 쥐고, 서슴들이 오망자루 꿈무늬에 비스듬 차고, 바람 맞은
병인같이 잘 쓰는 쇠소(灑掃)같이 어숙비숙 건너달아 형의 집에 들어가
서, 전후좌우 바라보니, 앞노적, 뒷노적, 멍에노적 담불담불 쌓였으니,
홍부 마음은 즐거우나 놀부 심사는 무거하여 형제끼리 내외하여 구박
이 태심하니, 홍부는 할 일 없어 뜰아래서 문안하니, 놀부가 묻는 말이,
¹²“네가 뉘고?” / ¹³“내가 흥부요” / ¹⁴“홍부가 뉘 아들인가?”

¹⁵“애고 형님 이것이 웬 말ियो? ¹⁶비웁니다. ¹⁷형님전에 비웁니다. ¹⁸
세 끼 굶어 누운 자식 살려낼 길 전혀 없으니, 쌀이 되나 벼가 되나 양
단간에 주시면, 품을 판들 못 값으며 일을 한들 공할손가. ¹⁹부디 옛일
을 생각하여 사람을 살려 주시오”

²⁰애걸하니, 놀부놈의 거동 보소 ²¹성낸 눈을 부릅뜨고 불을 치며 호
령하기를,

고난 고전 신문 정선
L L L L O L

22“너도 염치없다. 23내 말을 들어 보아라. 24천불생무록지인(天不生無祿之人)이요, 지불생무명지초(地不生無名之草)***라. 25네 복을 누굴 주고 나를 이리 보체느냐? 26㉠쌀이 많이 있다 한들 너 주자고 노적을 헐며, 벼가 많이 있다고 한들 너 주자고 섬을 헐며, 돈이 많이 있다 한들 괴목궤에 가득 든 것을 문을 열며, 가룟 되나 주자 한들 복고왕 염소독에 가득 넣은 것을 독을 열며, 의복이나 주자 한들 집안이 고루 벗었거든 너를 어찌 주며, 찬밥이나 주자 한들 새끼 낳은 거먹 암개 부엌에 누웠거늘 너 주자고 개를 굶기며, 지게미나 주자 한들 구중방(九重房)우리 안에 새끼 낳은 돌이 누웠으니 너 주자고 돌을 굶기며, 젓섬이나 주자 한들 큰 농우가 네 팔이니 너 주자고 소를 굶기랴. 27염치없다, 흥 부놈아.”

28하고, ㉡주먹을 불끈 쥐어 뒤통지를 짹 잡으며, 몽둥이를 지끈 쥐어 손잔 스님의 매질하듯 원화상의 법고 치듯 아주 광광 두드리니, 흥부 울며 하는 말이,

29“㉢아이고 형님 이것이 웬 일이요 30방약무인 도적(盜跖)이도 이보다 성현이요, 무거불측(無據不測) 관숙(管叔)이도 이보다 군자보다. 31우리 형제 어찌 이다지도 극악한가.”

〈중략〉

32㉣놀부 마음에 흐뭇하여 매통에 열 냥씩을 정하고 박을 켜다.

33“슬근슬근 톱질이야.”

34힘써 켜고 보니 한 때 거문고쟁이가 나오며 하는 말이,

35“우리 놀부 인심이 좋고 풍류를 좋아한다 하기에 놀고 가옵네.”

36“둥둥둥둥 둥둥둥둥” 하기에, 놀부가 이것을 보고 재보를 원망하는 말이,

37“톱도 잘 못 당기고, 네 콧소리에 보화가 변하였는가 싶으니 소리를 모두 하지 말라.”

38하니, 재보 샅받아야겠기에 한 말도 못하고 그리하라 하니, 놀부 일변 돈 백 냥을 주어 보내고, 또 한 통을 타고 보니 무수한 노승이 목탁을 두드리며 나와 하는 말이,

39“우리는 강남향제 원당시주승(願堂施主僧)이라.”

40하니, 놀부놈이 어이없이 돈 5백 냥을 주어 보내니, 재보 하는 말이,

41“지금도 내 탓이냐?”

42하고 이죽거려니, 놀부 이 형상을 보고 통분하여 성결에 또 한 통을 따 오니, 놀부 아내가 말리며 하는 말이,

43“제발 덕분에 켜지 마오 44그 박을 켜다가는 패가망신할 것이니, 덕분에 켜지 마오”

45놀부놈이 하는 말이,

46“좁스러운 계집년이 무슨 일을 아는 체하여 방정맞게 날뛰는가.” 하며

47또 한 통을 타고 보니 천여 명 초라니***가 ㉤일시에 내달으며 달려들어 놀부를 덮미잡이하여 가로 떨어치니, 놀부가 거꾸로 떨어지며,

48“아이고 아이고 초라니 형님, 이것이 웬일이요 49생사람을 병신 만들지 말고 분부하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까.”

50하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 작자 미상, '흥부전'(경판 25장본)

* 청루 : 기생집

** 천불생무록지인(天不生無祿之人)이요, 지불생무명지초(地不生無名之草) : ‘하늘은 복이 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

*** 초라니 : 나례(儻禮)를 거행하는 사람 중의 하나로 기괴한 계집형상의 탈을 쓰고 있음

13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술자가 개입하여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 ② 운율감이 느껴지는 어투가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 ③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 ④ 평민 계층의 언어와 양반 계층의 언어가 혼재되어 있다.
- ⑤ 전체적으로 상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사건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138. 위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놀부는 남존여비적인 사고로 놀부 처를 꾸짖고 있군.
- ② 재보는 놀부의 책망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군.
- ③ 흥부는 형제 간의 우애를 내세워 놀부에게 도움을 간청하고 있군.
- ④ 놀부는 흥부를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며 박대하고 있군.
- ⑤ 흥부는 놀부의 평소 성품을 들어 흥부 처의 요구에 난감해 하고 있군.

139. ㉠과 ㉡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탄고토(甘呑苦吐) ② 개과천선(改過遷善) ③ 조삼모사(朝三暮四)
- ④ 인과응보(因果應報) ⑤ 점입가경(漸入佳境)

140. ㉠~㉤을 통해 추리할 수 있는 시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고루한 명분에 집착하기보다는 실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 ② ㉡ : 기존의 신분 제도가 흔들리면서 몰락한 양반이 생겨났다.
- ③ ㉢ : 돈과 재물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이는 태도가 널리 퍼져 있었다.
- ④ ㉣ : 가족 간의 결속력이 점차 약해져 경로사상도 약화되었다.
- ⑤ ㉤ : 계약적 고용 관계를 토대로 하는 임금 노동자가 등장했다.

고난 고전 신문 정선
L L L L O L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08학년도 4월 경기도 교육청

〈앞부분의 줄거리〉¹시골의 한 부자가 도리를 저버린 친척의 재산 분배에 대한 요구에 형조에 처벌을 요구하는 송사를 의뢰한다.²그러나 친척은 갖은 수단을 써서 형조의 관원들을 만난다.³그러하여 재판에서 패하게 된 부자가 관원들에게 서로 소리 겨룸을 하던 날짐승들의 송사 이야기를 들려준다.

⁴황새놈이 덩싹 웃고 이르되,

⁵“이런 급한 일이 있기에 나를 보러 왔지, 그렇지 아니하면 어찌 왔으리요. 그러나 ㉠네 무슨 일인지 네 소회를 자세히 이뢰어라.”

⁶따오기 아뢰되,

⁷“다른 일이 아니오라 꾀꼬리와 빠꾸기와 소인과 세 놈이 우는 소리 겨룸하였더니 자과(自誇)를 부지(不知)라.⁸그 고하를 정하지 못하옵기로 결단치 못하여 왔삽더니 서로 의논하되 장군께옵서 심히 명철처분하시므로 명일에 댁에 모여 송사하려 하오니 그 중 소인의 소리 세 놈 중 참혹하여 아주 껴짜치오니* 팔야 송사에 이기지 못하올 지라.⁹미련하온 소견에 남 먼저 사또께 이런 사연을 아뢰어 청이나 하옵고 그 두 놈을 이기고자 하오니, 사또 만일 소인의 전정(前情)을 잊지 아니하옵시고 명일 송사에 아래 해(下)자를 웃 상(上)자로 도로 집어 주옵심을 바라옵나이다.”

¹⁰황새놈이 이 말을 듣고 속으로 펍 든든히 여겨 하는 말이,

¹¹“도시 상놈이란 것은 미련이 약차하여 사체경중(事體敬重)을 아지 못하고 ㉡제 욕심만 생각하여 아무 일이라도 쉬운 줄로 아는 구나.¹²대저 송사에는 애증(愛憎)을 두면 칭원(稱冤)도 있고 비례 호송하면 정체에 손상하나니 어찌 그런 도리를 알리요.¹³그러나 송사는 곡직을 불계(不計)하고 꾸며대기에 있나니 이른바 이현령 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라 어찌 네 일을 범연히 하여 주랴.¹⁴전에 도 내 내 덕도 많이 입었거니와 이 일도 내 아무쪼록 힘을 써 보려니와 만일 내 네 소리를 이기어 주어 필연 칭 받고 그릇 공사한다 하면 아주 입장이 난처하게 되리니 이를 염려하노라.”

¹⁵따오기 고쳐 아뢰되,

¹⁶“분부가 이렇듯 하시니 상덕(上德)만 믿고 가나이다.”

¹⁸황새 웃고 이르되,

¹⁹“성사하기 전 세상사를 어찌 알리요, 어디 보자.”

하거늘, 따오기 하직하고 돌아왔더니, 날이 밝으매 세 짐승이 황새 집에 모여 송사할새 황새놈이 대청에 좌기하고 무수한 날짐승이 좌우에 거행하는지라.²⁰그 중 수리는 율관(律官)이요 솔개미, 까치, 징경이, 올빼미, 바람개비, 비둘기, 부엉이, 제비, 참새 등 짐승이 좌우에 나열하여 불러들이니 세 놈이 일시에 들어와 아뢰되,

²¹“소인 등이 소리 겨룸 하옵더니 능히 그 고하를 판단치 못하오매, 부월(斧鉞)을 무릅쓰고 사또 전에 송사를 올리오니 명철처분하옵심을 바라옵나이다.”

하되, 황새 정색하고 분부하여 이르되,

²²“너희 등이 만일 그러할진대 각각 소리를 하여 내게 들린 후 상하를 결단하리라.”

하니 꾀꼬리 먼저 날아들어 소리를 한번 곱게 하고 아뢰되,

²³“소인은 방춘화시 호시절에 이화도화 만발하고 앞내의 버들빛은 초록장 드리운 듯 뒷내의 버들빛은 유록장(柳綠幀) 드리운 듯, 금빛 같은 이내 몸이 날아들고 떠들면서 흥에 겨워 청아한 쇠옥성을 춘풍 곁에 흠날리며 구십춘광 보낼 적에 뉘 아니 아름답게 여기리이까.”

²⁴황새 한번 들으매 과연 제 말과 같으며 심히 아름다운지라.²⁵그러나 이제 제 소리를 종다 하면 따오기에게 청받은 뇌물을 도로 줄 것이요, 좋지 못하다 한즉 공정치 못한 것이 정체가 손상할지라.²⁶침음반향(沈吟半响)*에 제사(題辭)하여 으르되,

²⁷“네 들어라. 당시에 운하되 타기황앵이(打起黃鶯兒)하여 막교지상제(莫教枝上啼)라 하였으니 네 소리 비록 아름다우나 애잔하여 쓸데 없도다.”

²⁸꾀꼬리 잠즉히 물러나올새 빠꾸새 또 들어와 목청을 가다듬고 소리를 묘하게 하여 아뢰되,

²⁹“소인은 녹수천산(綠水千山) 깊은 곳에 만학천봉 기이하고 안개 피어 구름되며 구름 걷어 다기봉하니 별건곤이 생겼는데 만장폭포 흘러내려 수정렴을 드리운 듯 송풍은 소슬하고 오동추야 밝은 달에 섬겨온 이내 소리 만첩산중에 가끔성이 되오리니 뉘 아니 반겨하리이까.”

³⁰황새 듣고 또 제사하여 이르되,

³¹“월낙자규제(月落子規啼)하니 초국천일애(楚國千里愛)라 하였으니, 네 소리 비록 쇠락(灑落)하나 심분 궁수(窮愁)하니 전정을 생각하면 가히 불쌍하도다.”

하니 빠꾸새 또한 무료*하여 물러나거늘,³²그제야 따오기 날아들어 소리를 하고자 하되 저보다 나은 소리도 벌써 지고 물러나거늘 어찌할고 하며 차마 남 부끄러워 입을 열지 못하나 그 황새에게 약 먹임을 믿고 고개를 낮추어 한번 소리를 주하며 아뢰되,

³³“소인의 소리는 다만 따옥성이윽고 달리 풀쳐 고하올 일 없사오니 사또 처분만 바라고 있나이다.”

하되, 황새놈이 그 소리를 문득 듣고 두 무릎을 탕탕치며 좋아하여 이른 말이,

³⁴“쾌재(快哉)며 장재(壯哉)로다. 음아질타에 천인이 자폐(自斃)함은 옛날 항장군의 위풍이요 장판교 다리 위에 백만군병 물리치던 장익덕의 호통이로다.³⁵네 소리 가장 웅장하니 짐짓 대장부의 기상이로다.”

하고 이렇듯 처결하여, 따옥성을 상성으로 처결하여 주오니,³⁷그런 짐승이라도 뇌물을 먹은 즉 오결하여 그 꾀꼬리와 빠꾸새에게 못할 노릇 하였으니 어찌 양급자손(殃及子孫) 아니 하오리이까.³⁸이러하온 짐승들도 물욕에 잠겨 틀린 노릇을 잘 하기로 그 놈을 심히 욕하고 우셨으니, 이제 ㉢서울 법관도 여차하오니 소인의 일은 벌써 판이 났으며 부질없는 말하여 쓸데없으니 이제 물러가나이다.”

하니 형조 관원(刑曹官員)들이 대답할 말이 없어 가장 부끄러워하더라.

- 작자미상, ‘황새 결송(決訟)’

* 껴짜치오니 : 면목이 없으니

* 침음반향(沈吟半响) : 입속으로 웅얼거리며 반나절이나 깊이 생각함

* 무료 : 부끄럽고 열없음

141. 위 글의 등장인물들에 대한 추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찌꼬리’는 자신의 울음소리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해 왔던 것 같아.
- ② ‘황새’가 불공평한 판결을 하는 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인 것 같아.
- ③ ‘뼈꼭새’가 ‘황새’의 판결에 이의 없이 물러서는 것을 보니 소극적인 인물인 것 같아.
- ④ ‘따오기’가 자기 소리를 자랑하지 않고 사또의 처분만 기다리는 것은 겸손한 모습으로 보여.
- ⑤ ‘황새’가 ‘날짐승’들을 재판정에 부른 것은 판결이 공정하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여.

142. [A]에 나타난 ‘황새’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있다.
- ②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고 한다.
- ③ 상대방을 훈계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려고 한다.
- ④ 상대방을 배려하면서도 자신의 겸손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상대방을 고려하면서도 자신의 너그러움을 과시하고 있다.

143. ㉠에 해당하는 ‘황새의 행위’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144. <보기>를 참고할 때, 위 글을 통해 이끌어낼 수 있는 교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우화소설은 상징성이 풍부한 우화 형식을 이용해 타락한 사회상을 비판하는 한편, 당대 사람들의 삶에 문제를 제기 함으로써 새로운 가치와 윤리의식을 드러낸다. 이 형식은 인간 유형의 전형(典型)을 통해 인생과 사회의 단면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 송사소설은 송사 사건의 발생·경과·해결 과정 및 판결과 그 결과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사이의 다양한 갈등이 당대의 시대 사회적 변모 양상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 ① 무지가 많은 문제를 가져오는구나. 불치하문(不恥下問)이라는 말이 있듯이 누구에게나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겠어.
- ② 공적인 일에 사사로운 관계를 개입시키면 안 되겠구나. 공평무사(公平無私)라고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하겠어.
- ③ 한 쪽의 입장만을 두둔하면 판단이 잘못될 수 있구나. 불편부당(不偏不黨)이라고 공정하게 판정하는 일이 중요하겠어.
- ④ 잘못된 관행이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겠구나. 파사현정(破邪顯正)이라는 말처럼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는 일이 필요하겠어.
- ⑤ 거짓을 언제까지나 숨길 수는 없는 법이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옳지 못한 일은 밝혀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09학년도 6월 평가원

세월이 물같이 흘러 웅의 나이 15세라. 골격이 웅장하고 기운이 뛰어나더라. 하루는 웅이 모친께 청했다.

“소자 지금 나이 15세요, 이곳이 선경(仙境)인지라 가히 살만한 곳이지만, 대장부 세상에 처하매 한곳에서 늙을 것이 아니옵니다. 신선도 두루 돌아다녀 박람(博覽)*한다 하거늘 소자가 슬하를 잠시 떠나 산 밖에 나가 세상을 구경하고 황성 소식도 듣고자 하나이다.”

왕 부인이 매우 놀라며 말했다.

“천리 타향에 너는 나만 믿고 나는 너만 믿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거늘 네 일신인들 내 슬하를 떠나며, 내 어찌 너를 내어 보내고 일신인들 잊을꼬냐. 네 어디를 갈 양이면 한가지로 할 것이라. 차후는 그런 마음 두지 말라. 매우 놀랍도다.”

웅이 다시 아뢰지 못하여 물러 나와 월경 대사와 의논했다.

“내 이제 세상에 나가도 남에게 화를 입지 않을 것이옵니다. 또한 내 몸이 중이 아니라 오래 산 속에 있사오니 황성 소식도 모르고 나의 심중에 품은 일도 아득하와, 일전에 모친께 사정을 고하오니 도리어 꾸중하시는 바람에 다시 거역하지 못하였삽거니와, 대사께서는 저를 위하여 모친의 마음을 돌려 저의 뜻을 폐게 함이 어떠하오리까?”

대사가 말했다.

“공자의 말은 반반한 장부의 말이로다.”

하고 부인 앞에 가서 고금의 일을 이야기하다가 공자의 품은 큰 뜻을 여쭙니 부인이 말했다.

“말은 당연하나 만리타국에 보내고 어찌 이 적막강산 사고무친한 곳에서 잠시라도 잊을 수 있으며 또한 저의 나이 어리고 세상사에 어리석은지라, 어지러운 세상에 나가 어찌 될 줄 알리오?”

“부인의 말씀도 일리가 있사옵니다. 그러나 이제 공자를 어리다 하시거니와, 천병만마에 시석(矢石)*이 비 오듯 하여 살기(殺氣)가 충천한 곳에 넣어도 조금도 걱정할 바가 없을 것이니 부인은 어찌 사람의 운명을 의심하십니까? 흥문연 살기 중에 패공이 살아나고, 파강산 천경사의 부인이 살아났으니 어찌 천명을 근심하리오. 소승 또한 공자의 환란을 짐작하지 못하오면 어찌 출세함을 권하며, 공자 세상에 나가도 부인은 이곳에 계시오면 무슨 근심이 있으리까?”

이렇게 설득하니 부인이 한동안 생각하다가 말했다.

㉠“만일 존사의 말씀과 같지 못하면 어찌하리오?”

“공자의 평생 영욕(榮辱)을 다 알았사오니 조금도 염려 마옵소서.”

부인이 마지못해 허락하니 대사와 웅이 기뻐 이튿날 길을 떠났다.

(중략)

“십 년을 정성 들여 선생을 찾아왔는데 뵈지 못하오니, 바라옵건대 동자는 가신 곳을 가르쳐 주소서.”

동자가 웃으며 말했다.

“나무꾼이 기러기를 쏘아 맞지 못하매 제 공부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활과 살을 썬 버리니 그대도 나무꾼과 같도다. 그대 정성이 부족한 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주인이 없음을 원망하니 매우 우습

도다. 다만 선생께서는 이 산중에 계시건만 산세가 워낙 험하니 그 종적을 어찌 알리오?”

다시 반나절을 기다렸으나 종적이 묘연한지라. 울적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붓을 잡아, 못 보고 가는 뜻을 글로 쓰고 동자를 불러 하직하고 나오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러라.

이때 철관 도사가 산중에 그윽이 앉아 웅의 거동을 보더니 벽에 글을 쓰고 가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급히 내려와 벽의 글을 보니 다음과 같았다.

[A] 십 년을 지내 온 나그네가
만 리 밖에서 찾아오도다.
못에서 웅이 날아오르려 하거늘
이 또한 정성이 모자람이라.

도사가 보기를 다하고 크게 놀라 급히 동자를 산 밖에 보내 웅을 청하니 웅이 동자를 보고 물었다.

“선생이 왔더니까?”

“이제야 오셔서 청하시니이다.”

웅이 반겨 동자를 따라 들어가니 도사가 사립문에 나와 웅의 손을 잡고 기뻐하며 말했다.

“험한 산길에 여러 번 고생하였도다.”

하고 동자를 시켜 저녁밥을 재촉하여 주거늘 웅이 먹은 후 감사하며 말했다.

“여러 날 굶주린 배에 좋은 밥을 많이 먹으니 향기가 뱃속에 가득한지라 감사하여이다.”

“그대의 먹는 양을 어찌 알아 권하였으리오?”

하고 책 두 권을 주며,

“이 글을 보아라.”

하거늘, 웅이 무릎을 꿇고 펼쳐 보니 성현(聖賢)들이 쓴 책이라. 웅이 다 본 후에 다른 책을 청하니, 도사가 웃고 『육도삼략』을 주거늘 받아 큰 소리로 읽었다. 도사가 더욱 기특하게 여겨 『천문도』 한 권을 주거늘 받아 보니 기묘한 법이 많은지라. 도사가 가르치는 술법을 배우니 뜻이 넓어지고 눈앞의 일을 모를 것이 없더라.

- 작자 미상, ‘조웅전’

* 박람: 사물을 널리 봄.

* 시석: 전쟁에 쓰던 화살과 돌.

145. 위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철관 도사는 조웅의 자질을 의심하고 있다.
- ② 왕 부인은 조웅의 입신양명을 희망하고 있다.
- ③ 동자는 조웅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 ④ 월경 대사는 조웅의 장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 ⑤ 조웅은 어머니의 입장보다 자신의 포부를 앞세우고 있다.

146. [A]의 서사적 기능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 보기 ■

- ㄱ. 주인공의 예언 능력을 보여 준다.
- ㄴ. 주인공의 심리적 정황을 제시한다.
- ㄷ. 주인공의 위기를 예고하는 복선이 된다.
- ㄹ. 주인공의 고민을 해소하는 계기가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147.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이해할 때,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소대성 : 나는 『소대성전』의 주인공이야.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구해 영웅이 되었지. 그런데 네가 영웅이 된 과정은 나와 다르더군.

조 웅 :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간신의 박해를 받아 고생을 했고, 그 간신 이 일으킨 반란을 평정해서 영웅이 되었지. 태어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기가까지 줄곧 적과 싸움을 한 셈이야.

소대성 : 나도 부모를 잃어 고생한 적은 있었어. 하지만 선천적으로 무예와 도술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수련의 과정이 필요 없었어.

조 웅 : 그렇구나. 나는 너와 달리 스승을 찾아야 했고, 참으로 긴 수련의 과정이 필요했어.

소대성 : 그래서 너의 이야기에는 나의 이야기와 다른 ㉠특징이 있구나.

- ① 등장인물의 수를 늘려 설정된 사건을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게 한다.
- ② 주인공의 영웅성과 함께 대사나 도사의 신비한 능력을 부각시켜 환상적 분위기를 연출한다.
- ③ 스승의 존재를 부각시킴과 동시에 공부에 대한 강한 신념을 드러내어 소설의 교훈성을 부각시킨다.
- ④ 주인공의 시련을 좀 더 단계적으로 설정하여 사건의 전개 속도를 빠르게 하는 한편 주제를 심화시킨다.
- ⑤ 선천적으로 초월적 힘이 주어진 경우보다 고난 극복에 대한 주인공의 현실적이고 강인한 의지를 부각시킨다.

148. 문맥으로 보아 ㉠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왕 부인은 ‘선견지명(先見之明)’이 있군.
- ② 왕 부인은 ‘노심초사(勞心焦思)’하고 있군.
- ③ 왕 부인은 ‘식자우환(識字憂患)’에 해당하는군.
- ④ 왕 부인은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리고 있군.
- ⑤ 왕 부인은 ‘적반하장(賊反荷杖)’의 말을 하고 있군.

고난 고전 신문 정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2009학년도 4월 경기도 교육청

[앞부분의 줄거리] ¹예방 소임을 맡아 제주에 온 배비장은 어머니와 부인에게 여자에게 빠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방자에게까지 큰소리 친다. ²그러나 제주 목사의 지시로 기생 애랑이 유혹하자 한눈에 반하고 만다. ³그래서 애랑에게 편지를 보낸 후 답장을 받는다.

¹강호에 병이 들어 덧없이 죽겠더니, 낭자 회답이 반갑도다. ²삼경에 기약 두고 해지기만 바라더니 석양이 다 저 간다.

³방자 입시(入侍) 보내고 빈 방 안에 문을 닫고 그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다시 의관을 차릴 적에, 망건 위에 탕건 쓰고 그 위에 병거지 올려 쓰고, 철릭 위에 쾌자 입고 허리에는 관대 두르고 활과 화살 주머니를 제법 격식 있게 갖추고 빈방 안에 혼자 우뚝 서서 도깨비 들린 듯이 혼잣말로 두런거리며 습의(習儀)*하고 하는 말이,

⁴“가만가만 걸어가서 여자 문전에 들어서며 기침 한번을 가만히 하면 그 여인이 김새를 채고 문을 펄쩍 열렸다. ⁵걸음을 한번 대학지 도로 이리 걸어 들어가 수인사후(修人事後)에 대천명(待天命)이라 하니, 여자에게 한번이되 군례(軍禮)로 뵈렸다.”

⁶한창 이리 습의할 제, 방자놈이 뜻밖에 문을 펄쩍 열며 하는 말이,

⁷“나으리, 무엇하오?”

⁸배비장 깜짝 놀라,

⁹“너 벌써 왔느냐?”

¹⁰“예, 군례 전에 대령하였소.”

¹¹“이놈, 내 깜짝 놀라 바로 땀이 난다.”

¹²하며 방자 앞세운 채로 썩 나서니, 달이 진 산에 까마귀 울고 고기 잡는 불빛이 물에 비친다. ¹³앞개울에 있던 사람은 돌아가고 춘풍에 학이 운다. ¹⁴전 기약 맺은 낭자 이 밤중에 어서 가자. ¹⁵거들거려 갈 제 방자놈 이르는 말이,

[A] ¹⁶“나으리 소견 바이 없소 ¹⁷밤중에 유부녀 통간 가오면서 비단 옷 입고 저리 하고 가다가는 될 일도 못 될 것이니, 그 의관 다 벗으시오”

¹⁸“벗기는 초라하구나.”

¹⁹“초라커든 가지 마옵시다.”

²⁰“애야, 요란히 굴지 마라. ²¹내 벗으마.”

²²활짝 벗고 알몸으로 서서,

²³“어떠하니?”

²⁴“그것이 원 종소마는, 누구 보면 한라산 매사냥꾼으로 알겠소. ²⁵제주 인물 복색으로 차리시오”

²⁶“제주 인물 복색은 어떤 것이냐?”

[B] ²⁷“개가죽 두루마기에 노평거지*를 쓰시오”

²⁸“그것은 과히 초라하구나.”

²⁹“초라하거든 그만두시오”

³⁰“그러하단 말이로다. ³¹개가죽 아니라, 도야지 가죽이라도 내 입으마.”

³²하더니, 구록피(狗鹿皮) 두루마기에 노평거지를 쓰고 나서서 앞뒤를 살펴보며,

³³“애야, 범 보면 개로 알겠다. ³⁴군기총(軍器銃) 하나만 내어 들고 가자.”

³⁵“무섭거든 가지 마옵시다.”

³⁶“애야, 그러하단 말이로다. ³⁷네 성정 그러한 줄 몰랐구나. ³⁸정 못 갈 타이면 내 업고라도 가마.”

³⁹배비장 뒤를 따라 가며 하는 말이,

⁴⁰“기약 둔 사랑 여자 어서 가 반겨보자.”

⁴¹서쪽 창문으로 돌아들어 동편 소나무 계단에 다다르니, 북쪽 창에 밝게 켜 불 외로운 등은 한 점이요, 야색은 삼경이라. ⁴²높은 담 궁궐 찾아가서 방자 먼저 기어들며,

⁴³“쉬, 나으리 잘못하다가는 일 날 것이니, 두 발을 한데 모아 묘리(妙理) 있게 들이미시오.”

⁴⁴배비장이 방자 말을 옹계 듣고 두 발을 모아 들이미자, 방자 높이 안에서 배비장의 두 발목을 모아 쥐고 힘껏 잡아당기니, 부른 배가 딱 걸려서 들도 나도 아니하는지라,

[C] ⁴⁵배비장 두 눈을 희게 뜨고 이를 갈며,

⁴⁶“좀 놓아다고!”

⁴⁷하면서, 죽어도 문자(文字)는 쓰는 것이었다.

⁴⁸“포복불입(飽腹不入)하니 출분(出糞)이 기사(幾死)로다.*”

⁴⁹방자 안에서 웃으며 탁 놓으니, 배비장이 곤두박질하여 일어 앉으며 하는 말이,

⁵⁰“매사(每事)가 순리로 아니 되니 대패(大敗)로다. ⁵¹산모(産母)의 해산법으로 말하여도 아해를 머리부터 낳아야 순산이다 하니, 내 상투를 들이미는 것이니 잘 잡아 다려라.”

⁵²방자놈이 배비장 상투를 노평거지 쓴 채 왈각 잡아당기니, 아무리 하여도 나온 줄 모르겠다. ⁵³사지부생(死地復生)이라, 원명(元命)이 재천(在天)이로다. ⁵⁴뺨 하고 들어가니 배비장이 아픈단 말도 못 하고, ⁵⁵“어허, 아마도 내 등에는 끈질근자판을 놓았나 보다.”

- 작자 미상, ‘배비장전’

* 습의 : 행동을 미리 연습함.

* 노평거지 : 노병거지의 잘못 실 삼 종이 따위를 가늘게 비비거나 끈 줄로 엮어서 만든 병거지.

* 포복불입하니 출분이 기사로다 : 배가 불러 들어갈 수 없으니 똥이 나와 죽겠구나.

149.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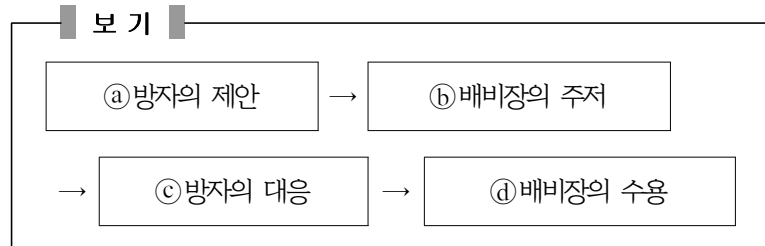
- ①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며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건을 관찰하고 있다.
- ③ 행동의 묘사와 대화를 통해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④ 기지와 재치로 신분 상승을 꾀하는 인물을 비웃고 있다.
- ⑤ 사건에 따라 변화하는 인물의 입체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고난도 고전 신문 정선

150. ‘배비장’에 대해 알 수 없는 것은?

- ①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져 있다.
- ②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고 있다.
- ③ 겉으로는 상대방을 위하는 척하고 있다.
- ④ 여자에게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고 있다.
- ⑤ 양반의 체통보다는 욕망을 따르고 있다.

151. [A]와 [B]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대화의 구조를 <보기>와 같이 정리했을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는 양반을 조롱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 ② ㉡는 ㉠의 속뜻을 알아차리고 망설이는 것이다.
- ③ ㉢는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상대방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 ④ ㉣는 ㉢의 인물이 예상한 결과이다.
- ⑤ ㉣의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빨리 이루기 위해서이다.

152. [C]의 상황에 어울리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삼모사(朝三暮四)
- ② 허장성세(虛張聲勢)
- ③ 방약무인(傍若無人)
- ④ 호가호위(狐假虎威)
- ⑤ 아전인수(我田引水)

***정답**

1	②	2	④	3	③	4	①	5	③
6	④	7	②	8	④	9	③	10	①
11	②	12	①	13	③	14	④	15	②
16	①	17	④	18	②	19	⑤	20	②
21	①	22	③	23	①	24	④	25	③
26	②	27	④	28	②	29	⑤	30	⑤
31	④	32	④	33	③	34	②	35	④
36	⑤	37	④	38	⑤	39	④	40	⑤
41	①	42	①	43	①	44	②	45	③
46	②	47	②	48	②	49	①	50	④
51	⑤	52	⑤	53	③	54	①	55	③
56	④	57	⑤	58	⑤	59	⑤	60	③
61	④	62	⑤	63	③	64	①	65	②
66	④	67	③	68	②	69	③	70	①
71	①	72	①	73	⑤	74	①	75	①
76	④	77	④	78	②	79	④	80	②
81	⑤	82	①	83	③	84	⑤	85	⑤
86	⑤	87	④	88	⑤	89	①	90	③
91	⑤	92	③	93	⑤	94	③	95	④
96	①	97	⑤	98	③	99	④	100	④
101	③	102	②	103	⑤	104	④	105	④
106	③	107	③	108	④	109	①	110	⑤
111	②	112	⑤	113	①	114	①	115	③
116	⑤	117	③	118	①	119	⑤	120	⑤
121	①	122	②	123	③	124	③	125	③
126	②	127	③	128	④	129	⑤	130	④
131	①	132	①	133	②	134	③	135	②
136	④	137	⑤	138	②	139	④	140	④
141	④	142	②	143	⑤	144	①	145	⑤
146	④	147	⑤	148	②	149	③	150	③
151	②	152	②						